

# 梨花語文學會 학술대회

기획주제 발표

## 공정성과 한국어문학

**일시: 2023년 1월 12일(목) 13:00 - 18:00**

**장소: 실시간 ZOOM**

주최/주관: 이화어문학회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梨花語文學會 학술대회

## “공정성과 한국어문학”

- ▶ 방식 : 실시간 ZOOM을 통한 온라인 진행
- ▶ 일시 : 2023년 1월 12일(목) 13:00 - 18:00
- ▶ 실시간 ZOOM 회의 [ID: 763 922 9413 암호: 012345]
- ▶ 진행 순서

-1부 : 국어학-	
	* 사회: 이향(한국조지메이슨대)
[13:00 - 13:10]	개회사 * 회장: 홍혜원(충남대)
[13:10 - 13:50]	이혜용(이화여대) · 방영심(상명대) “‘공정(하다)’의 어휘관계와 의미 분석 - MZ세대를 중심으로” 토론: 박나리(한국교통대)
[13:50 - 14:30]	이윤진(안양대) “한국어교육에서의 공정성 관련 쟁점과 제언” 토론: 정미치(아주대)
[14:30 - 14:45]	중간 휴식
-2부 : 고전문학-	
	* 사회: 최지혜(이화여대)
[14:45 - 15:25]	김유미(연세대) “『호랑이를 닮아 가두면』에 나타난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과 호랑이의 관계” 토론: 한정미(한신대)
[15:25 - 16:05]	김묘정(단국대) “한문학 속 여성문학의 일 양상 - 기각(綺閣)의 『기각한필(綺閣閑筆)』을 중심으로” 토론: 임보연(대진대)
[16:05 - 16:20]	중간 휴식

-3부 : 현대문학-

\* 사회: 진선영(세종대)

[16:20 - 17:00] 김소륜(한국기술교육대)

“호모 메모리스(Homo Memoris)와 ‘공정’의 글쓰기

-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2021)를 중심으로 ”

토론: 송상덕(숭실대)

[17:00 - 17:40] 김미정(성균관대)

“소설, 재현체계에서 정동적 격전장으로

- 2010년대 중반 이후 소설 텍스트의 역학에 대해”

토론: 강지희(한신대)

[17:40 - 18:00] 연구윤리교육 및 폐회사

梨花語文學會長 홍혜원

주최/주관: 이화어문학회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목 차

“‘공정(하다)’의 어휘관계와 의미 분석 - MZ세대를 중심으로” 이혜용(이화여자대학교) · 방영심(상명대학교) ..... 1 토론 : 박나리(한국교통대학교)	1
“한국어교육에서의 공정성 관련 쟁점과 제언” 이윤진(안양대학교) ..... 19 토론 : 정미지(아주대학교)	19
“『호랑이를 덮에 가두면』에 나타난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과 호랑이의 관계” 김유미(연세대학교) ..... 37 토론 : 한정미(한신대학교)	37
“한문학 속 여성문학의 일 양상 - 기각(綺閣)의 『기각한필(綺閣閒筆)』을 중심으로” 김묘정(단국대학교) ..... 57 토론 : 임보연(대진대학교)	57
“호모 메모리스(Homo Memoris)와 ‘공정’의 글쓰기 -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2021)를 중심으로 ” 김소륜(한국기술교육대학교) ..... 77 토론 : 송상덕(숭실대학교)	77
“소설, 재현체계에서 정동적 격전장으로 - 2010년대 중반 이후 소설 텍스트의 역학에 대해” 김미정(성균관대학교) ..... 91 토론 : 강지희(한신대학교)	91
이화어문학회 연구윤리규정 (2021.07.08. 개정) ..... 103	103

# ‘공정(하다)’의 어휘관계와 의미 분석

## - MZ세대를 중심으로

이 혜 용(이화여자대학교) · 방 영 심(상명대학교)

### 차례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주제
  - 1.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2. 맥락에 따른 ‘공정(하다)’의 어휘관계
  - 2.1. ‘공정(하다)’의 유의관계
  - 2.2. ‘공정(하다)’의 반의관계
3. ‘공정성’ 담론에서 드러나는 MZ세대의 ‘공정’ 의미
  - 3.1. 능력을 전제한 공평
  - 3.2. 양적 계산이 가능한 공평
  - 3.3. ‘올바름’에 대한 기준과 공정
4. 결론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주제

우리는 누구나 ‘공정한 사회’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고 ‘공정한 평가’와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사건들은<sup>1)</sup> 공정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2021) 조사’에 따르면 ‘교육 기회(21.1%)<sup>2)</sup>’, ‘취업 기회(45.8%)’, ‘과세 및 납세 기회(42.7%)’,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34.9%)’, ‘지역균형 기회(48.2%)’, ‘법 집행(45.0%)’, ‘정치 활동(49.6%)’, ‘언론 보도(50.9%)’,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48.8%)’, ‘경제 사회적인 분배 구조(49.2%)’, ‘고용형태에 따른 대우(42.8%)’, ‘주거의 기회(42.7%)’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혀 공정하지 않다’거나 ‘별로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sup>3)</sup>

특히, 대학입시, 취업 등 경쟁적 상황에 놓인 MZ세대<sup>4)</sup>의 경우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1) 김상태·김성엽·이상엽(2021)에서는 우리 사회를 뒤흔든 주요 논란과 갈등의 뿌리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에 있으며 대표적 사건으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특혜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일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본사 정규직 전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땅 투기 논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전혀 공정하지 않다+별로 공정하지 않다’의 합계 수치이다.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2)>

4) MZ세대는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다. 밀레니얼세대는 X세대와 Z세대 사이의 인구통계학적 집단으로, 일반적으로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한 사람이다. Z세대는 밀레니얼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sup>5)</sup> 정한울·이관후(2018)에서는 MZ세대로 불리는 2030 청년들이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념보다 다양성에 기초한 각자 개인의 삶을 중시하며 현실 실리주의에 입각한 판단, 가치 및 공정성에 대한 높은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준흠(2021)에서도 MZ세대는 공정성에 대해서 투명한 절차, 합리적 설명,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며 어떤 세대보다도 ‘공정’ 담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2017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공정’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한 것을 보아도 MZ세대가 ‘공정’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sup>6)</sup>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가? 공정성(公正性, fairness), 정의(正義, justice)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철학 및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핵심 주제 중 하나였다.<sup>7)</sup>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각자의 몫에 따른 할당, 즉 ‘가치에 따른 분배’를 정의라고 했고(Aristoteles, 2013) 존 롤스는 협동적인 조직체인 사회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 지위와 직책, 재산과 자존감과 같은 가치의 분배가 공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Rawls, 2003)고 주장하였다.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할당하는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때, 사회적 신뢰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배적 정의와 공정성 논의는 J. Bentham, J. S. Mill과 같은 공리주의 관점, A. MacIntyre, M. Sandel과 같은 공동체주의적 관점, R. Nozick의 자유지상주의와 J. Rawls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관점으로 전개되어 왔다(Sandel, 2014; 김희용, 2011).

그런데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공정(하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脫事實의 시대에 있어 뉴스공정성의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강명구 1989)<sup>8)</sup>, ‘방송언어의 공정성 사례 분석-연예 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분석을 중심으로(김영임 2005)<sup>9)</sup>, ‘언론의 공정성 개념-신문 사설에 대한 담론적 접근(김현강, 2016)<sup>10)</sup> 등에서 ‘방송언어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대학 입시, 고교 내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교육적 관점에서의 ‘공정성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적 관점’에서 대입전형 공정성의 의미에 대한 논의(김재웅·강태중·박상완 2019)<sup>11)</sup>,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김평원 2018), 공정성 개념 분석과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김희용 2011)<sup>12)</sup>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공정성 인식이

세대와 알파세대의 사이의 인구통계학적 집단으로, 1990년대 중후반과 2010년대 초 사이 출생자를 말한다.

- 5) ‘취업 기회’를 예로 들면, 49.2%(19-29세), 47.6%(30-39세)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법 집행’에서도 50.9%(19-29세), 47.6%(30-39세)으로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전혀 공정하지 않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 6) 김우진, 대학생이 꼽은 2017년 대한민국 제1가치는 ‘공정’, 파이낸셜투데이, 2017. 3. 15.<<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424>>
- 7) 김상태·김성엽·이상엽, 청년세대는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인국공 사건’에 나타난 공정성 인식의 테마 분석-, 한국행정연구 제20권 제4호, 2021, 248쪽.
- 8) 강명구, 脫事實의 시대에 있어 뉴스공정성의 개념구성에 관한 연구, 言論情報研究 제26집,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89, 85-111.
- 9) 김영임, 방송언어의 공정성 사례 분석 연구: 연예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분석을 중심으로, 2005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소통학회, 2005, 1-23.
- 10) 김현강, 언론의 공정성 개념-신문 사설에 대한 담론적 접근, 담화와 인지 vol.23, no.1, 2016, 57-87.
- 11) 김재웅·강태중·박상완, ‘교육적 관점’에서 대입전형 공정성의 의미에 대한 논의, 한국교육 Vol.46 No.1, 한국교육개발원, 2019, 187-213.

각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언어의 사용은 보편적 개념의 다양한 구체적 의미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언어적 차원에서 '공정(하다)'의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2020년 인천공항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MZ 세대와 기성 세대의 '공정'의 사용 의미는 다르기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미는 단순히 개념적 의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언어적 차원에서 '공정(하다)'의 어휘관계는 어떠한가? 특히, '공정(하다)'와 유의관계, 반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어휘들과의 의미적 차이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MZ 세대가 사용하는 '공정하다'의 어휘적, 담론적 의미는 무엇인가? 기성 세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들은 의사소통 속, 다양한 상황 맥락 속에서 '공정하다'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들이 '공정(하다)'란 어휘를 사용할 때, 어떠한 문화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이때 '공정(하다)'의 의미는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

## 1.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어휘의 의미는 중심적 의미로부터 연상적 의미나 의도된 의미, 또는 비유 의미 등의 확장된 의미를 파생시킨다. Leech(1981)에 의하면 연상적 의미(associative meaning)<sup>13)</sup>는 개념적 의미의 부차적인 것으로서 내포적 의미(connotative meaning), 사회적(문체적) 의미, 감정적 의미(affective meaning-화자의 심적 태도), 반사적 의미(reflective meaning), 언어적 의미(collocative meaning) 등으로 나뉜다. 내포적 의미란 어떤 단어의 개념적 의미와 관련하여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 관습적으로 추가된, 의사소통에서의 의미를 말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의미(social meaning)'는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서 언어 사용자의 방언, 시대, 지위, 교육 수준 등을 보여준다.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MZ 세대의 '공정(하다)'의 의미는 결국 이 세대가 사용하는 '공정(하다)'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정'의 사회적 의미 분석은 MZ 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언어적 의미(collocative meaning)를 통해 유의관계에 있는 어휘들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상적 의미의 일종인 언어적 의미는 '한 단어가 주로 어떤 단어와 잘 어울려 쓰이면서 고정화된 의미'를 말한다. 문맥에서 함께 쓰이기 쉬운 단어들과의 연상으로 소통되는 의미이며 언어적 의미가 굳어지면 상투적 어휘가 되는 경우도 있다. 2장에서 언어 관계를 통해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정(하다)'의 유의관계, 반의관계를 구조화하고 이 어휘들과의 비교분석으로 의미 차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비평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을 활용한다. 비평적 담화분석은 사회적 과정(process) 및 문제(issues)들의 언어학적, 기호학적(semiotic) 측면을 분석하는 담화분석의 한 분야로서, 텍스트 자체의 분석, 텍스트의 생산, 소비 그리고 분배 과정의 분석, 담화사태의 사회·문화적 분석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Fairclough 1995, 이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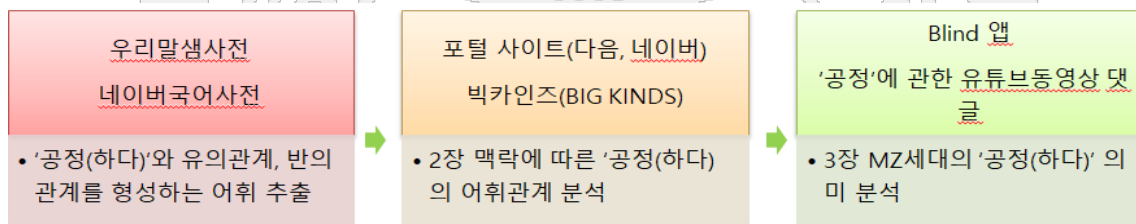
12) 김희용, 공정성 개념 분석과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教育思想研究 Vol.25 No.1,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1, 21-50.

13) 'associatove meaning' 을 연상적 의미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박재연(2022: 125)에서는 '연상되는 의미'라는 좁은 뜻보다는 개념적 의미에 '결부된 의미'라는 좀 더 넓은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서 이를 '결부된 의미'라고 번역한 바 있다.



2006: 116 재인용). 비평적 담화분석의 이론틀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어휘나 문법, 텍스트 구조 등 언어의 각 층위를 분석하는 방법과 텍스트의 기능을 화용적 층위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담화를 선형적 전개로 파악하고 텍스트의 일반적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인데, 이 논의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연구 방법 대신에 ‘MZ 세대의 공정성’이라는 가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주장과 논거로 이루어지는 담론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Fariclough and Fairclough(2012), 김현강(2016)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Fariclough and Fairclough(2012)는 미디어 담론 분석을 위해 Walton(2007)에서 논증의 요소를 행위 주장(claims for action)과 논거(argument)로 구분하고, 논거들을 분석함으로써 하나의 특정한 가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담화분석에 적용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김현강(2016)에서 ‘언론의 공정성 개념’을 같은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김현강(2016:63)에서는 공정성이라는 가치 역시 실천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 주장(claim for action)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증/논거(argument), 논증이 있게 한 상황(circumstances) 등 논증과 담론을 통해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접근은 특정한 표현이 아닌 글 전체에서 공정성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공정(하다)’를 분석함에 있어서 활용한 언어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2장의 분석 자료는 다음 카페와 네이버 블로그 글, 빅카인즈의 뉴스 자료이다. 빅카인즈(BIG KINDS)는<sup>14)</sup>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54개 언론사의 기사 DB 사이트이다. 3장의 분석 자료로 활용한 직장인 플랫폼 ‘블라인드앱’은 ‘직장인들의 대나무숲’으로 통하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이다. 2013년에 출시되었고, 2022년 1월 기준, 가입자 수는 417만 명(15만 개 회사)으로, 대기업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공정’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글 작성자의 연령이 MZ세대로 밝혀진 텍스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MZ세대가 게시한 ‘공정’과 관련된 텍스트를 분석하여, 이들이 ‘공정(하다)’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sup>15)</sup>

## 2. 맥락에 따른 ‘공정(하다)’의 어휘관계

‘공정(公正)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르다’<sup>16)</sup>인데, 이때의 ‘공평하다(어느 쪽으

14)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15) 유튜브 동영상 댓글은 모든 세대가 올릴 수 있으므로 댓글에서 자신의 연령, 세대를 밝힌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예: 나도 20대인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3 수험생이었는데, 대학생으로서 등)

16) 『우리말샘사전』, “공정하다”, 국립국어원,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524860&viewType=confirm](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524860&viewType=confirm)>, 검색일: 2022.

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와 ‘올바르다(말이나 생각, 행동 따위가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남이 없이 옳고 바르다)’의 의미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여러 가지 요소를 내포한 복합적 개념이라는 점은 고정된 형태의 실체로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Heywood 2004, Craig et al. 2008)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사전의 풀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의 의미로 접근해 본다면, ‘공(公)’은 ‘공변되다’, ‘정(正)’은 ‘바르다’, ‘옳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공변되다’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사롭지 않고 공평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공정’에는 ‘①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 ‘②사사롭지 않음’, ‘③올바름’의 세 가지 의미 자질이<sup>17)</sup>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사용되는 맥락에서도 ‘공정하다’는 ‘공평하다’, ‘올바르다’, ‘정의(롭다)’와 유사하게 쓰이는데 이들의 어휘관계 설정은 사전마다 다르다. 『우리말샘사전』<sup>18)</sup>에서는 비슷한말로 ‘공방하다’, ‘평정하다’를, 반대말로 ‘불공정하다’를 설정하고 있고, 『네이버국어사전』<sup>19)</sup>에서는 ‘밝다’, ‘공평하다’, ‘공명정대하다’, ‘엄정하다’, ‘정당하다’, ‘정의롭다’를 유의어로, ‘불공평하다’를 반의어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1> ‘공정(하다)’의 어휘관계(우리말샘사전)      <그림 2> ‘공정(하다)’의 어휘관계(네이버국어사전)

두 사전의 의미와 어휘관계 설정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두 사전 모두 ‘공정(하다)’에 대한 개념을 ‘공평하고 올바르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정의 자체가 포괄적이고 순환적이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미 파악이 어렵다. 둘째, 어휘관계의 범주 설정은 동일하지 않고 유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어휘들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변별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말샘사전』에 제시된 ‘공방하다’, ‘평정하다’는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의 글, 빅카인즈의 신문자료 등에서 사용되는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한자어이다.<sup>20)</sup> 따라서 2장에서는 현재 ‘공정(하다)’가 어떤 어휘들과 유의관계, 반의관계를 구성하고 있는지, 각각의 의미적 특성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2.1. ‘공정(하다)’의 유의관계

『우리말샘사전』과 『네이버국어사전』에서 제시한 ‘공정(하다)<sup>21)</sup>의 유의어는 ‘공방하다’,

12. 3.(이하 사전의 뜻풀이는 『우리말샘사전』 또는 『네이버국어사전』의 풀이임)

17) 의미자질(semantic feature)은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의미적인 구성 요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충각’을 이루는 의미 특성은 [인간], [남성], [성숙], [미혼] 등으로 볼 수 있다.

18)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사전이다.

19) (주)날말의 ‘유의어/반의어’ 정보<<https://www.natmal.com/>>를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다.

20) 사전에서 ‘공방(公方)하다’는 ‘공평하고 올바르다’로 풀이하고 예시를 제시하지 않았고 ‘평정(平正)하다’는 ‘공평하고 올바르다.’로 풀이하고 “재판관들은 {평정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라는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정하다’의 예문은 뜻풀이에 맞추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평정하다’, ‘밝다’, ‘공평하다’, ‘공명정대하다’, ‘엄정하다’, ‘정당하다’, ‘정의롭다’이다. 그러나 사전에서 ‘①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 ‘②사사롭지 않음’, ‘③올바름’의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어휘들을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어휘들을 찾을 수 있었다.

어휘	의미	어휘	의미
공공(公公)하다	행동이나 일 처리가 사사롭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	염평(廉平)하다	청렴하고 공평하다.
공렴(公廉)하다	공평하고 청렴하며 강직하다.	평정(平正)하다	공평하고 올바르다.
공방(公方)하다	공평하고 올바르다	대공지정(大公至正)하다	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올바르다.
공변되다	행동이나 일 처리가 사사롭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	정당(正當)하다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
공직(公直)하다	공평하고 정직하다	공명정대(公明正大)하다	의지나 언행 따위가 올바르고 당당하다.
공평(公平)하다/ 공평무사(公平無私)하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개인의 감정에 따라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고르다.	정(正)바르다	옳고 바르다.
균형(均衡)	어느 편으로 치우치지 않음	정의(正義)롭다	정의에 벗어남이 없이 올바르다.
단평(端平)하다	올바르고 공평하다.	중정(中正)하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곧고 올바르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하다	아주 공평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다.	진정(眞正)	참되고 올바르다.

이 중에서 포털사이트와 빅카인즈에서 사용 예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실제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어휘는 ‘공공(하다)’, ‘공렴(하다)’<sup>22)</sup>, ‘공방(하다)’, ‘단평(하다)’, ‘염평(하다)’, ‘대공지정(하다)’, ‘정바르다’, ‘중정(하다)’, ‘진정(하다)’, ‘평정(하다)’ 등이다. 이들 어휘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합성어나 구를 형성하지도 못한다. ‘단평(하다)’, ‘평정(하다)’는 ‘공정(하다)’와 ‘①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 ‘②사사롭지 않음’, ‘③올바름’의 의미 자질을 모두 공유하는 어휘인데, 이 두 어휘는 사용 예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①, ②, ③ 의미 자질 모두를 공유하는 유의어<sup>23)</sup>는 없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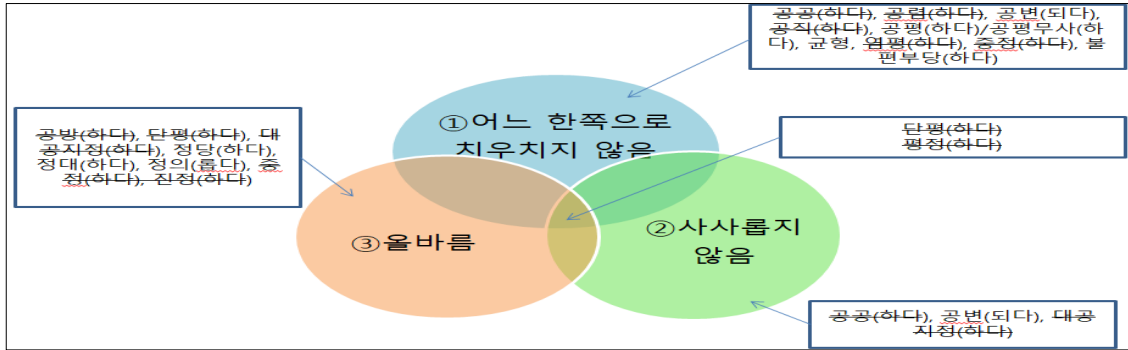
①의 의미 자질, 즉 ①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공유하는 어휘는 ‘공공(하다)’, ‘공변(되다)’, ‘공직(하다)’, ‘공평무사(하다)’, ‘염평(하다)’, ‘중정(하다)’, ‘불편부당(하다)’와 ‘공평’과 같은 명사일 경우 ‘균형’이 있다. ②의 의미 자질, 즉, ‘②사사롭지 않음’을 공유하는 어휘는 ‘공공(하다)’, ‘공변(되다)’, ‘대공지정(하다)’가 있다. ‘③올바름’의 의미 자질을 공유하는

21) ‘공정’은 최근에 생성된 어휘는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공정’이라는 한자어가 빈도 높게 사용되는데 이때는 주로 ‘정치’, ‘도리’ 등과 언어적 관계를 맺고 있다.(擇定公正官吏(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2일 기사 등))

22) ‘공렴’의 경우에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各舉孝子順孫公廉之士以聞(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3일 신사)’와 같이 용례가 발견되지만 본고에서 활용한 자료에서는 사용 예를 찾아볼 수 없다.

23) 이 두 어휘와 ‘공정(하다)’는 동의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용례가 발견되지 않아 모든 맥락에서 의미의 동등성이 확인될 수 없다.

어휘는 ‘공방(하다)’, ‘단평(하다)’, ‘대공지정(하다)’, ‘정당(하다)’, ‘정대(하다)’, ‘정의(롭다)’, ‘중정(하다)’, ‘진정(하다)’가 있다. 이들 어휘는 ‘공정(하다)’와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의미 자질을 공유한다. 아래 그림에서 중간밀줄이 표시된 어휘는 용례가 발견되지 않음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3> ‘공정(하다)’의 유의관계

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의 의미 자질을 공유하면서 쓰임이 확인되는 어휘는 ‘공평(하다)/공평무사(하다)’, ‘불편부당(하다)’와 명사 ‘공평’에 대한 ‘균형’이 있다. 이 중에서 ‘공평(하다)’가 가장 빈도 높에 ‘공정(하다)’와 유의관계를 형성한다.

- (1) ㄱ. 선물을 공정하게/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 ㄴ. 기획은 단 한 번뿐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공평하게 제공된다.

(1)의 예문은 ‘공정(하다)’가 ‘공평(하다)’와 유의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공평(하다)’가 물질적인 것, 또는 ‘분배’의 의미를 지니는 ‘나누다’, ‘제공하다’와 연어관계를 형성할 때, 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의 의미자질을 지니며 ‘공평(하다)’와 유의관계를 형성한다. ‘공평무사(하다)’는 “검찰이 공평무사하고/공정하고 중립적 자세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불편부당(하다)’는 “판사는 어떤 사건을 맡든 불편부당한/공정한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sup>24)</sup>와 같이 ‘공정(하다)’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균형’은 의미 자질을 공유하고 있지만 활용 양상은 공유되지 않는다. ‘공간적인 부분에서 도시의 균형을 잡다’, ‘균형 있게 바라보기’ 등의 맥락에서 ‘공정’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그 반대도 성립하지 않는다. ‘균형’이 의미적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내포하고 있지만 사용 맥락은 완전히 다르므로 ‘공정’의 유의어에서 제외해야 한다.

‘공정하다’에서 ②와 ③의 의미로 쓰였을 때에는 ‘공평하다’로 대체되지 않는다.

- (2) ㄱ. 재판이 공정하게/공평하게 진행되었다.
- ㄴ. 공정한 채용/공평한 채용
- ㄷ. 공정한 동업/공평한 동업

24) ‘공평무사(하다)’는 ①, ②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불편부당(하다)’는 ①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두 어휘는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2)를 교체검증(substitution test)을 통해 ‘공평(하다)’로 대체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오히려 ‘공정한 채용’에서의 ‘공정한’은 ‘투명한’ 채용과 대체되기도 한다. 즉, ‘①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의 의미일 경우 ‘공평(하다)’와 유의관계를 형성하고 ‘②사사롭지 않음’,<sup>25)</sup> ‘③올바름’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공평(하다)’와 유의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제공하다’, ‘나누다’와 같은 서술어와 연어적 구성을 이루지도 않는다. 또한 어휘 의미상 유의어인 ‘공변(되다)’, ‘정대(하다)’, ‘정의(롭다)’와도 교체되지 않는다. ‘justice’가 ‘정의’, ‘공정’ 등으로 번역되고 ‘정의’를 ‘공정’의 유의어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 맥락에서는 이 두 어휘가 대체되지 않는다.

- (3) ㄱ. 공정 가격<sup>26)</sup>/거래<sup>27)</sup>/합병, 공정한 시장질서/소비활동/조세제도
- ㄴ. 공정 여행<sup>28)</sup>/무역<sup>29)</sup>, 보험수가의 공정한 안착을 기대한다.
- ㄷ.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태양광 시장/게임 환경/데이터 세상/에너지

‘③올바름’의 의미 자질을 지니는 (3ㄱ)에서도 ‘공변’, ‘정대’, ‘정의’와 교체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정당(하다)’와 교체되어 ‘정당한 가격/거래/합병’이 가능하다. ‘공정 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공정 여행’은 현지인과 교류하고 그 사회에 도움을 주며 현지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이다. 이와 같은 ‘올바름’에 해당하는 (3ㄴ)은 ‘정당(하다)’와도 교체되지 않는다. ‘이치나 규범, 법률 등 정해진 규율’에서 ‘벗어남’과 상관없이 ‘옳고 바름’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4) 공정한 채용/경쟁/리더/인사평가

또한 (4)와 같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로 채용, 인사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이나 위계 등을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때는 ①, ③의 의미자질뿐만 아니라 ②사사롭지 않음의 의미자질까지 모두 포함한다. 경쟁이나 선정의 과정이 포함되는 명사와 연어 관계를 형성할 경우 ‘투명한 채용’, ‘투명한 인사 평가’로 대체될 수도 있다.

## 2.2. ‘공정(하다)’의 반의관계

‘공정(하다)’의 반의어는 ‘불공정(하다)’가 대표적이다. 기존 사전에서 ‘불공정(하다)’와의 유의관계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25) ‘②사사롭지 않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는 많지 않다. “깨끗하고 공정한 프로야구”에서, 심판의 금전 요구 등을 거론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②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변되다’로 대체되지 않는다.

26)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정부가 통제하고 결정한 상품의 가격.

27) 공정하게 하는 거래. 시장 경제에서 독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28) 현지인과 교류하고 그 사회에 도움을 주며 현지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

29) 상호 간에 혜택이 동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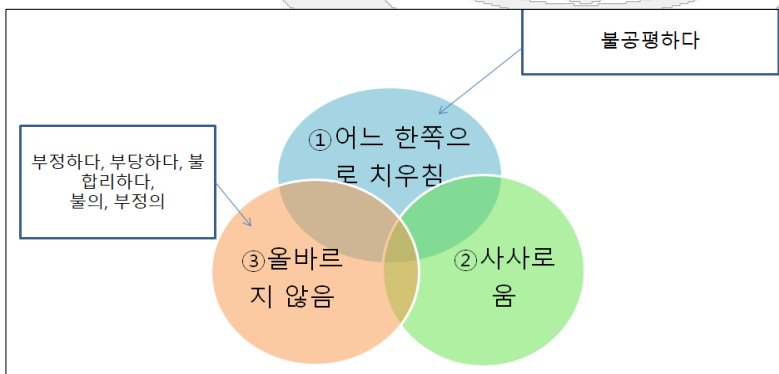


<그림 4> '불공정(하다)'의 어휘관계(우리말샘사전)

<그림 5> '불공정(하다)'의 어휘관계(네이버국어사전)

'공정하지 않다', 즉, '불공정(하다)'는 '공정(하다)'의 세 가지 의미 자질에 반대되는 의미이다. '①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②사사로움', '③올바르지 않음'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말샘사전』과 『네이버국어사전』에서 '공정하다'의 반의어인 '불공정하다'는 '부정하다',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아당하다'와 유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공정(하다)'의 반의관계 어휘로 이들을 설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우리말샘사전』의 '공방하다', '평정하다'는 유의관계에서 설명했듯이 사용 예를 찾을 수 없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네이버국어사전』의 '아당하다'는 '간사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사용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기존 사전의 어휘관계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불합리하다'(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정의'에 대한 반의어인 '부정의', '불의'도 '공정(하다)'와 뜻풀이에서 반의관계를 형성한다.

어휘	의미	어휘	의미
부정(不正)하다	올바르지 않거나 옳지 못하다.	불공평(不公平)하다	한쪽으로 치우쳐 옳지 못하다
부당(不當)하다	이치에 맞지 않다.	불합리(不合理的)하다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불의(不義)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남.	부정의(不正義)	정의가 아닌 것.
불균형(不均衡)	어느 편으로 치우쳐 고르지 아니함.		



<그림 6> '불공정(하다)'의 유의관계

'불공정(하다)'의 '불공정'은 '불+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하다)'의 유의관계에서와 달리 '불공정하다'와 의미자질을 모두 공유하거나 '②사사로움'의 의미자질을 공유하는 어휘

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을 공유하는 어휘는 ‘불공평(하다)’만 존재한다. 이와 달리 ‘③올바르지 않음’의 의미자질을 공유하는 어휘는 ‘부정(하다)’, ‘정당(하다)’, ‘불합리(하다)’, ‘불의’, ‘부정의’ 등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먼저, ‘①한쪽으로 치우쳐 고르지 못하다.’라는 의미의 ‘불공평(하다)’를 살펴보자. 이때의 ‘불공평(하다)’는 ‘불공정(하다)’와 교체할 수 있다.

(5) ㄱ. 이익을 불공정하게/불공평하게 분배했다.

ㄴ. 막대한 화력을 지원받은 중국 LCD와 홀로 맞서 싸워야 하는 한국 LCD의 대결은 그야말로 불공정한/불공평한 게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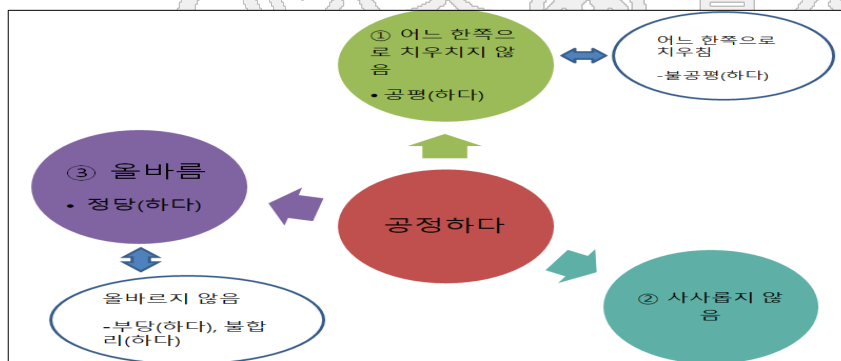
그러나 (6)과 같은 ‘불공정(하다)’는 경제 분야 용어에서는 ‘불공평(하다)’로 대체되지 않는다.

(6) ㄱ. 불공정 행위/하도급/관행/약관/거래

ㄴ. 휴대폰 판매장려금 불공정 여부 조사

이때의 ‘불공정’은 ‘공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③의 의미 자질에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당’과 유의관계를 형성하며 ‘특혜’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바르지 않거나 옳지 못하다.’라는 의미의 ‘부정(하다)’도 ‘공정(하다)’와 반의관계를 형성한다. ‘불합리한 관행/약관’과 같이 ‘불합리하다’와도 교체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공정(하다)’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빅카인즈 등에서 어떤 양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의 ‘공정(하다)’ 어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공정(하다)’의 유의관계, 반의관계

그런데 3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MZ세대의 ‘공정(하다)’의 의미는 <그림 7>에서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먼저, ‘①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 즉 ‘공평’은 양적·절대적인 차원의 공평함과 개인의 능력에 따른 보상을 전제한 분배의 공평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③올바름’의 의미로 사용하는 ‘공정(하다)’는 빈도가 매우 높는데, 그만큼 기존의 어휘 체계보다 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올바름’의 기준을 충족했는가? 절차가 올바른가? 결과에 대한 근거와 평가가 합리적인가? 절차가 투명한가 등으로 세분화되며 이에 따라 ‘올바르지 않음’에 ‘부당하다’, ‘불합리하다/비합리적이다’, ‘불투명하다’ 등이 새로 어휘관계

를 형성한다.

### 3. '공정성' 담론에서 드러나는 MZ세대의 '공정'

경영학이나 언론학 등 MZ세대의 공정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공정'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데 동의한다. MZ세대는 노력 대 보상의 관계를 해치는 모든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시험 기반의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MZ세대의 '공정'은 개인의 차원에 간혀 있는 공정성 논의이므로 사회나 구조적인 공정엔 관심이 없어지거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MZ세대의 공정 담론에서는 '투명한 절차', '합리적 설명', '정당한 보상'이 거론된다(신재용 2021, 정태석 2021, 광영신·류용재 2021, 정동훈·황용석 2012, 임윤서·안윤정 2022).

이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되어 온 '공정' 개념이 MZ 세대에서 담론화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증 방식으로 표현되지를 비평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것이다. 즉, 이들이 생산한 공정 담론 텍스트에서 '공정'에 대한 논증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텍스트에서 '공정'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그 속에 전제하거나 함축하고 있는 공정성의 개념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분석 대상은 블라인드엠프와 유튜브에서 MZ세대들이 직접 생산한 텍스트 중, 대표적인 공정 관련 담론 주제인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 '사무연구직 노조 결성'을 주 대상으로 하였고, 이에 대한 댓글도 포함하였다. 또한 '공정'과 'MZ세대'를 핵심어로 검색한 글들도 참고하였다.

#### 3.1. 능력을 전제한 공평

MZ세대의 공정 담론에서 주제가 무엇이든 논의의 출발점은 '개인의 능력', '능력주의'이며, 이 잣대에 의해 보상되는 것이 '공정'의 출발점으로 전제된다. 개인의 능력과 능력을 만들기 위한 개인의 노력은 공정성의 필요조건이 되므로, '자기 노력'에 의한 '개인의 능력'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 바로 '불공정함'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7)의 텍스트는 (ㄱ)에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하는 글이다. 공정성을 논의할 때 전제되어 있는 것은 (7ㄱ) "조직이 아닌 개인에 대한 능력", (7ㄷ) "착실하게 쌓은 능력"이다. 그리고 '능력에 대한 보상' 역시 공정성의 필요조건이 되는데, (7ㄷ) '능력을 쌓으면 순차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다', (7ㄴ~ㄹ)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 (7) ㄱ. 내가 볼 때는 "조직"이 아닌 개인에 대한 능력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하는게 공정이라고 봄.
- ㄴ. 나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임. 이런 MZ세대들이 총대메에서 조직이념을 바꾸는 동안
- ㄷ. 나는 착실하게 능력 쌓은 상태에서 밑에 애들보다 빨리 큰 다음에 내 능력으로 밑에 애들 키우고 나는 리더로 가는것이지. 아주 좋은 환경임.
- ㄹ. 여기서 도태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의 역 "능력이 없는 사람"이겠지. 무능력 선배, 논
- ㅁ. 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후배를 다룰 수 없어서 권위로 찍어누르려는 선배, 상사는 도태될 것이라 아주 좋음.

이때 MZ세대의 공정 논의의 필요조건인 개인의 능력은 (8ㄱ) "노력하면 만들 수 있는 것", (8ㄴ) "노력으로 최고의 풍풍이 될거야"에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믿음이다.



- (8) ㄱ. 5년쯤 전에 아는 동생이 자기는 여자가 능력을 보는게 좋대. 능력은 노력하면 만들수 있는 거 아  
 나고. 그래서 자기도 기회가 있다는게 참 공평하게 느껴진대. 그 친구는 아이비리그에서 경제학 공  
 다. 부하고 외국계 금융사에 취업했지만 외모나 체격은 별로였거든. (중략) 나도 이젠 그게 좋  
 아. 세상  
 리. 이 무조건 태어난대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 이게 바로 이준석이 말한 기회의 평등이고  
 리. MZ세대를 아우르는 공정의 가치지. 나는 꼬리가 화려하게 태어난 공작새는 아니지만 노력  
 으로 최  
 리. 고의 풍풍이 될거야. 꿈이 있는건 좋은거지. 그래서 비트코인 단타를 친다.마고로비 닭은  
 트로피  
 리. 같은 여자를 만날거야.

그리고 보상에는 (9-ㄴ)“개인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포함된다.

- (9) ㄱ. 공정이란, 기회의 평등, 보상의 평등을 말하지만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과 평등을 추구하  
 나. 는게 아닌 나, 즉 개인의 능력에 따른 적절한 업무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노력  
 리. 에 따른 보상을 확실히 하는걸 말한다고 봐.

### 3.2. 양적 계산이 가능한 공평

‘공평’은 ‘공정’과 유의어 관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1:1의 균등한 분배, 즉 양적 공평성을 의미한다. 이는 3.1.에서 언급한 ‘능력’을 전제로 한 가치 측면에서의 ‘공정’ 개념과는 다소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보인다. MZ세대의 공정 개념에서 ‘양적 공평성’으로서 공정의 의미가 적용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관련 없는 성별이나 나이, 관습 등에서 오는 부당한 처우와 관련된 맥락에서이다. 이러한 상황 맥락에서 ‘공정함’의 가치는 ‘양적 공평성’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며, ‘평등함’과도 의미를 같이하여 사용된다.

- (10) ㄱ. 그리고 2030 세대가 가장예민한 부분 중 하나가 공정성 이라는건 많이들 들어봤을거임  
 나. 근데 공정성이 공평, 평등 부분과 직결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손해안보고 계산하는 경향이 강해진것 같음  
 리. 거기에 남녀평등 문제까지 끼면서 당연히 되던 남자로서의 책임감, 의무감(군대도 포함) 등  
 이 부정되고 전통적 가부장제에서 페미니즘이 처음 퍼졌을때의 과도기에 결혼한 사람들  
 중 외벌이/용돈받아쓰/집안일도 같이 하는 등 전통적인 가부장제에서의 의무는 다하면서  
 경제권은 가정주부인 와이프가 가지는 관계가 조롱의 대상이 됨(풍풍 논란)  
 리. 이게 문제인데 풍풍 논란이 생기면서 손해보지 않고 호구잡히는것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올라감+ 이미 불리한 조건에서 결혼한 형들도 조금씩 불만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  
 아야하지 라는 권리찾기가 시작됨
- (11) ㄱ.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남자가 짜질하게“ 가 만능 공격 키였는데 요새는 공정이 최우선이고

가부장적인 사고가 없어지면서 “남자가 짜질하면 안돼”는 이유가 많이 희석버린것 같음  
ㄴ. “공평하게 하자는게 왜 짜질한거지? 당연한거지” 느낌.

(10)과 (11)은 성별문제에서의 ‘공정’에 대한 담론이다. 공정성은 2030 세대에게는 “가장 예민한 부분”(10ㄱ)으로 인식되어 있다. (10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이 세대에게 “손해 안 보고 계산하는 것(맥락상 남녀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함)”으로 양적인 계산이 가능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일종의 가치 평가나 질적인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계산 가능하며, 균등 분배=공정하다라는 개념은 주로 남녀평등이라는 맥락에서 관습적으로 당연하게 생각되던 남성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이 부정되는 상황이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10ㄷ, 10ㄹ). 1:1의 분배 혹은 교환의 양적 개념의 관점에서 ‘공정’은 “(10ㄹ)손해 보지 않고 호구 잡히지 않는 것”이므로, 이른바 “공정의 권리 찾기(10ㄹ)”가 MZ 세대의 남성들에게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11ㄱ)에서는 관습적인 남성의 역할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곧, “공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남녀평등의 맥락에서 ‘공평함’이라는 산술적인 분배의 원칙은 “당연한 권리찾기”이며, 이것이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녀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 동일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MZ 세대의 ‘공평함’ 또는 ‘공정함’인 것이다.

### 3.3. ‘올바름’에 대한 기준과 공정

‘올바름’은 ‘말이나 생각, 행동 따위가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남이 없이 옳고 바름’을 의미한다. 말이나 행동 따위를 행할 때 절차가 얼마나 투명한가, 즉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담론도 자주 볼 수 있다. (12)의 예문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언급하고(12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무시당하고 물거품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12ㄴ). 이에 대한 논거로는 (12ㄷ)에서 노력 없이 들어온 사람이 온갖 고생을 하고 들어온 나와 같은 대우, 돈을 받는다는 것으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 ‘부당하며 불공정한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이때의 공정은 ‘절차적 불투명성’에 대한 부당함을 의미하므로, 아래 예시에서 직접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MZ 세대에게 공정이란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ㄱ. 흡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기업 준비할 돈도 시간도 없이 5인미만 중소기업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을 전전하며 1년 직장 다니며 학자금대출 다 갚고, 중소기업에선 사람 취급 못받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기업 준비를 위해 퇴사했다.낮에는 독서실 갈 돈도 없어 30분 걸어 구립도서관 가고 저녁에는 알바해서 문제집 구입비, 생활비 벌었다.6개월 동안 주말도 없이 공부해서 결국 이 회사에 붙었다.

ㄴ. 하지만 지금 나의 노력이 무시당하고 물거품이 되고 있다.

ㄷ. 알바천국 보고 입사한 사람들, 기존 직원들 친인척이 별다른 노력없이 들어와 나와 같은 직급, 같은 대우, 같은 월급을 받는다...

ㄹ. 제발 기회가 공정한, 노력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13)은 MZ 세대 노조 간담회 중 일부인데, 여기에서는 제기되는 불공정은 근거 또는 평가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 노동조합에서 사무직의 이해를 대변하

는 협의체에 참여시켜 주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 근거가 (13ㄱ)에서처럼 비합리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되지 않는 비논리적인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는 ‘불공정한 처사’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사무직만 노동조합에서 배제하는 것(13ㄴ) 역시 비합리적인데 이러한 비합리성이 바로 불공정함이라는 것이다.

(13) ㄱ. (사무직 이해 대변을 위해) 근로자 위원 위촉을 요구했으나 과반노동조합은 이미 그런 부분 질 차가 완료됐든지뭐 그런 이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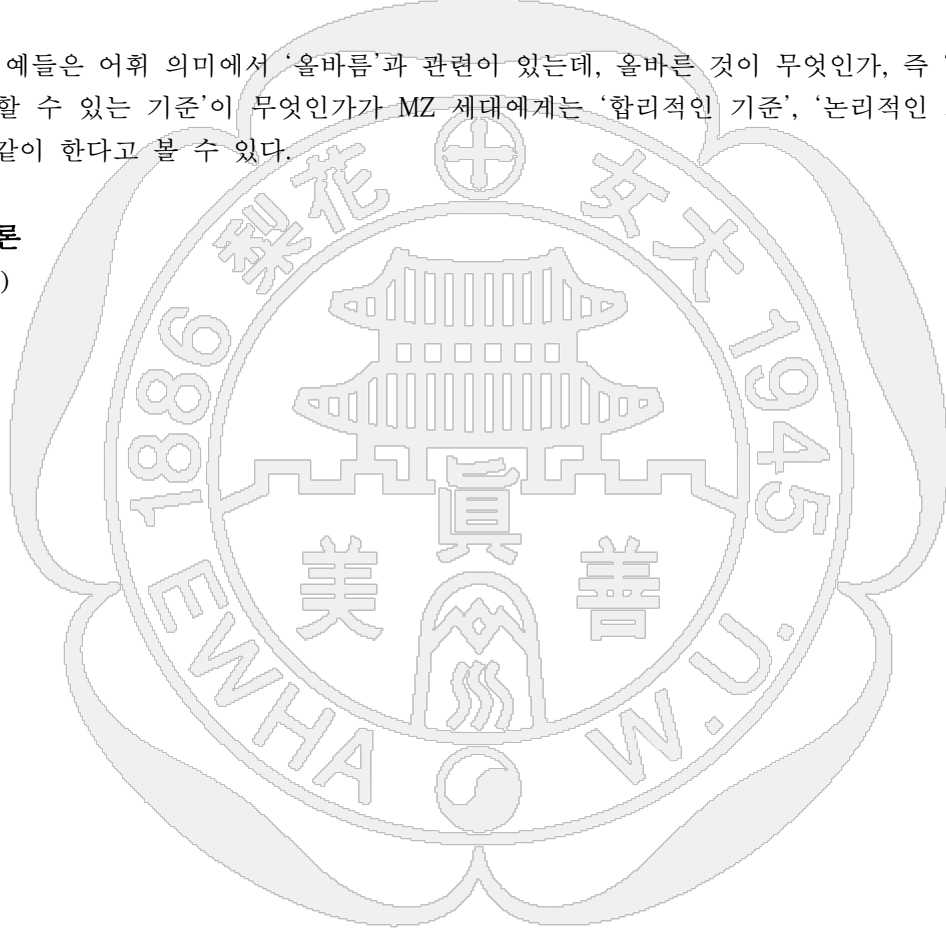
ㄴ. 저희를 이제 뭐 협의회 과정이 협의체에 참여를 좀 안 시켜주고 수십 년간 기능직만 가입돼 있었고 대변해왔던 전력이 있는데

ㄷ. 그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되지 않느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예들은 어휘 의미에서 ‘올바름’과 관련이 있는데,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즉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MZ 세대에게는 ‘합리적인 기준’, ‘논리적인 기준’과 개념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4. 결론

(생략)



## <참고문헌>

- 강명구, 脫事實의 시대에 있어 뉴스공정성의 개념구성에 관한 연구, 言論情報研究 제26집,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89, 85-111.
- 김광해, 어휘소간의 의미 관계에 대한 재검토, 국어학 20, 국어학회, 1990, 28-46.
- 김상태·김성엽·이상엽, 청년세대는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인국공 사건’에 나타난 공정성 인식의 테마 분석-, 한국행정연구 제20권 제4호, 2021,
- 김영임, 방송언어의 공정성 사례 분석 연구: 연예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분석을 중심으로, 2005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소통학회, 2005, 1-23.
- 김우진, 대학생이 꼽은 2017년 대한민국 제1가치는 ‘공정’, 파이낸셜투데이, 2017. 3. 15.<<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424>>
- 김재웅·강태중·박상완, ‘교육적 관점’에서 대입전형 공정성의 의미에 대한 논의, 한국교육 Vol.46 No.1, 한국교육개발원, 2019, 187-213.
- 김진해, 언어 연구의 의미론적 함의, 국어학 68, 국어학회, 2013, 189-223.
- 김현강, 언론의 공정성 개념: 신문 사설에 대한 담론적 접근, 담화와 인지, 제23권 1호, 2016, 57-87.
- 김희용, 공정성 개념 분석과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教育思想研究 Vol.25 No.1,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1, 21-50.
- 남경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의 어휘 의미관계 고찰-계열적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66, 한국어 의미학회, 2019, 1-33.
- 신재용, 공정한 보상, 홍문사, 2021.
- 윤평현, 국어의미론, 역락, 2008.
- 이원표, 북한 신문 사설의 비평적 담화분석: ‘주체사상’ 이념의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제13권 3호, 2006, 113-146.
- 임상규 편저, 공정성에 대한 담론, 한국행정연구원, 2012.
- Lakoff, R.,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s of ninth regional meeting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3.
- Leech, G. N.,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1983.
- Levinson, S. C.,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Searle, J. R.,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 「'공정(하다)'의 어휘관계와 의미 분석 -MZ세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박 나 리(한국교통대학교)

이 연구는 '공정'의 언어학적인 의미를 관련 유의어, 반의어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들과 '공정'이 어떠한 어휘관계를 형성하는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기사 DB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청년실업과 기회의 불균등으로 인해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큰 MZ세대의 담론에서 '공정'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공정'의 가장 역동적이고 활발한 사용양상을 분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회적 화두로서 지금까지 많이 거론되었지만 그 언어학적 의미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던 '공정' 자체의 의미역은 물론, 관련어와의 어휘관계, 그리고 실제 담론에서의 사용양상에 이르기까지 '공정'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층위에서 '공정'을 살펴보는, 품이 정말 많이 드는 작업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두 분 선생님들의 연구에 감사드리며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함을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MZ세대의 어휘 사용양상 분석을 한 것은 분명 이 연구가 가진 매우 특별한 점이라 봅니다. 다만 담론 생산자의 계층을 한정시켜 보았기 때문에 그 외 계층과의 비교 대조도 이루어져야 각 계층의 독특한 담론의 특성과 계층 간 차이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선생님들께서 연구문제 2에서 밝히셨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가'와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MZ세대 담론 양상을 분석한 3장의 내용이 향후 더 보완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째, '공정'과 그 유의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세히 기술하셨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의미자질로 명세화하여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2장의 말미에서 '공정'의 유의어로 보여주신 '공평', '정당', '합리'와 '공정'의 의미자질들이 각각 제시된다면 이들의 차이가 더 명징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MZ세대 담론에서의 '공정'의 사용을 살펴보는 자리에서도 '공정'의 기본적인 의미자질에서 더 확장된 것은 없는지 또는 약화된 것은 없는지를 보다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계층에서의 사용양상과의 비교 대조에서도 이러한 의미자질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미자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3장에서 MZ세대 담론에 나타나는 '공정'의 양상을 ①필요조건으로서의 능력을 전제한 공평, ②양적 분배의 공평(③'올바름'에 대한 기준과 공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석결과대로라면 MZ세대가 보는 '공정'의 의미자질의 하나로서 '공평'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평'이 양적인 개념이므로 더 기본적인기에, 의미자질로서의 적합한 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곧, '공평' 자체의 의미자질들이 '공정'의 의미자질 기술에 사용된다면 선생님들께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지적하신 이들 유의어 간의 포괄적이고 의미 순환적인 개념 정의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요컨대 의미자질을 명세화하여 제시하였을 때에 이러한 풍성한 논의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MZ세대 담론 분석결과로서 '능력을 전제한 공평, 양적 분배의 공평, '올바름'에 대한 기준과 공정'이라 하면서 각각의 해당 예를 보이셨는데, 크게 보면 "'올바름'에 대한 기준과 공정'이 '능력을 전제하고 양적 분배를 확보한 공평'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바름’ 자체의 의미역이 지나치게 넓고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분석결과에 대한 기술 용어로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미 설명하셨던 ‘올바름’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절차의 투명성’, ‘합리성’ 등으로 분석결과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MZ세대에게 직접 ‘공정’의 개념을 질문하고 이들의 답변에서 나온 공통적인 어휘들의 공통적인 의미자질들을 추려서 ‘공정’의 개념을 도출한 후,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같아 첨언합니다.



# 한국어교육에서의 공정성 관련 쟁점과 제언

이 윤 진(안양대학교)

## 차례

1. 들어가며
2. 한국어교육과 공정성
3. 한국어교육에서의 공정성 관련 주요 쟁점
  - 3.1. 교재와 공정성
  - 3.2. 언어 평가와 공정성
  - 3.3. 언어 데이터(인공지능)와 공정성
4. 한국어교육에서의 공정성 관련 시사점과 제언
5. 나가며

## 1. 들어가며

‘공정’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화두였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논제이다. 2020년대에 출간된 단행본<sup>30)</sup>만 보더라도 『공정하다는 착각』(마이클 샌델)을 필두로 ‘공정’을 화두로 삼은 적지 않은 저작물이 독자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공정’은 사회적 이슈로서 대중에게 회자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의 대상으로서도 다루어졌다<sup>31)</sup>. 앞선 성과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질문은 “공정이란 무엇이며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불공정의 현상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 ‘공정’의 연관 키워드로서 ‘정의’, ‘불평등’, ‘능력’, ‘편견’, ‘다양성’ 등의 용어가 자주 함께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글은 ‘한국어교육 분야와 공정성은 관계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긴밀성을 보이는가’, ‘앞으로 한국어교육에서 공정성은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논의될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간 ‘공정성’이라는 키워드가 논문 제목에 반영되었거나<sup>32)</sup> ‘공정성’과 긴밀성을 보이는 연구 성과의 축적은 미미한 편이었으나 2020년대를 전후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도 ‘공정성’에 주목한 논의(김영아, 2005)<sup>33)</sup>가 있었으나 그 후로 관련 후속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았다.

30) 『공정 이후의 세계』(김정희원, 2022), 『그건 부당합니다』(임홍택, 2022), 『공정한 보상(신재용, 2021), 『한국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김범수, 2021), 『불공정사회』(이진우, 2021), 『능력주의와 불평등』(홍세화 외, 2020), 『공정하다는 착각』(마이클 샌델, 2020, 함규진 역) 등이 있다. (최신순)

31) ‘공정성’으로 키워드 검색을 한 결과, 총 9,160건(RISS, 2022년 12월 기준)의 학술지 논문이 검색되었는데 그 가운데 약 20%(1,753건)에 달하는 성과가 2020년 이후에 발표된 것이었다.

3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의 정치적 공정성의 문제”(백승주, 2021),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정치적 공정성 분석(박지순, 2022c)” 등이 대표적이다.

33) 김영아(2005)는 “한국어 수행평가와 공정성”에 대한 논의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사회 전반과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공정’ 또는 ‘공정성’이라는 키워드가 한국어교육 분야와 어떻게 관여되는지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 분야와 그 인접 분야에서 ‘공정성’을 다룬 선행연구(학술지 논문)를 주된 분석 대상<sup>34)</sup>으로 삼아 주요 쟁점을 도출한다. 먼저 2장에서 한국어교육과 공정성의 긴밀성을 살피면서 공정성에 주목해야 하는 배경을 확인한 후 3장에서는 공정성과 관련된 유의미한 쟁점별로 구분하여 논한다. 이를 통해 4장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공정성 관련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종합하고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 2. 한국어교육과 공정성

‘공평하고 올바름’을 의미하는 ‘공정’(公正)은 ‘불공정’, ‘불평등’, ‘부당함’ 등의 반의 개념으로 인식된다. ‘공정’ 또는 ‘공정성’은 특정 학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학제적 연구 대상으로서 사회학, 정치학, 언론정보학, 교육학, 응용언어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조진수 외, 2019:94). 공정성은 다양한 시각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가치 지향적인 성격’(권형돈 외, 2015:21)을 지니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된 단계가 아니므로 ‘공정성’에 대한 개념화와 쟁점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한국어교육의 인접 분야인 국어교육 분야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국어교육에 있어서 ‘공정성’의 개념 정립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여러 관련 논의(조진수 외, 2019; 이관희, 2021)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는데 특히 텍스트의 공정성(최선희·김정은:2022) 판단 기준 또는 평가의 측면<sup>35)</sup>에 주목한 논의가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공정성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고 공정성의 구성 요인을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으로 제안한 조진수 외(2019)의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이어서 이관희(2021:207)에서는 국어교육에서 공정성에 대한 관심은 ‘차별적, 비객관적, 불평등 언어 표현’ 등으로 불리며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교육 내용화 양상들에 있어서는 아직 추상적인 단계에 있기에 향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근 들어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언어 교육과 공정성의 관련성에 주목한 성과들이 점차 눈에 띄기 시작한다. 먼저 백승주(2021:509)에서는 ‘정치성 공정성’을 “편견과 차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려는 것”이자 “편견과 차별의 의미가 내포된 이름들을 거부하고 이런 이름들에 정당한 이름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설명한다. 특히 정치적 공정성과 문법을 관련지어 고찰한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데, 백승주(2021:542)에 따르면 정치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언어적 자원인 문법을 통해 “가상의 인물들에게 어떤 사회적 행위를 하게 할

34) 공정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위한 자료 선정을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다음의 기준과 절차를 따라 문헌 검색과 선정의 과정을 거쳤다. (1)주요 키워드인 ‘한국어\*공정성’(37편), ‘한국어교육\*공정성’(23편)으로 검색되는 논문에서 ‘제목’에 ‘공정성’이 반영된 것을 목록화하였다. (2)‘국어\*공정성’(48편), ‘국어교육\*공정성’(39건)을 키워드로 하여 국어교육 분야의 성과 중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논문이라 판단되는 경우 분석 목록에 포함하였다. (3)‘교육\*공정성’(1,530편)으로 검색하여 본 연구 주제와 긴밀한 성과 중 누락된 것이 없는지 검토하였다. (4)앞서 검토하고 목록화한 자료 가운데 ‘공정성’이라는 키워드가 논문 제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논의 전체에 주요하게 혹은 논의의 일부분으로 ‘공정성’이 다루어진 경우 해당 논문을 분석 목록에 포함하였다. (5)앞선 단계에서 목록화한 논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최종적인 포함 혹은 배제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35) 이와 관련하여 조진수 외(2019:127)에서는 “국어교육 현장에서 텍스트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수업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텍스트가 공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는 추상적인 수준에 그쳐왔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것인지, 그 행위가 어떤 사회상을 구축하고 재생산하는지를 고민해야”하며 “문법을 행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한국어교육과 ‘공정성’의 긴밀성을 부각시킨 박지순(2022a)을 들 수 있다. 한국어교육은 ‘언어를 가르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므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곧 학습자의 세계에 대한 인식 형성에도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보고 ‘공정성’을 핵심어로 한 다수의 성과<sup>36)</sup>를 발표하고 있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한국어 학습은 ‘일방적인 한국 문화로의 동화 과정이 아닌, 세계시민으로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게 되는 세계시민교육의 과정’인 만큼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도 ‘한국어를 매개로 인권 존중, 다문화의 가치, 세계 평화,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같은 세계인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박지순, 2022a:237)는 관점은 한국어 교재(박지순, 2022a)의 측면, 교육 텍스트 자료 구성(박지순, 2022b), 한국어능력시험(박지순, 2022c) 측면에 이르기까지 후속 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특히 한국어교육 자료에 성별, 국가, 계층, 문화 등에 대한 편향이 무의식중에 담기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까지 발표한 논의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있다.

세 번째로, 언어교육정책이 ‘공정성’과 밀접함을 보여주는 성과를 발견할 수 있다. 김양순(2020)에서는 공정성에 기초한 다언어주의를 피력한 논의이다. 평등성은 모두를 동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지만 “공정성은 차이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적극적 의미의 평등성을 의미한다.”(김양순, 2020:324)라고 그 차이를 설명하면서 획일적인 평등성(equality) 기반 정책이 아닌 공정성 기반 정책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sup>37)</sup> 이처럼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융합과 연결을 추구하는 공정성 기반 다언어주의”가 바람직하다는 김양순(2020)의 주장은 국내 이중언어교육정책과도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라 판단된다. 국내 이중언어교육의 대상이 한국어(현지어)와 모어(계승어)임을 고려할 때(이윤진, 2020) 이중언어 학습자에게 고려되어야 할 공정성의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이중언어교육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탓에 관련 성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상으로 관련 성과의 양적 축적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어교육과 공정성의 긴밀성에 대해서 기존 논의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간 한국어교육에서 공정성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시도된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 3. 한국어교육에서의 공정성 관련 주요 쟁점

#### 3.1. 교재와 공정성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교재’ 측면에서 가장 활발하다. 교재의 내용 선정(이수미·박현진, 2021), 교재 개발(이미혜, 2021), 교재의 평가 기준 설정(홍종명 외, 2020)을 비롯하여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법 제시(백승주, 2021), 교재의 삽화와 텍스트(박지순, 2022)에 있어서도 ‘공정성’의 측면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와 관련된 공정성에 대

36)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 영향 요소 분석”,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정치적 공정성 분석”,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의 잠재적 교육과정 분석” 등의 성과가 그 예이다.

37) “평등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다언어주의자들은 단일언어정책이 동화가 아닌 언어소수자들을 미국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종속화시킨다는 평등성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획일적 평등성의 개념을 버리고 공정성의 개념을 따르면 다언어주의가 부상한다.”(김양순, 2020)

한 그간의 주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재 내용 선정과 공정성**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한 한국어 교재의 내용 선정과 단위 구성 원리가 필요한데 (이수미·박현진, 2021) 이때 ‘공정성’도 간과할 수 없는 고려 요인이다. 이수미·박현진 (2021:740)에서는 교재 집필자들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담긴 한국어교육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교재의 균질화 담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어 교재 내용 선정의 원리를 다음의 9가지로 제시하였다.

<표 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재의 내용 선정 원리(이수미·박현진, 2021:748-749)

내용 선정 항목	설명
교육과정 부합의 원리	교육 내용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학습자 역량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적합성의 원리	교육 내용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어 학습자가 배울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양성의 원리	교육 내용은 특정 문화를 중심, 정상, 표준으로 제시하지 않고 소수 문화 집단이 고루 다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확성의 원리	교육 내용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고 표기, 표현 등에서 정확해야 한다.
공정성의 원리	교육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언어 표현,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쳐 있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공정해야 한다.
계열성의 원리	교육 내용은 언어 수준 간, 영역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연계되도록 하되 학습 내용 요소 간 종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효율성의 원리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 요소 즉 주제, 기능, 맥락, 기술 및 전략, 텍스트, 언어지식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실제성의 원리	교육 내용에서 사용한 언어가 자연스럽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현장 적용성의 원리	주제나 기능이 실제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어 현장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위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재 내용 선정의 한 범주로서 ‘공정성의 원리’란 교재의 내용이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언어 표현,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쳐 있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공정해야”(이수미·박현진, 2021:740) 함을 가리킨다.

**(2) 교재 개발과 공정성**

한국어 교재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에서도 ‘공정성’의 측면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어 교재 개발 과정에 있어서 문화 다양성 반영 사례를 논한 이미혜(2021:75)에서는 “단순히 다양한 문화를 포함해야 함을 넘어서 다양성을 가치 있게 다루고 편견과 고정관념이 포함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서 2020년에 발간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이미혜 외 2000a, 2000b, 2000c, 2000d)의 개발 과정에서 ‘문화 다양성 감수’ 결과를 거치면서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시사점을 밝혔다.

〈표 2〉 문화 다양성 검토 기준(이미혜, 2021:82)<sup>38)</sup>

구분	세부 내용
평가 영역	텍스트(내용), 이미지(삽화, 사진 등)
평가 대상	피부색 외모, 민족 인종 종족 국적, 언어, 종교, 지역(도시/농촌), 계층, 세대 연령, 성별, 종교, 장애
평가 기준	다양성, 고정관념과 편견, 집단 간 상호작용

〈표 2〉의 문화 다양성 검토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감수를 거친 결과, 교재 내용의 변화가 있었는데 몇 가지 예시(이미혜, 2021:89)를 가져와 보면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여성의 외모, 태도, 역할, 사회적 업무와 관련된 부분</b> 교재 집필자나 삽화가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담긴 곳이 발견됨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성평등 의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함</li> <li>• <b>한국의 특별한 날, 명절, 의례 등의 내용을 다루는 부분</b> 다양한 개인 차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한국 문화를 지나치게 정형화한다거나 일반화하지 않도록 함</li> </ul>
--

위와 같이 문화 다양성 감수에서 지적받은 실제 사례와 교재 개발 경험을 토대로, 이미혜(2021)에서는 향후 교재 개발에 있어서는 문화 다양성 점검을 위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반복적이고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sup>39)</sup>고 제안하였다.

### (3) 교재 평가와 공정성

교재를 평가할 때도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포함된다.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적합하고 좋은 교재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다(홍종명 외, 2020:81). 교재 사용자뿐만 아니라 교재 개발자에게도 유용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교재 평가 기준이 요구되는데 이를 홍종명 외(2020)에서는 크게 '법령·규범 및 공정성', '외형 및 실용성', '교육과정의 준수', '교육 방법 및 내용'의 네 가지 대범주로 설정하였다. 그 가운데 '법령·규범 및 공정성' 관련 항목에 '공정성 준수'에 대한 하위 범주가 포함된다.

〈표 3〉 법령·규범 및 공정성 관련 세부 평가 항목(홍종명 외, 2020:104)

범주	항목
법령의 준수	1. 교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가? 2.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준수하였는가?
공정성 준수	1.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전파 의도가 있는가?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방, 편견, 조롱, 품위 손상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38) 텍스트로 된 내용을 본고에서 표로 나타냈다.

39) “교재가 출판되기 전에 문화 다양성을 검토하고 수정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원고 집필이 완료되고 편집도 1차적으로 완료된 상황이기에 수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교재 개발 과정에서 제3자의 시선으로 문화 다양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2-3회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교재 개발자가 검토, 수정하는 단계에서 활용하도록 점검 목록을 작성해 두면 좋겠다고 생각된다.”(이미혜, 2021:89)

	3. 특정 지역, 문화, 계층, 인물, 성(남녀의 역할), 상품, 기관, 종교, 집단, 장애, 직업 등에 대한 편견이 있는가?
내용의 정확성	1. 사실, 개념, 용어, 이론 등은 객관적이고 정확한가? 2. 문법 오류, 부적절한 어휘 등 표현상의 오류가 없고 정확한가? 3. 평가 문항의 질문과 답에 오류는 없는가?
표기 및 인용의 정확성	1. 한글, 한자, 로마자, 인명, 지명, 각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계량 단위 등의 표기가 정확한가? 2.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가?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성의 준수’는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잘 준수했는지에 관한 기준”이며 정치적 편견이나 개인적 편견의 포함 여부, 사회적 약자나 특정 계층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하는(홍종명 외, 2020:104-105) 것이다.

#### (4) 교재의 문법 제시와 공정성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을 제시할 때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백승주(2021)에서는 문법 항목 제시를 위한 예문, 대화문 등을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된 공정성 문제를 도출한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sup>40</sup>. 분석 대상이 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2005),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2012)가 최근의 교재가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백승주(2021)의 논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가령,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재(2005)에서 장소의 부사격 조사 ‘-에’가 쓰인 맥락이 여성 이민자 자신이 아니라 오직 가정이나 남편을 위한 행위와 관련된다고 지적했다. ‘장소를 물을 자격을 갖는 사람이 누구로 표상되는가’에 주목하고 대화 속에 반영된 ‘권력 관계’를 살핀 점이 흥미롭다.<sup>41</sup>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문법 제시가 결혼 이주 여성에게 가부장적 관계를 ‘체화’시키고 결혼 이주 여성으로 하여금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주부로서 아비투스<sup>42</sup>를 형성하게 하는 사례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사례로 백승주(2021)는 선어말어미 ‘-겠-’(의지)이 ‘어떤 맥락에서 누구의 의지를 나타낼 때 표현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살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2012)의 경우 선어말어미 ‘-겠-’(의지)이 쓰인 상황이 다른 교재와는 차별화된 양상의 행위 유도 가능성이 문제 제기했다. ‘-겠-’이 이주노동자 자신의 의지 표현을 위해 사용하도록 교수·학습

40) 백승주(2021)에서는 언어 교육과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관심을 두고 특히 한국어 문법 교육과 정치적 공정성(political correctness)의 관계를 비판적 담화분석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교재에 나타나는 정치적 공정성 문제를 다룬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언어 학습 교재가 목표 언어 사회의 모습을 재현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한국어 교재의 경우 한국 사회의 타자인 외국인 학습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자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 또한 투영되어 있다.”(p510)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언어적 자원, 즉 문법을 통해 가상의 인물들에게 어떤 사회적 행위를 하게 할 것인지, 그 행위가 어떤 사회상을 구축하고 재생산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p542) 보고 실제 교재에 담긴 문법의 제시 양상을 분석하였다.

41)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2005:530-531)의 예시를 들었다.

남편 : 여보, 양말은 어디에 있어요?
란 : 서랍 안에 있어요.

42) 아비투스란 “계급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체질화된 성향, 문화적 체질을 가리키는 것”이다.(백승주, 2021)

되지 않고, 고용주의 요구를 자신의 의지인 것처럼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sup>43)</sup>

### (5) 교재 삽화와 텍스트의 공정성

한국어 교재 삽화와 텍스트에 있어서도 공정성의 문제가 관여된다. 박지순(2022a)에서는 읽기 교재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편견 요소에 주목하고 특히 학문 목적 읽기 삽화와 텍스트를 중심으로 젠더, 국가 및 인종, 문화권, 계층,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양상을 <표 4>와 같이 밝힌 바 있다.

<표 4> 삽화와 텍스트에 나타난 젠더, 국가 및 인종, 문화권, 계층,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양상<sup>44)</sup>

분석 항목	분석 결과
교재에 삽화나 텍스트 소재	-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등장 - 텍스트의 저자가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 있음 → 이는 교재에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인 소수자인 여성이 비가시화되는 형태로 성별에 대한 편견이 반영되는 현상
여성과 남성에 대한 묘사와 서술	- 성별에 따른 전형적인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았음 - 여성에 대한 언어적 편견도 관찰됨
국가 및 인종 면	- 삽화와 텍스트 모두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한국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국가, 백인 중심의 인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 밖의 국가와 인종이 비가시화되는 현상
문화권	- 한국 문화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서술 경향 있음 - 서구 유럽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서술 경향이 고정관념화와 언어적 편견의 형태로 드러남
텍스트	- 화이트칼라의 눈높이에 맞추어 서술되는 경향 있음 - 장애인에 대한 비가시화, 언어적 편견 나타남

박지순(2022a, 351-352)에서는 객관적인 것으로 기대되는 학술 텍스트에 사회, 문화적 편견이 담긴 모습을 접할 경우,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부족한 외국인 학습자에게 미칠 영향력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면서 개선이 필요성을 주장했다.<sup>45)</sup> 그리고 삽화 기획, 제재

43)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국립국어원, 2012)의 대화 연습 사례를 들었다.

사장님 :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만 : 없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장님 :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44) 박지순(2022)를 토대로 본고에서 정리한 표이다.

45) 특히 유학생 대상 교재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배경에 대해 박지순(2022:323)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점은 유학생들이 단지 표면적인 교육과정의 요소들에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 학생들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자, 교육 실행자가 언어를 통해 드러내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이러한 것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자들의 인식과 사고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Jackson(1968)에서는 일찍이 이를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 latent curriculum)’이라 하였는데, 잠재적 교육과정은 표면적 교육과정이 의도적, 계획적, 체계적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여 이루어진 데 대하여, 비의도적, 비계획적, 비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의 실행 중에서 우연적,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결과이며(김안중 1987:150, 배지현 2013:5), 학습되는 것이 주로 태도, 가치관, 이데올로기와 같은 심리적, 문화적인 요소로서 무의식적, 반복적으로 내면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영구적이고 학습의 효과가 매우 크다(김미순 외 2018:6).”

선정 단계부터 공정성 또는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에 대한 한국어 교재 개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 3.2. 언어 평가와 공정성

공정성은 언어 평가의 측면과 매우 밀접하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공정성’의 개념을 평가와 연계한 최초의 논의(김영아, 2005) 이후로 관련 후속 연구는 축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0년도 후반에 이르러서야 ‘평가’와 ‘공정성’이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등장하는 선행연구(정지윤 외, 2018; 홍종명 외, 2020; 박지순, 2022c)가 발견된다. 김영아(2005)와 정지윤 외(2018)가 ‘평가 시행’에 대한 논의라면 박지순(2022c)은 ‘평가 도구(TOPIK)’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sup>46)</sup>

먼저 김영아(2005)는 언어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한국어교육 분야의 초기 성과이다. 언어 학습자가 기대하는 평가에 대한 공정성 담보 없이는 학습자는 자신의 언어 능력 향상과는 별개로 언어 학습에 대한 만족감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김영아(2005:100-101)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학습자들은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모니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습 능력이 어떻게 점수화되는가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되기를 기대하는데, 자신의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어 수업처럼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이를 공정하게 평가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김영아(2005:101)에서는 동등한 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를 호주 모나시 대학의 사례로 들면서 “한국어 수업에서 학생 집단을 교포계와 비교포계로 나누어 별도의 성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평가 기준 설정에 있어서 공정성의 중요성과 공정한 수행 평가 지침 마련을 강조했다.<sup>47)</sup>

두 번째로, 쓰기 평가에서 공정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정지윤 외(2018)에서는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평가 방법, 평가자 요인, 학습자 요인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다만 해당 논문의 제목에는 ‘공정성’이 키워드로 포함되었음에도 논의 전반에서 ‘엄정성’이라는 용어로 치환되어 공정성과 엄정성이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지윤 외(2018)에서 주목한 쓰기 평가의 변인은 ‘평가 방법’과 ‘평가자’이다.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분석적 채점과 종합적 채점을, 평가자 요인으로는 원어민 여부와 교수 경력을 변인으로 삼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쓰기 평가의 채점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가자의 엄정성과 채점 방법임을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평가자의 엄정성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 동일한 평가자가 동일한 학습자의 글을 채점 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경우 채점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었다.<sup>48)</sup> 반면 평가자 요인에서는 원어민 여부와 교수 경력 변인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언어 평가와 공정성에 대한 세 번째 논의로, 박지순(2022c)에서는 평가 도구에 내재된 정

46) ‘평가’와 ‘공정성’이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등장하는 또 다른 선행연구로, 한국어 교재의 평가 기준 설정(홍종명 외, 2020)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는 앞서 3.1절의 ‘교재와 공정성’에서 다루었다.

47) 또한 김영아(2005)에서는 인종, 종교, 성 등의 고려가 없는 시험 출제가 어떤 수험자에게는 공평하지 않게 되며 이는 형평의 원칙에서도 벗어남을 지적하면서 ‘공정성’이 최근에 평가 연구에서 ‘진정성(authenticity)’과 함께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48) 종합적 채점 방법이 분석적 채점 방법보다 더 높은 점수로 평가된다는 점을 밝혔다.

치적 공정성 측면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의 듣기, 읽기 지문에 나타난 성별, 국가, 계층, 문화에 대한 편향 여부를 세밀히 분석했다.<sup>49)</sup> 이를 위해 박지순(2022)은 크게 텍스트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로 분석 기준으로 구분하여 삽화, 등장인물, 대화 구조, 화행 양상, 소재의 측면을 분석하였다<sup>50)</sup> 그 결과,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등장인물의 직업과 지위 차, 화행 수행 양상에서 발견되었음을 밝히면서 <표 5>와 같은 경향은 “한국어를 통한 수험자들의 한국 사회와 세상에 대한 인식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적절하게 여겨지는 직업, 남녀의 사회적 역할, 전반적인 남녀의 관계 형성에서 편향을 갖게”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이 같은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내재화되어 행동으로 재생산되면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표 5> 평가 도구(TOPIK)에 내재된 정치적 공정성 분석 기준(박지순, 2022c:245)

분석 대상	결과
성별에 따른 직업과 지위	- 남성 : 더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며 전문적이고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관리직으로 나타남. 수직적 관계에서 남성이 사회적 지위가 여성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남 - 여성 : 상대적으로 서비스직이나 단순 업무, 전문성이 드러나지 않는 일반 회사원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컸음
성별에 따른 화행 양상	-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화행을 남성이 더 많이 수행하여 실질적인 대화의 주도권은 남성에게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국가에 대한 인식	- 한국 외의 국적을 가진 등장인물이 매우 소수임 - 외국인의 국적은 서구 국가의 국적이 더 많았음 - 외국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경우가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음
계층에 대한 인식	- 등장인물의 직업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내재된 계층에 대한 편견이 드러남 - 등장인물의 약 84%가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종사자임 -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비가시화, 고정관념화라는 형태로 은연중에 이루어지고 있음
문화권	- 듣기, 읽기 지문의 소재는 대부분 한국 문화에 대한 소재가 주를 이룸 - 동양 문화보다 서양 문화와 관련된 소재가 더 많이 사용됨으로써 특정 문화권에 대한 편향이 일부 관찰됨

### 3.3. 언어 데이터(인공지능)와 공정성

한국어교육과 언어 데이터 및 인공지능(석주연·이상욱, 2020)과 관련한 논의에서 공정성

49) 박지순(2022:238)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의 잠재적 교육과정과 정치적 공정성에 주목한 까닭은 “한국어능력시험은 학습한 교재나 학습한 기관 등에 상관없이 전 세계 외국인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치르는 시험으로서 평가 결과가 갖는 도구적 목적의 중요성 외에도 시험 문항이 학습자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나아가 세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50) 다음은 평가 도구(TOPIK)에 내재된 정치적 공정성 분석 기준(박지순, 2022c:245)이다.

분석 항목	세부 항목		분석 대상
텍스트 외적 요소	삽화	삽화 등장 비율	성별, 국가, 계층에 대한 인식
	등장인물	등장 비중, 직업, 지위 차, 활동	
	대화 구조	발화 시작 여부	
텍스트 내적 요소	화행 양상	FTA가 큰 화행 발화 여부	문화권에 대한 인식
	소재	문화권별 등장 비율	



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외 학습자 급증과 언어 학습 환경의 변화라는 큰 물결 속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한국어교육(김한샘 외, 2017; 박정아·이향, 2021; 이선중·심지영, 2022; 박진철, 2021; 이승연, 2022)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공지능 튜터’(이선중·심지영, 2022), ‘한국어 교육용 AI 챗봇’(박정아·이향, 2021) 개발 등과 같은 연구의 본격화, 현장 적용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빅데이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어 튜터링 챗봇을 위한 말뭉치 구축’(김한샘 외, 2017)이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외국인의 한국어 발호 음성 데이터 구축’(김수연 외, 2022)과 같은 기존 논의들에서도 교육적 가치를 지닌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반 한국어교육을 위한 언어 데이터 구축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바로 ‘공정성’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석주연·이상욱(2020:411)에서는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의사소통에 인공지능의 참여가 있을 때 제기되는 문제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한국인 화자가 애초 다문화 배경 화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가지는 한국인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데이터의 ‘편향성’과 ‘양적 충분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데이터가 편향되거나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의사소통 국면을 다루는 인공지능은 편향된 결과 값과 공정하지 않은 결과 값을 산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언어 데이터의 양적 충분성 확보 없이는 해당 데이터로부터 산출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구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의 내용에 편향됨이 담겨 있다면 인공지능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차별 배제와 공정성 확보를 기대하고 투입된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내어 차별과 불공정성을 증폭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석주연·이상욱, 2020:420)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이에 한국어교육에서 언어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산출물에 차별과 편견이 포함될 가능성(석주연·이상욱, 2020:397-398)에 대해 진지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언어 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논의에서, 공정성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한국어 능력 평가 영역의 자동채점 문제이다. 인간의 채점은 ‘채점자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그리 쉽지 않지만 인공지능의 자동채점은 일관되고 표준화된 점수 제공이 가능하다(이승연, 2022:32)<sup>51)</sup>는 점에서 공정성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AI 자동채점 또는 평가 프로그램이 본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구의 정확성’,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한국어능력 자동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해 ‘비모어 화자의 한국어 사용’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한(이승연, 2022:30) 것이다.

51) 물론 이외에도 자동평가가 안정화된다면 채점의 신속성, 평가 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4. 한국어교육에서의 공정성 관련 시사점과 제언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공정성에 대한 양적 성과는 2000년대를 전후로 '교재'를 주된 축으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고 '평가', '언어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점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을 통해 확인한 한국어교육에서 공정성 관련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재 개발·사용·교재 평가에서의 공정성 인식과 점검

공정성은 교재에 반영할 내용 선정에서부터 목표 문법의 제시 및 구현 양상, 교재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 사용할 교재의 선별, 기출간된 교재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교재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여된다. 이에 교재 구성, 개발, 선택, 사용, 평가 등에 있어서 '공정성'의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성의 원리'를 적용하며 '공정성 점검 지침'에도 어긋남이 없는지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재 개발이나 교재 평가에 있어서 표면적인 교육과정뿐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까지 세심히 살펴야 하는 까닭은, 교재 속에 담긴 한국인, 한국문화, 한국 사회의 모습을 학습자가 현실의 축소판으로 인지하고 내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재의 단위별 주제 및 내용, 대화문의 상황과 맥락, 목표 문법 제시의 다양한 양상, 대화자의 관계 설정, 삽화를 통해 나타나는 인물, 담화 맥락 및 배경 등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교재를 둘러싼 모든 요인들이 공정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위한 자료의 차원에서만 교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교재가 한국어 학습자의 세계관 구축 과정에 끼칠 직간접적인 영향력까지 고려하고 한국어 교재가 양적/질적 측면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함에 없는지를 성찰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 교육이라는 취지로 한국문화를 지나치게 정형화하거나 자국 중심주의 태도를 반영하지 않았는지, 교재 안에서 특정 국가, 인종, 성별, 계층, 종교, 문화권, 연령 등에 불균형이 치우치게 나타나지 않았는지, 무의식중에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언어 표현까지 학습자에게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았는지, 다수 집단에 집중된 나머지 소수 집단이나 특정 집단의 비가시화가 생기지 않았는지 끊임없는 점검과 반성이 필요하다.

##### (2) 언어 평가의 방법, 언어 평가 자료·도구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공정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다. 공정성 여부에 대한 가치 판단은 결국 '평가'를 수반하며 언어 평가와 공정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공정성은 다시 '언어 평가의 방법', '언어 평가 자료 또는 도구'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언어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 공정하다는 것은 학습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언어 수행 능력을 가늠하는 평가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평가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한 언어 평가'란 동일한 수험자의 언어 능력을 어떤 채점자가 어떤 평가 방식으로 해도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채점의 '엄정성'으로도 치환되어 불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언어 평가 자료 또는 도구'의 공정성은 언어 평가에서 활용되는 텍스트를 포함한 자료 일체와 관련된다. 이는 앞서 살핀 '교재와 공정성'(3.1)의 내용과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언어 평가 자료 또는 도구에 있어서는 세부 항목별 '공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

수적이다. 무엇보다도 공신력을 가진 언어 능력 평가라면 평가 자료를 이루는 텍스트 내적/외적 요소에서 편향됨이 없어야 한다. 이는 이해 영역뿐 아니라 표현 영역의 평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각자료, 청각자료를 망라하여 적용될 부분이다.

### (3) 언어 데이터(인공지능), AI자동 채점의 공정성 구현

한국어교육에서 모어 화자의 언어 자료,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자료는 말뭉치, 빅데이터로 구축되어 교육,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이제는 문어/구어에서 나타나는 실제 언어 사용의 양상을 포착하고 교육에 적용하는 단계를 넘어, 방대한 언어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에 훈련 데이터로까지 활용되는 시대가 되었다. 챗봇과 대화를 나누고 채팅을 하며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대도 머지않았다.

그런데 실제 언어 데이터로 훈련된 AI가 산출하는 언어 속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리고 일반적인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언어 양상이 생생하게 담기는 것을 이상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불공정한 모습들까지 여실히 드러내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기계학습에 쓰인 실제 데이터의 내용에 차별과 편견이 내재됨으로써 편향된 태도와 관점이 한국어 학습자에게 내재화되거나 투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어 능력 평가에 있어서도 AI자동 채점이 안착된다면 채점자의 내적 기준이나 채점자 간 평가 기준 차이에 흔들리는 일 없이 공정한 언어 평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한국어교육에서 공정성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향후 후속 논의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제언해보고자 한다.

#### 첫째, 한국어교육에서 '공정성'의 구성요인과 층위는 무엇인가?

한국어교육에서 공정성을 논하는 맥락이나 영역을 세밀히 살핌으로써 공정성을 이루는 요인<sup>52)</sup>이나 층위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 자료나 텍스트에 있어서 차별, 배제, 비객관성, 불평등, 편견, 편향 등의 반의 개념으로 '공정성'이 인식된다는 점, 언어 평가 방식이나 평가 실행에 있어서 엄정성, 신뢰성(일관성) 등과 직결된 개념으로 '공정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후속 논의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어교육에서의 공정성의 구성요인과 층위를 심도 있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겠다.

#### 둘째,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가?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어교육의 다양한 맥락에서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공정성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공정성 확보에 대한 실패나 불충분함을 비판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결국 공정성의 문제가 상대적인 관점 또는 정도성의 측면에서 해석된다는 시선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어교육에서 완전무결한 공정성 확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불공정 심화를 경계하는 태도와 실천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52) 조진수 외(2019)에서는 국어교육 분야에서 공정성을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으로 보았다.

### 셋째, 공정성 확보와 실제성 구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상적인 공정성 구현을 지향하더라도 실제 현실은 크고 작은 불공정의 모습이나 사례가 곳곳에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어교육 목적이라는 미명 아래 실제 사회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한 공불정의 문제와 모습까지도 한국어교육 자료에서 완전히 비가시화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작위적이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즉 ‘현실 세계의 축소판’이 아닌 ‘이상적인 세계의 압축판’을 교육적으로 구현한 한국어교육의 모습이 과연 ‘실제성’의 측면에서도 가치 높게 판단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성 확보와 실제성 구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넷째,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언제나 공정성을 담보하는가?

다양성과 공정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어교육 자료에 문화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를테면 문화권, 국적, 인종, 성별, 계층 등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생활이 한국어교육 자료에 오롯이 담기는 작업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문화 다양성을 지향하고 추구할수록 그 안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된 숨은 사례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있을수록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정성 담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성찰해 보는 작업도 유의미할 것이다.

## 5. 나가며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사회 전반과 학계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가 한국어교육 분야와 어떻게 관여되는가를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확인하고 후속 논의에서 다루어야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2020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 특히 한국어 교재에 대한 성과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어 평가, 언어 데이터(인공지능)와 관련된 국면에서도 공정성이 광범위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글을 통해 한국어교육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편향됨 없이 개발, 사용,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언어 평가 시행과 평가 도구에 있어서도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언어 데이터(인공지능)가 한국어교육에 다각도로 활용될 때도 공정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공정성 관련 논의에서 앞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와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공정성의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공정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절대적일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하며, 실제성과 문화 다양성 고려라는 측면과 공정성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도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한국어교육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조망한 최초의 논의이기 때문에 글에 미처 포함하지 못한 쟁점이나 정치한 해석에까지 이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 권형돈·하주용·배진아(2015),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방통융합정책연구 K C C -2 015- 35) , 방송통신위원회.
- 김수연·민효민·최혜원(2022).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외국인의 한국어 발화 음성 데이터 구축 방안. 언어과학연구, 100, 63-88.
- 김양순(2020), 다언어주의와 언어교육정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6.1, 321-326.
- 김영아(2005), 한국어 수행평가와 공정성 -호주 모나시 대학의 사례 연구-.한국어 교육 16(3), 91-108.
- 김정원(2021), 교육의 다양성과 공정성 간 갈등 : 역사사회적 토대 이해와 해결을 위한 프레임 전환.“ 교육사회학연구 31(3), 1-34.
- 김한샘·한지윤·최경호·정해영·곽용진(2017), 한국어 튜터링 챗봇을 위한 말뭉치 구축의 필요성과 방법론, 「국제어문」75, 국제어문학회, 61-81쪽.
- 박정아·이향(2021), 한국어 교육용 AI 챗봇 개발을 위한 챗봇 빌더 활용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63,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51-91쪽.
- 석주연, 이상욱(2020),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의사소통과 인공지능 -차별 배제와 공정 지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0.59, 393-426.
- 이관희(2021), 언어의 공정성과 문법 교육 - 공정성에 대한 모어 화자의 인식.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1.1., 207-220.
- 이미혜 외(2020a),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 ㈜도서출판 하우.
- 이미혜 외(2020b),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 ㈜도서출판 하우.
- 이미혜 외(2020c),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 ㈜도서출판 하우.
- 이미혜 외(2020d),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도서출판 하우.
- 이수미·박현진(202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한 한국어 교재의 내용 선정 및 단원 구성 원리 연구, 우리어문연구 71, 733-756.
- 이선중·심지영(2022),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고찰-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의 말하기·쓰기 과제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56, 47-70.
- 이윤진(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현황과 쟁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9, 279-305.
- 정지윤·강현화·강상진(2018), 한국어 쓰기 평가 점수의 공정성 연구 - 평가 방법, 평가자 요인, 학습자 요인의 영향에 대한 교차분류 다층분석, 문법 교육 33, 135-163.
- 조진수·박재현·이관희·김지연(2019), '공정성'의 국어교육적 개념화 방향 탐색, 국어교육연구 -.71, 93-134.
- 박지순(2022a),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의 잠재적 교육과정 분석 - 읽기 교재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편견을 중심으로 -. 우리말연구 68. 321-356.
- 박지순(2022b),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 영향 요소 분석, 우리말연구, 70, 127-159.
- 박지순(2022c),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정치적 공정성 분석 - 듣기, 읽기 지문에 나타난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人文科學, 85, 235-263.
- 백승주(2021),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의 정치적 공정성의 문제 - 여성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

자 교재의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語文論集 86, 507-546.  
최선희·김정은(2022),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 기준에 관한 문법 교육적 탐색,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중심으로, 國語教育學研究, 57(3), 235-271.  
홍중명·이준호·안정호(2020), 한국어 교재의 평가 기준 설정 연구-국내외 사례 연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51, 79-117.





## 「한국어교육에서의 공정성 관련 쟁점과 제언」에 대한 토론문

정 미 지(아주대학교)

이 연구는 본격적인 한국어교육의 역사가 반세기를 넘어서고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안정기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는 한국어교육에서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쟁점들에 대해 면밀하고 다양하게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에서 한국어교육의 공정성은 크게 교재, 평가(시험), 언어데이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그 내부를 살펴보면 모두 한국어라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국 언어라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언중들의 인식 혹은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국어교육에서 공정성의 개념은 먼저 학습자를 바라보는 모국어화자, 혹은 교육자, 교재 개발자들이 과거의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으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습자에 대한 공정성은 다음의 용어들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즉, 획일적이 아닌 다양성,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 차별적이 아닌 평등적인,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닌 능동적인 학습자로의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백승주(2021)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아래와 같은 것일 겁니다.

‘한국어 교재의 경우 한국 사회의 타자인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타자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언어적 차원, 즉 교재에 나타나는 문법 혹은 그 문법이 담긴 문장을 통해 가상의 인물들에게 어떤 사회적 행위를 하게 할 것인지 그 행위가 어떤 사회상을 구축하고 재생산하는지는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방향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선행연구들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주요 교재들의 개발 목적, 평가의 궁극적인 쓰임, 학습자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이 과도기적인 측면등이 간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선행연구에서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KIIP(사회 통합과정), 이주 노동자,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 등인데요. 이러한 교재로 학습하는 학습자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한국 국적이나 한국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것인데, 이러한 학습자를 위한 교재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법무부에서 KIIP 교재의 개발 목적을 ‘한국 사회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명시한 것, 그리고 다른 여러 국가의 이민 정책에서도 이러한 학습자 집단의 교육 방향을 유사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OPIK 시험의 경우도 응시자가 가장 많은 초급 수준인 TOPIK 1의 응시 목적이 주로 우리 나라 입국 시 취업 비자, 결혼(배우자) 비자 발급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들 교재는 학습자의 빠른 한국 사회 적응,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개발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외국어 교재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상적인 목적을 떠나,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학습자가 발화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과 문장에 대한 노출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분석 대상 교재들은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생각



해 보면 고용자 측보다는 피고용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도 교재나 평가 문항에 이러한 상황이나 문장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의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외국인이 고용자가 되는 사례가 늘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의 불공정해 보이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연구를 보면 결국 어학연수생, 유학생, 이주민 등과 같은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한국인의 관점, 한국어 교재, TOPIK시험 등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평가하도록 하는 연구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발표자께서 연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국어교육계에서 가장 불공정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어교육이 발전하는 동안 거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한국어교원의 처우와 관련한 불공정성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진 게 있으시다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말로 그 동안 아주 비가시화되어 왔는데요. 이 문제를 공정성이라는 양지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어떠한 개선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에 나타난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과 호랑이의 관계

김 유 미(연세대학교)

## 차례

1. 서론
2.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현재
  - 2.1. 미국에서의 아시아성
  - 2.2. 투명인간 초능력
  - 2.3. 호랑이
3. 한국계 미국 청소년에 대한 진단과 과제
  - 3.1. 가짜 성숙의 경계
  - 3.2. 가족중심주의의 빛과 그늘
  - 3.3. 한국문화의 선택적 수용과 변형
  - 3.4. 공격성의 긍정
4. 결론

## 1. 서론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원제:When You Trap a Tiger)<sup>53)</sup>은 한국계 미국 작가 태 켈러(Keller Tae)의 장편소설로서 2021년 미국 아동·청소년 문학상인 뉴베리상(Newbery Award)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민 1세대 할머니가 작가의 어린 시절에 들려준 이야기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한국계 미국인 10대 릴리(Lily)를 주인공으로 가족과 사회 속에서 겪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 주인공이 자아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다루는 점에서 청소년 문학이다.<sup>54)</sup> 동시에 주인공이 부딪치는 문제의 성질을 보면 이 작품이 이산(離散, Diaspora)문학<sup>55)</sup>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주인공 릴리가 겪는 문제는 한국인이라는 민족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한국계 이민자 사회는 양적, 질적 성장했지만,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자녀들과의 갈등은 이민자 가정의 중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sup>56)</sup> 릴리는 병이 악화된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워싱턴 주(州)로 이사하면서 이

53) Keller Tae, When You Trap a Tiger, New York: Random House, 2020. 태 켈러, 강나은 옮김,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 돌베개, 2021. 본고는 원서와 번역서를 비교하고 번역서를 중심으로 인용하되, 번역 내용 중 필자가 수정한 부분은 [ ]으로 표시했다.

54) 오세란, 「단한 담론에서 광장의 이야기로」, 『문학사상』 573, 2020, 44쪽.

55) 이산 문학(디아스포라 문학)은 고국을 떠난 이들과 그 후손이 쓴 문학 작품을 가리킨다. “‘민족 이산’을 뜻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단어는 로마제국에 의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문화적 종교적 유대를 잃지 않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지금 디아스포라는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됐다.” 김성곤,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향하는 이산문학-한국 이산문학의 현재와 미래」, 『문학사상』 559, 2019. 51쪽.

56) 김성주·김범준, 「새로운 정체성 ‘Korean-American’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민 1세대인 한국인 할머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자신의 ‘아시아적’ 혈통과 성격을 어떻게 가치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고민한다. 한국계 미국 작가가 이민 세대를 주인공으로 삼아 민족적 배경을 개인 정체성의 근간<sup>57)</sup>으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넓은 의미의 이산문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은 주인공이 호랑이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줄무늬가 있는 당당한 몸집에 강력한 힘을 가진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는 여러 나라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이며 한국 설화에도 자주 등장한다. 근대 시기 한국과 관련된 혹은 한국이 닮기를 기대하는 동물로서 국가적 인지도를 가지기 시작했고,<sup>58)</sup> 1988년 서울올림픽의 호랑이 마스코트는 한국의 대표 동물로서 호랑이의 입지를 본격적으로 세운 계기가 되었다.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높아진 위상에 발맞추어 국외에서 한국과 관련된 출판물이 증가했는데,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호랑이가 자주 등장한다.<sup>59)</sup> 단순한 삽화나 표지 이미지부터 시작하여 서사에서 한국성(韓國性)과 관련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산문학에서 호랑이가 한국을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 호랑이와 이민자가 맺는 관계는 한국계 미국 작가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들이 물려받은 한국성을 자기 안에 내재화하는 양상을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본고는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의 서사 초점이 주인공과 호랑이의 교류라는 점에 주목해, 한국계 미국 청소년의 한국 인식과 수용 양상을 탐색한다.

관련한 위중선, 우정신, 김영선의 선행연구가 있다.<sup>60)</sup> 위중선의 연구는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이 미국인들에게 낯선 한국 설화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활용하여 현실에서 마주치기 어려운 호랑이를 들여왔고 이를 통해 주인공의 현실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마술적 사실주의로 이해하고 마술적 사실주의가 아동문학에서 가지는 문학적 즐거움과 교육적 가치를 설명했다.<sup>61)</sup> 본고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설화가 현실을 비추는 환상성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나아가 할머니와 릴리로 대변되는 달라진 이민 세대에 따라 설화의 등장인물과 내용이 달라지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설화의 변화는 초기 이민 세대와 후(後)세대가 처한 현실이 다르며 그들의 삶에서 한국성을 수용하는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작가의 인식을 반영했다고 본다.

우정신의 연구는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작품의 공간적 배경에 주목한다. 새로운 도시에서 릴리가 자주 찾는 공간은 도서관이다. 우정신의 연구는 도서관을 릴리의 분열된 무의식과 의식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인격체로 재탄생하는 과도공간으로 이해한다.<sup>62)</sup> 또한

33(1), 2011, 199쪽.

57) 사회적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8개의 요소(Big 8)는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성별, 민족성, 인종, 능력, 나이이다. 장동석 엮음, 『뉴 필로소퍼 코리아』(New Philosopher Korea) 17, 바다출판사, 2022, 33쪽.

58) 최남선은 조선을 호랑이 이야기가 많은 나라라는 의미에서 ‘호담국’이라 부르기도 했다.

59) 한국의 전래동화로 구성된 한국어 교재인 『Tigers, Tigers, Fairies, and Gods : Enchanting Folktales from Korea』와 『Korean Stories for Language Learners』는 표지와 본문에서 호랑이가 등장한다. 이산문학인 『작은 땅의 야수들』에는 일본 사람이 한국 호랑이에게 위협을 당하며,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처럼 주인공과 밀접하게 교류하기도 한다.

60)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에 집중한 선행연구이며, 이산문학이나 청소년 문학에 관련한 연구는 논의 중에 인용했다.

61) 위중선,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에 나타난 마술적 사실주의 활용과 의의」,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0,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2, 73-103쪽.

62) 우정신, 「소설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에 나타난 옛이야기의 힘과 리미널리티 공간」, 『세계문학비교연구』 78, 2022, 24쪽.

연구는 한국 설화에 많이 나온 동물이 호랑이이기에 호랑이를 한국 민족의 집단 무의식으로 해석했다.<sup>63)</sup> 우정인의 연구는 작품의 공간과 동물의 의미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하여 도서관과 호랑이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한편 배경과 소재의 상징성에 집중하여 주인공이 겪는 문화 정체성의 혼란, 즉 청소년문학으로서 작가가 독자에게 제시하는 방향성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했다. 또한 이민 세대간 호랑이의 역할이 달라지기에 호랑이를 단순히 한국의 상징으로 보기보다는 이민 세대별로 의미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김영선의 연구<sup>64)</sup>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호랑이를 덮에 가두면』의 사건을 일대일로 대응시켜 작품이 설화와 가지는 구조적 유사성을 밝히고 민담의 원형 틀이 동화 창작에 활용되었음을 밝혔다. 김영선의 연구는 설화와 창작동화의 유사점에 집중한 반면, 이산문학으로서 한국계 이민자의 재현양상을 드러내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청소년 문학이자 이산문학으로서 『호랑이를 덮에 가두면』을 읽으며 작품이 한국계 미국 청소년의 현재를 그려내는 방식과 건전한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해 제시한 과제를 살핀다.

## 2.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현재

미국에 사는 한국계 청소년 릴리는 아시아성을 가졌다고 자신과 주변에서 일컬으며, 투명 인간으로 변하는 초능력의 소유자이면서, 상상의 호랑이와 교류한다. 본고는 아시아성, 투명 인간 초능력, 호랑이라는 세 가지 설정이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과거와 현재를 설명하는 상징이라고 보아 각 설정의 의미를 탐구한다.

### 2.1. 미국에서의 아시아성

작품은 미국에서 말하는 아시아성(性)이란, 아시아 사람의 일반적 특성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 주류 사회에 무해(無害)하며 미국 사람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고 그들에게 썩워지는 선택적 특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동아시아 이민자에 대한 미국의 과거 정책을 간략히 정리하겠다. 1870년대 미국에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일자리가 부족해지자 중국인 이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짙어졌다. 미국 정부는 1882년 중국인 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을 통해 중국인 이민을 금지하고 1907년 일본인 이민도 사실상 중단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원래 미국 사람'이 차지해야 할 노동 시장을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미국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다.<sup>65)</sup> 아시아 이민자에 대한 공공연한 거부는 1965년 이민법이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폐지 이후에도 아시아 이민자는 고국의 사람과 모여 살거나 그들의 고유문화를 실천할 때, 진정한 미국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노출되기 쉬웠다.

아시아계 미국 이민자 중에서 한국인은 “흑인들처럼 범죄를 저지르거나 빈곤하지 않은, 근면하고 우등한 인종”으로 불린다.<sup>66)</sup> 언뜻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평가 밑에는 한국계 이민자를 대하는 미국 사회의 공정하다고 보기 힘든 시선이 감지된다. 한국인 이민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신경 쓰며 규칙과 기대에 순응하며 사소한 위반도

63) 위의 글, 13쪽.

64) 김영선, 「디아스포라 소설에서 구조와 원형의 의미-태 켈러의 장편소설 『호랑이를 덮에 가두면』을 중심으로」, 『리더리시연구』 12(6), 2021, 655-679쪽.

65) 김태근, 「미국 이민정책의 역사와 전망」, 『국제사회보장리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95쪽.

66) 캐시 박 홍(Cathy Park Hong), 노시내 옮김, 『마이너 필링스』(Minor Feelings), 마티, 2021.

저지르지 않는다.<sup>67)</sup> 근면함과 순응이라는 모범적 특성은 한국인을 주류 사회에 무해한 존재로 만드는 동시에 주류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경험을 작품화한 캐시 박 흥은 미국 정부가 이민 금지 정책을 없앤 뒤에도 교육수준이 높고 고도로 훈련받은 아시아인만 허용한 다음 그들의 성공을 강조했다고 지적한다.<sup>68)</sup> 아시아인은 “영리하고 성공적인 집단이지만 동시에 로봇 같고 무감정하고 쉽게 교체될 수 있는 존재, 기본적으로 여전히 인간 같지 않은 존재”<sup>69)</sup>로 여겨진 것이다. 아시아인은 ‘인간답게’ 감정에 솔직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비-이민계 주류 ‘미국인’과는 다르다. “일은 잘 하지만 리더가 되기에는 적절한 얼굴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대량으로 숫자를 처리하며 기업의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기름이나 치는 중간관리자가 된다”<sup>70)</sup>는 지적인 관련된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sup>71)</sup> 더불어 동아시아 여성 이민자에게는 근면함이라는 고정관념과 함께 남성에게 순종하며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는 고정관념도 같이 적용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이민자를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이해하게 만들며, 여기서 벗어나는 개인은 ‘비-아시아’ 적으로, 특히 그들의 언행이 주류 사회의 이익을 침해할 때 쉽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

미국은 백인의 특권이 존재하는 사회이기에 육체 및 인종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국계 이민자들에게 있어 본질적인 동일화는 불가능하다.<sup>72)</sup> 윤준민의 연구는 이민자의 태도를 동화(同化:assimilation)와 분화(分化:segregation)로 설명한다.<sup>73)</sup> 동화(同化)는 이민자가 본래의 정체성을 버리고 현지인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주류 사회에 편입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이며 분화(分化)는 본래의 정체성에 집착해 그들이 사는 현지의 문화를 배척하고 타자의 전통으로 회귀하거나 현지의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태도이다.<sup>74)</sup> 이민자는 동화와 분화의 두 가지 태도 사이에서 오가는 경계인이며 이산문학은 종종 이러한 경계인으로서의 이민자를 묘사한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은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형성의 과제와 더불어 자신 안의 아시아성에 대한 문화 정체성의 혼란을 함께 겪는다.

『호랑이를 닮은 가두면』에서 릴리와 릴리의 언니 샘(Sam)은 이러한 이중의 혼란을 겪는 아시아계 청소년 인물이다. 샘은 자기에게 부여된 아시아적 특징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거부한다. 샘은 검은 머리를 희게 탈색하고, 검은 립스틱을 바르며, 거리낄 것 없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며 동생 릴리를 전형적인 아시아 여자아이라고 QAG(Quiet Asian Girl, 번역서에는 ‘조아여’(조용한 아시아 여자애)로 번역)라고 부르며 비웃는다. 작품에서 아시아성은 침묵, 인내, 순종의 유의어이다.

이사하는 도중 샘은 갑작스러운 이사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늘어놓는다. 할 말이 있어

67) 캐시 박 흥은 한국 이민자가 불법 유턴도 하지 않는다고 예를 든다. 임지영, 「한국계 작가의 작품이 해외에서 읽힌다는 것」, 『시사인』(2022.01.2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13>.

68) 캐시 박 흥, 앞의 책, 서문.

69) 임지영, 앞의 글.

70) 임지영, 앞의 글.

71) “미국 출생 교포가 백인보다 훨씬 높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직 진출은 백인보다 약간만 높는데, 이것은 경영적이 사람을 다스리는 일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백인보다 아직도 불리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구선희·김점숙 편, 『북미주 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07, [https://db.history.go.kr/item/bookViewer.do?levelId=oksr\\_004\\_0030](https://db.history.go.kr/item/bookViewer.do?levelId=oksr_004_0030).

72) 김성주·김범준, 앞의 글, 199쪽.

73) 윤준민, 「해외 한인소설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의 발현양상: 『영원한 이방인』과 『차이나맨』의 대비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0, 2020, 343쪽.

74) 위의 글, 343쪽.

보이는 릴리에게 너도 말하라고 부추기지만 릴리가 조용히 있자 샘은 릴리의 침묵이 너무 아시아적이라고 비난한다.

“그냥 말해. 늘 그렇게 으스스하고 조용할 필요 없어. 너 지금 딱 ‘조아여[원:QAG]야.’ ‘조아여.’ 언니가 ‘조용한 아시아 여자에’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우리 같은 아시아계 여자애들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고정관념을 뜻하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말도 내뱉지 않는다…나까지 이 배를 흔들면 이 배는 뒤집어질 것이다.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sup>75)</sup>

나는 내 생각들에 붙들려 움짱달짝하지 못한다. 이것이 내 문제다. 이래서 언니는 나를 ‘조아여’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는 틀린 대답을 하게 될까 두려운 나머지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sup>76)</sup>

타인을 자기보다 먼저 배려하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과 다를 때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매사에 조심하는 릴리의 성격은 ‘아시아적’이다. 릴리는 또래들이 자기의 할머니를 ‘미친 마녀 할머니,’ ‘주문을 걸고 저주도 거는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놀림거리로 삼자 ‘정상’ 할머니와 다른 자기의 한국인 할머니를 부끄러워한다.

나는 우리 할머니가 보통의 할머니였으면 좋겠다. 김치가 아니라 브라우니를 만들고, 이상한 한국 약초들을 섞는 것이 아니라 털실로 목도리를 뜨는 할머니였으면 좋겠다.<sup>77)</sup>

릴리는 할머니를 깊이 사랑하며 백인 소년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말하는 내용과 태도도 무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기가 일원이 될 예정인 또래들의 즐거움을 깨뜨리기 싫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자기와 친한 백인 친구가 자신을 변호해줄기를 바란다. 그러나 친구도 놀림에 가담하자, 릴리는 울음을 참고 핑계를 대어 자리에서 도망친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주류 사회에 속한 것처럼 느끼고, 공격받아도 받아치지 못하고 도피하는 릴리의 성격은 싫어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아시아적 유산으로 그려진다.

릴리의 침묵은 릴리의 할머니가 미국에서 살아남는 방법과 유사하다. 아시아계 이민자는 그들에게 고정관념을 적용하는 주류 사회에 부당함을 느끼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한다. 이는 자발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주류 사회에 안전하게 편입되기 위한 반강제적 자제로 볼 수 있다. 할머니는 미국에 와서 자기 안의 솔직한 감정이 표현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 평생 내 심장 숨기려고 너무 많이 시간 쓰고 힘썼어...내 말 숨겨야지 생각했어, 영어 잘 못하니까, 그리고 내 마음도 숨겨야지 생각했어, 너무 많은 거 느끼니까. 그리고 내 이야기도 숨겨야지 생각했어, 말하면 나 영원히 그 이야기 같을까 봐.”<sup>78)</sup>

할머니는 미국 이민자로서 생활고와 언어 장벽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sup>79)</sup> 생활 속 수많은 편견과 어려움에서 충동성, 솔직함, 공격성이 드러나지만, 이를 표현되면 미국 사회가 기대

75) 태 켈러, 앞의 책, 32쪽.

76) 태 켈러, 앞의 책, 118쪽.

77) 태 켈러, 앞의 책, 239쪽.

78) 태 켈러, 앞의 책, 306쪽.

79) 할머니는 문법적으로 다소 매끄럽지 않은 영어를 쓴다. 번역서에는 “할머니는...언제나 그렇듯 서툴면서도 능숙한 영어로”(태 켈러, 앞의 책, 35쪽)라는 원본에는 없는 역자의 문장을 덧붙였다.

하는 바람직한 아시아 이민자상과 어긋나고 주류 사회의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할머니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침묵하거나 혹은 즐거운 감정만을 연출하듯 드러낸다.<sup>80)</sup>

작품은 아시아 이민자가 감정을 표시할 때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따지는 자아 검열이 선행된다고 이야기한다.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가해자와 유사한 행동으로 맞설 때 그것은 ‘모범적인’ 한국계 이민자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미국 사회에 부적절한 존재로 인식된다. 외부의 직·간접적 공격이나 차별에서 오는 신체적, 정신적인 아픔을 분명 느끼지만, 바람직한 미국인이 되기 위해 아픔을 마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것은 미국 속의 아시아성을 강화한다.

## 2.2. 투명인간 초능력

릴리의 투명인간 변신 초능력은 미국 주류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한국계 이민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뛰어난 비유이다. 작품은 릴리가 자신의 초능력을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나는 투명인간이 될 수 있다. 그건 초능력이거나, 적어도 비밀 능력쯤은 된다. 하지만 넘겨졌진 말기를. 영화에 나오는 것과는 달라서 나는 초능력 영웅이 아니니까. 그런 영웅들은 위기를 해결하는 스타지만 나는 그냥, 사라진다. 그게 처음엔 나도 나한테 이런 마법이 있는 줄 몰랐다. 그저 선생님들이 내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네, 아이들이 같이 놀자고 하지 않네,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갔다...내가 남들 눈에 안 보인다는 게 싫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그게 내 마법이라는 걸.<sup>81)</sup>

릴리의 주변 사람은 종종 릴리를 무시하거나 마치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릴리는 그러한 상황을 주변인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릴리는 엄마<sup>82)</sup>와 언니가 말다툼할 때, 할머니의 병이 나빠져 병적 행동을 보일 때, 또래집단에게 무시당할 때, 할머니의 임종 직전에 초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운다. 워싱턴주로 이사하는 날 언니와 엄마는 차 안에서 언쟁을 벌인다. 릴리도 불만은 언니만큼 많지만, 장거리 운전에서 지친 엄마의 피곤함에도 공감한다. 언니와 엄마 어느 한 쪽의 편을 들라는 언니의 요구에 릴리는 투명인간이 되기로 한다. 그러나 초능력이 ‘발휘’되는 상황과 결과를 보면, 실제로 그것은 초능력이 아니라(초능력을 ‘발휘’해도 릴리는 보인다), 위기 상황에서 달아나 버리고 싶다는 자기 방어적 한 방법이자 인지왜곡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릴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불친절해서 자기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능력 때문에 나를 볼 수 없을 뿐이며, 그래서 나에게 신경을 쓰기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감싸고 주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를 둘러싼 가족과 사회는 공정하며 호의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불편한 상황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다.

캐시 홍은 인터뷰에서 “유색인종들이 인종차별적 언어에 대한 감정을 말하면 백인들은 과잉 반응한다고 말한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현실과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도가 지나치다’고 대응한다. 이 말은 유색인종들을 굴복하게 만든다. 본 것, 들은 것이 다 확실한데도 자신의 현실을 남에게 폄하 당하는 경험을 너무 여러 차례 겪다 보니 화자 스스로 자기 감각을 의

80) 할머니는 슬픔을 숨기고 행복만을 이야기했다.

81) 태 켈러, 앞의 책, 9쪽.

82) 본고에서 릴리의 입장에서 서술할 때는 ‘어머니’ 대신 ‘엄마’를 사용하겠다.

심하기 시작한다. 타인들이 나를 잘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지적했다.<sup>83)</sup> 아시아계 이민자는 그들이 당하는 무시, 차별, 혐오에 대해서 직접 대항하기보다는 더욱 모범적인 행동을 실천하여 주류 사회의 염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는 아시아인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 이런 점에서 릴리의 투명인간 초능력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아시아계 미국 이민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설정으로 볼 수 있다.

## 2.3. 호랑이

### 2.3.1. 초기 이민 세대: 저주받은 시공간으로서의 한국

작품에서 호랑이는 이민 세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이민 1세대에게 호랑이는 저주받은 시공간으로서의 한국을 상징한다. 할머니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이유와 자신이 한국을 떠난 이유에 대해 한국이 너무나 심한 고통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할머니 옛날 옛날에 작은 마을에서 컸어. 아주 가난했어. 돈 없었어. 밥도 없었어. 아기 때 우리 엄마가 우리나라 떠났어…릴리. 내 이야기 하면 나는 슬퍼 우리 가족 이야기도 슬픔 너무 많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이야기도 슬픔 너무 많아. 옛날 옛날에 일본 사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나쁜 일들 했어.”<sup>84)</sup>

호랑이의 나라인 한국에서 할머니는 심한 가난을 겪었고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았다. 동시에 한국의 과거는 말하는 사람을 울게 만들고 듣는 사람을 공포에 떨거나 화나게 만들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잊어버려야 하는 대상이다.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슬픈 이야기 우리 한국 역사 이야기하면서 울었어. 그러면 이웃들은 무서워하고 친구들은 화냈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왜 우리는 나쁜 이야기 꼭 들어야 해? 나쁜 이야기는 그냥 없어지는 게 좋지 않아?...내가 나쁜 이야기들을 주먹으로 쥐어서 유리 단지 안에 넣었어...나는 나쁜 이야기 이제 싫어. 더는 싫어, 다시는 안 들어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달아났어. 나 살던 작은 마을 떠났어. 바다 건너고 온 세상 건너서, 새로운 곳에 갔어. 슬픔이 못 쫓아오는 곳에 갔어.”<sup>85)</sup>

한국의 과거는 불행한 주인공과 헤어진 가족이 나오고, 희망이 없는 슬프고 처절한 이야기이다. 미국 이민 1세대들은 자녀에게 한국의 이야기가 아닌 미국 이야기, 똑똑하고 아름다운 주인공과 이별 없이 사랑만 하는 가족이 등장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행복이 계속되는 이야기만을 들려준다.

한국은 특히 여성에게 부정적인 공간으로 묘사된다. 이야기에 따르면 할머니는 밤에는 호랑이로 변신하는 인간 소녀였다. 호랑이는 거칠고 통제할 수 없으며, 진실을 말하고 세상을 뒤집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소녀에게 맹렬함, 솔직함, 반항심을 허락하지 않는 공간이기에 소녀는 자신의 호랑이성(性)을 저주로 여기고 미워한다. 한국은 여자아이는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되고, 항상 남을 돕고, 조용할 것을 강요받는 곳이

83) 캐시 박 흥, 앞의 책, 서문.

84) 데 켈러, 앞의 책, 274-275쪽. 할머니의 고향은 번역서 9장에서는 ‘김해’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저자의 승인을 받아 번역서에만 추가된 부분이다.

85) 데 켈러, 앞의 책, 63쪽.



다.<sup>86)</sup> 호랑이는 한국 사회에게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충동성, 공격성, 솔직함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

호랑이로 형상화된 한국의 고통스럽고 슬픈 과거는 한국인에게 거부, 망각, 미국 이민과 같은 도피로 대응하게 했다. 할머니는 릴리에게 자기를 위협하는 호랑이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하늘나라로 도망쳤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늘나라는 곧 미국의 상징이다. 할머니가 호랑이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갔고, 릴리의 미국 친구 리키(Ricky)의 조상이 뛰어난 호랑이 사냥꾼이었다는 설정은 호랑이가 한국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리키는 옛날에 자기 증조할아버지가 호랑이를 아주 많이 잡았지만, 지금은 너무 잡아서 멸종 위기이고 사냥이 금지되었다고 릴리에게 설명한다. 호랑이는 과거 한국에서 위풍당당한 강자로 존재했지만, 미국에서 호랑이는 사냥으로 거의 멸종되어 위협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사냥을 금지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동정을 받는 약자이다. 이는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한국성이 크게 위축된 현재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87)</sup> 미국은 초기 이민자의 한국적 특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미국 사회에 잘 융화되도록 한국성을 최소화하기를 중용했으며 한국계 이민자 역시 이러한 가치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이러한 이질적 문화성 제거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미국 사회에 위협적이지 않은 정도에 다다르자, 한국성은 다문화 시대에 존중받아야 하는 희귀한 가치로 인식, 교육되고 있다.

고통스러웠던 한국의 기억은 호랑이가 되어 1세대 이민자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할머니는 릴리가 호랑이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 절대로 다시 호랑이와 만나서는 안 되며, 고사를 지내 호랑이가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릴리를 겁주며 다그친다. 할머니는 혼수상태에서 호랑이가 자기를 쫓아온다고 말하며 괴로워하는데, 할머니에게 호랑이는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악귀와 유사하며 퇴치의 대상이다. 할머니가 릴리 자매에게 들려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등장하는 아이들을 위협하는 호랑이, 「송곳니로 뼈도 씹을 수 있는」<sup>88)</sup> 호랑이는 한국계 이민자 가정의 아동이 느끼는 민족성 찾기에 대한 두려움이 형상화된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민 1세대가 가진 한국에 대한 강한 부정은 후세대에게 전달되 그들 자신을 한국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 2.3.2. 후(後)세대: 자기표현과 현실 인식을 이끌어주는 마법의 동물

이민 3세대인 릴리는 1세대 할머니가 들려준 부정적인 한국의 이미지에 매우 익숙하기에 호랑이와의 첫 만남에서 매우 두려워한다. 릴리는 호랑이를 없애버리기 위해 할머니의 조언대로 썩을 가지고 다니거나 미국 친구의 도움을 받아 덫을 놓기도 하지만, 호랑이와의 지속적인 만남은 호랑이와의 표면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릴리가 자기를 둘러싼 가족과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움을 준다. 릴리가 호랑이를 만나는 지점은,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다. 이사 날 서로 자기 편이 되주길 바라는 엄마와 언니 사이에서 릴리는 투명인간이 된다. 그 순간 릴리는 들판에 앉아 있는 거대한 호랑이를 보게 되고 투명인간에서 깨어나 엄마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친다.

호랑이가 한쪽 눈썹을 올린다. 마치 무슨 짓을 하라고 나를 자극하는 것처럼.

86) 태 켈러, 앞의 책, 176쪽.

87) 한국계 청소년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상실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심각하다. 김성주·김범준, 위의 글, 213쪽.

88) 태 켈러, 앞의 책, 80쪽.

나는 목소리가 안 나와 버벅거린다, 숨 막힌 사람처럼 말한다.  
 “엄마...차 세워.”  
 엄마와 언니가 말하느라 듣지 않자 나는 더 크게 외친다.  
 “차 세우라니까.”<sup>89)</sup>

릴리의 머릿속에만 돌던 생각은 호랑이를 만나 큰 소리로 나온다. 호랑이는 그 뒤에도 릴리 앞에 나타나 불만을 말하고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부추긴다. 호랑이와의 만남을 통한 릴리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호랑이와의 만남 과정과 릴리의 변화

순번	만남 전 사건	장소	만남 후 변화
1	엄마와 언니의 갈등	길	차를 세우라고 소리침
2	할머니의 병 확인	부엌	할머니를 구하기로 결심
3	할머니의 병세 악화	지하실	호랑이와의 거래를 받아들임
4	할머니의 병적 행동	지하실	호랑이에게 소리치고 반박함
5	또래집단에게 무시당함	도서관	푸딩에 진흙을 넣어 먹임
	초능력의 발휘에 실패		자신의 인지왜곡을 깨닫게 됨
6	할머니의 임종 직전	도서관	언니가 운전을 하도록 설득함
			할머니에게 자신이 바꾼 이야기를 함

작품 초반에 릴리는 자기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호랑이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초능력이란 환상을 이용해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로는 타인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임을 인정하게 된다. 파티에서 릴리는 자신의 할머니를 조롱하는 또래를 위해 푸딩을 갖다주겠다고 자칭하는데, 혼자 남겨지게 되자 부당한 대접을 받고도 침묵한 자신을 비난한다.

이건 웃기는 일이다. 리키가 나를 나쁘게 대했는데 나는 할머니나 나를 변호하지도 않은 데다가 이제는 리키가 먹을 푸딩까지 손수 갖다주고 있다. 내가 한심하다. 그야말로 ‘조아여’다운 행동이다.<sup>90)</sup>

다음 순간 릴리는 호랑이를 만나게 되고 자기를 향했던 비난을 가해자를 향한 비난으로 바꾼다. 자신이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 받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호랑이에게 소리친다.

“다들 나한테는 숨기는 거 지긋지긋해. 내가 눈앞에 없는 것처럼 대하는 거,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나 투명인간 아니야, 조아여 아니야.”<sup>91)</sup>

그리고 릴리는 푸딩에 진흙을 몰래 넣어서 친구라고 믿었던 리키에게 몰래 먹여서 입 조심하라는 나름의 복수를 한다.<sup>92)</sup>

89) 태 켈러, 앞의 책, 14쪽.  
 90) 태 켈러, 앞의 책, 241쪽.  
 91) 태 켈러, 앞의 책, 244쪽.

“[내가 먹인 건] 그냥 진흙이야!”

내가 불쑥 말한다. 아이들이 조용해져서 나를 멍하니 본다. 어쩔 줄 모르게 당황한 나는 투명 인간이 되려 해 보지만 모두가 나를 계속 쳐다본다…아이들은 충격에 싸여 눈만 깜빡거리고, 두려움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리키가 내게 속삭인다.

“너 나에게 ‘저주’ 걸었네.”<sup>93)</sup>

아동·청소년 문학에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은 종종 주인공의 성장과 독립을 이끌어낸다. 일련의 설화 역시 부모와 멀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의존적이었던 어린 인물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호랑이를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해하면, 호랑이를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는 오누이는, 무력한 존재에서 스스로 집 밖으로 나와 자신의 힘으로 성장한 존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낯설고 겁나는 일이지만 언젠가 부모 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마침내 나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집을 떠난 아이들이 펼쳐내는 놀라운 모험과 성취를 즐겁고 화려하게 보여줌으로써 길 떠남을 응원하고 축복한다<sup>94)</sup> 작품에서 호랑이는 내적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악역이다.<sup>95)</sup> 릴리는 호랑이에게 착한 아이로서 드러내기 힘들었던 고통, 슬픔, 분노의 감정을 마음껏 쏟아부는다. 서사 후반에 릴리는 자신 안에 호랑이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호랑이란 가족과 사회의 기대와 어긋나 표현하기 힘들었던, 자신의 내면 안에 억누른 공격성과 반항성으로 볼 수 있다.

### 3. 한국계 미국 청소년에 대한 진단과 과제

#### 3.1. 가짜 성숙의 경계

『호랑이를 닮은 가두면』은 이민자 청소년의 때 이른 성숙을 경계하는 작품이다. 아동문학은 종종 자유분방하고 절없는 아동이 부모를 원망하거나 무시했다가 일련의 사건을 통해 부모를 이해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성숙으로 그려낸다. 청소년 문학에서도 바람직한 청소년이란 종종 학교나 사회와 같은 주류의 권위를 이해하고 따라가며 행복을 찾는 인물로 그려진다.<sup>96)</sup> 주인공이 결국 착한 아이의 틀에 들어와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전형적인 모범생이 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문학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원하는 교훈과 순종을 가르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sup>97)</sup> 이와 달리 『호랑이를 닮은 가두면』은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의 ‘성숙’이란 어찌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아니라, 이민자가 처한 불공정한 고정관념과 가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껌질만 갖춘 가짜 성숙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작품은 한국계 청소년들이 이민자 가정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움을 암시한다. 초기 이민 세대의 부모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느

92)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의 음식에 흠을 섞어 먹이는 복수는 할머니가 미국인 사위에게 했던 행동이기도 하다.

93) 태 켈러, 앞의 책, 247쪽.

94) 신동훈, 『옛이야기의 힘』, 우리교육, 2012, 145-147쪽.

95) 뉴베리 수상소감에서 작가는 마법 호랑이가 등장하여 릴리가 정체성, 용기, 죽음, 희망을 탐구하고 경험하게 하며 그 경험을 통해 릴리를 성장시킨다고 밝혔다. 우정인, 앞의 글, 22쪽.

96) 정정미, 「다문화 아동문학에 나타난 문화적 개입: 미국 이주자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학』 58(4), 2014, 266쪽.

97) 정정미, 앞의 글, 266쪽.

라 애쓰며,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여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에서 자주 언급되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역시 할머니 혹은 어머니가 가난 때문에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에서 가계를 책임지기 위해 어두운 세상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나는데, 이는 릴리의 할머니가 낯선 미국에서 싱글맘으로서 닥치는 대로 일하느라 어린 딸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 그리고 릴리의 엄마 역시 남편의 부재 상황에서 병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이사하고 새 직장을 구하느라 자녀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하늘 왕국에서 사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고, 호랑이 여인은 일자리를 구했지. 밤이 아주 어두웠으니 누군가는 그 밤을 밝혀야 했어.<sup>98)</sup>

“너희 할머니 일을 참 많이 하셨어, 나 어릴 때.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이상한 일자리를 많이 구하셨지…하지만 늘 아주 바쁘셨어. 날 홀로 키우셨으니까 바쁠 수밖에 없었어. 난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시간을 못 낼 때가 많다는 게.”<sup>99)</sup>

“미안해, 릴리.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온 세상의 방패가 되어줄텐데. 아픔도 다 없애주고. 그런데 너는 이미 너무 힘들었네. 엄마가 보호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나는 불 안쪽을 깨문다. ‘왜 보호해 주지 못했어?’하고 묻고 싶어진다. 온당하지 않은 물음인 줄 알면서도.<sup>100)</sup>

바쁘고 슬픈 엄마를 보면서 릴리 역시 잠을 설치게 만드는 무서운 호랑이나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외로움을 엄마에게 말하지 못한다. 릴리가 엄마에게 보여주는 배려는 각별하지만, 이는 자신의 엄마가 일반적인 ‘미국’ 엄마와는 다르게 자녀의 이해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sup>101)</sup>

[캘리포니아를 갑자기 떠나게 되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무래도 조금은, 화가 난다…하지만 엄마가 지은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아래층에서 할머니를 찾던 엄마는 너무 위태로워 보였다. 엄마들이 짓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sup>102)</sup>

엄마는 릴리가 진흙 푸딩을 먹인 아이가 바로 자신의 직장 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며 릴리에게 사과하라고 말한다. 이를 듣고 릴리도 죄책감을 느낀다. 릴리는 표현하지 못할 뿐, 엄마에게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 릴리는 호랑이의 이야기 중에 호랑이 소녀가 자기 아이를 떠나는 부분을 듣고 몹시 화를 낸다.

분명한 것은 호랑이 여인이 아기를 떠난 대목이 무척 싫다는 것이다.

“그 아기한테 엄마가 필요했으면 어떡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잖아. 아기를 두고 떠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

“너 화가 났구나.”

98) 태 켈러, 앞의 책, 179쪽.

99) 태 켈러, 앞의 책, 254쪽.

100) 태 켈러, 앞의 책, 222쪽.

101) 이민자 가정의 아동은 부모가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 부모의 보호자같은 역할을 맡기도 한다. 릴리의 엄마 역시 자신의 어머니의 어려움을 어려서부터 도와야 했고 이것 때문에 부끄러웠다고 말한다.

102) 태 켈러, 앞의 책, 31-32쪽.

그 커다란 고양이과 동물이 부드럽게 말한다.<sup>103)</sup>

릴리는 부모란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며 아이를 절대 떠나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분노한다. 그동안 자신을 말 잘 듣는 아이로 간주하고 매일의 음식이나 학교생활, 교우관계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주지 못한 엄마에 대한 분노가 컸음을 의미한다.

작품은 부모를 이해하고 배려하기를 요구받는 청소년 주인공의 때 이른 성숙을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미국 사회에서 사는데 큰 장애 요소이다. 릴리는 실패와 좌절, 무력감에 익숙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가해자가 아닌 자기를 비난하며, 자신의 가치와 존재조차 지우려고 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은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과거로 후퇴하여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호랑이를 닮은 가두면』은 이민자 가정의 한국계 청소년에게 가족과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순종하는 것을 일단 멈추고, 가족에 대한 분노와 비판을 표현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독인다.<sup>104)</sup>

### 3.2. 가족중심주의의 빛과 그늘

미국인으로 살기를 선택한 이민자들의 삶은 쉽지 않다.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이산문학은 종종 내부의 단결, 강한 가족애를 강조한다. 할머니는 딸과 손녀를 사랑하며, 어머니는 할머니와 어린 딸들을 돌보기 위해 애쓰며, 딸들은 그런 어머니의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 자기를 버리거나 방치한 어머니의 행위도 서사의 결론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다소 급작스럽게 용서된다. 한국계 청소년이 가족 구성원을 끝끝내 부정하는 것은, 구성원 개인에 대한 부정에 더하여 자기가 타고 태어난 한국성을 부정하는 이중의 부정으로 더욱 나쁘게 이해된다. 이러한 이민자 사회의 강한 가족 중심주의는 이산문학에 등장하는 가족 중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정적 인물이 등장하여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가 드문 이유를 일부 설명한다. 가족 구성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남는 문제에 비하면 그것은 사소하여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혹은 간단한 대화나 포용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민자 사회의 강한 가족 중심주의는 구성원에게 원가족을 떠나 독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호랑이를 닮은 가두면』에서도 원가족 중심주의는 분명하여 미국식의 독립된 자아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두 청소년 자녀의 어머니인 릴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이다.

“너희 아빠 나빠. 나한테서 너희 엄마 뺏어갔잖아. 진흙 조금? 안 나빠.”

...

엄마가 내 질문을 무시하고 할머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엄마한테서 나 뺏어 간 거 아니야. 내가 대학에 간 거지.”

할머니가 몸을 내밀어, 엄마의 죄책감에 기대어 커다랗게 속삭인다.

“대학 끝나고 나한테 돌아오기로 했는데 네 아빠가 뺏어갔어. 너희 엄마, 이 불쌍한 할머니 떠나서 백인 남자한테 갔어. 어려서 철이 없었지.”

103) 태 켈러, 앞의 책, 179쪽.

104) 릴리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화를 내며 반항했을 때, 엄마는 ‘너답지 않다’고 말하며 문제를 무마하려고 한다. 그러나 릴리가 끝까지 수그러들지 않자, 엄마는 이제까지의 태도를 바꿔 릴리와 솔직히 대화하고 이제까지 숨겼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준다.

엄마의 턱이 떨린다.

“누가 나 뺏어 간 거 아니라니까. 내 발로 떠난 거야. 내가 떠나고 싶었다고요.”<sup>105)</sup>

할머니와 엄마, 릴리 자매는 아시아 식당에서 화목하게 식사를 한다. 그러나 대화 도중에 어머니가 할머니를 떠나고 싶었고 그래서 대학에 가고 결혼했다고 고백하자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고 식구들을 알아보지 못하며 이상행동을 한다.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순간, 릴리 가족은 미국 속 작은 아시아적 공간인 아시아 식당에서 쫓겨나듯 나올 수 밖에 없다.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한 것이 딸의 잘못이며 서양 남자의 저주라고 비난하며 정신의 문을 닫아버리는 1세대 할머니와 자신이 선택해서 떠난 것이라고 말하는 2세대 어머니 사이에는 이민 세대에 따른 가치관 차이가 드러난다. 미국에 살면서 진정한 ‘미국인’이 되기를 선택했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는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원가족 중심주의는 분명 모순이다. 그러나 작품은 그러한 점을 암시할 뿐 직접 비판하지는 않기에 릴리의 가족 내에서 원가족 중심주의는 여전히 공고하다.<sup>106)</sup>

### 3.3. 한국문화의 선택적 수용과 변형

『호랑이를 닮은 가두면』은 한국계 청소년에게 한국문화라고 무조건 긍정하고 배울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의 삶에 효용성이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가려내어 취사선택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변형해도 좋다고 제시한다. 릴리는 할머니를 통해 한국 문화를 배웠지만 동시에 한계도 깨닫는다. 할머니는 한국 풍습인 고사를 지내면 영혼들이 오지 못한다고 가르쳤지만, 고사는 결국 호랑이를 막지 못했기에 효과가 없는 행위라고 릴리는 결론 내린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들려주지만, 슬픔의 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주인공의 성별을 바꾸었다. 서사 초반의 릴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최대한 정확하게 보존하려고 노력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기 식으로 다시 바꾸어나간다. 이야기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민 세대에 따른 변형

내용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	릴리의 이야기
인물	할머니/어머니 남매	할머니와 자매	할머니와 자매
음식	떡	떡	해피 넷 크래커
방식	탈출 및 하늘에 기도	탈출 및 하늘에 기도	쌀을 뿌림
결과	남매의 구원	자매의 구원	자매의 구원
호랑이	호랑이의 죽음	호랑이의 추방	하늘 신=호랑이=할머니
조건	X	하늘나라에 살기 위해 노동	X
결과	해와 달이 됨	해와 달이 됨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

105) 태 켈러, 앞의 책, 189쪽.

106) 릴리의 어머니도 자신이 미국인처럼 독립했지만 이러한 독립에 강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원가족 중심주의는 아동·청소년문학의 특징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

할머니는 남매에서 자매로 등장인물을 바꾸고, 호랑이의 죽음이 아닌 추방으로 바꾸고, 하늘나라에 사는 비용이 매우 비싸기에 자매가 해와 달로 일해야 했다는 이야기로 바꿨다. 이는 할머니의 고단한 이민 생활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릴리는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어머니의 죽음 없이 호랑이를 등장시키고, 호랑이의 죽음이나 추방 대신 하늘나라에서 같이 사는 이야기로 만든다. 릴리가 자신이 바꾼 이야기를 임종 직전의 할머니에게 들려주고 그 이야기에 모두가 만족했다는 묘사는 미국에서 1세대 한국문화의 시간이 이제 지나갔음을 의미한다. 릴리의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하늘의 신이며 할머니이며 나아가 힘든 미국 생활을 버려나간 이민자 여성 전체로 확장된다.

신도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이때 신이 한 실수는 호랑이 소녀를 만든 것이 아니었답니다. 신의 실수는 바로...호랑이 소녀가 자기 모습을 숨겨야 하는 세상을 만든 것이었지요. 그런 세상이니 호랑이 소녀는 자기가 동시에 여러 존재라는 것을 두려워했어요...하지만 그 일은 옛날 신이 옛날 방식으로 한 일이었지요. 새로운 하늘 신은 그 자매가 자신의 가족임을 알아보았어요...어떤 이야기들은 무서웠고 어떤 이야기들은 슬펐지만 두 여자아이는 자랑스럽다고 느꼈어요.<sup>107)</sup>

과거 한국은 가난과 이별, 슬픔과 여성 차별의 공간으로서 부정적 공간이다. 그러나 이민자 세대를 거치면서 변형된 설화를 통해, 작가는 한국계 청소년에게 한국성을 다루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알려준다. 과거는 과거로 지나갔으며, 그것을 억지로 수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sup>108)</sup> 한국성에는 슬픔도 많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 원형을 고수하는 데 얽매이지 말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과감히 변형하면 한국은 가난과 고통이 아닌 마법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고 자아정체성의 한 요소로 가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할머니 세대에게 한국성은 탈출하고 거부해야 했던 무거운 짐이지만, 후세대가 한국성을 다루는 태도는 가볍고 과감하다. 자신의 문화 정체성 탐색에 있어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를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후세대의 시각 확장도 긍정적으로 그려진다.<sup>109)</sup>

『호랑이를 덮에 가두면』은 한국계 이민자를 완전한 한국인<sup>110)</sup>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산 문학은 종종 개인 정체성의 가장 큰 부분을 한국 역사와 연결시키고, 한국 역사를 알아야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강조한다. 『호랑이를 덮에 가두면』 역시 역사와 청소년의 정체성을 연결시킨다. 그러나 한국 역사의 슬픔을 알고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든지, 혹은 다른 문화 정체성이 있어도 모국으로서 한국만을 인정해야 정체성을 제대로 찾은 것<sup>111)</sup>이라고 암시하지 않는다. 릴리는 한국계이기는 하지만 가치관과 정서에 있어 할머니 세대와는 이미 상당한 거리가 보인다.

이민 3세대가 바라보는 이민 1세대는 완전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미국 사람도 아니다. 할머니는 미국 사회에서 부적절하고 이상한 한국문화를 고수하는 혼종적인 세대로 이

107) 태 켈러, 앞의 책, 310-311쪽.

108) 이는 한국 이민자를 다룬 소설 『과친코』의 첫 문장인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역사는 우리를 망쳐버렸지만[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와 일맥상통한다.

109) 최근 재미교포 자녀들의 문화 정체성에 관한 연구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김성주·김범준, 앞의 글, 201쪽.

110) 위중선의 연구는 태 켈러의 인터뷰를 들어 작품이 한국계 이민자에게 ‘완전한 한국인으로’ 가는 방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위중선, 앞의 글, 86쪽. 그러나 작품 속 주인공의 정체성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민족적 속성 중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속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적 정체성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를 고민하지 않고 다양성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태도에 좀 더 가깝다.

111) 김성주·김범준, 앞의 글, 197-233쪽.

해된다. 할머니는 물건을 옮기는 데 상서로운 날(auspicious day, 길일)이 있어서 운이 나쁜 날(unlucky days) 물건을 옮기면 매우 위험하다고 믿으며,<sup>112)</sup> 음식을 만들면 영혼[혼령]들에게 먼저 주어야(kosa, 고사) 탈이 없다고 믿는다.<sup>113)</sup> 이러한 할머니의 한국적 행위는 2세인 딸에게는 무시되거나 비난받고, 3세대인 손녀에게는 기이한 감정을 자아낸다. 작품은 이러한 세대간 차이를 억지로 봉합하거나 서로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강요하지 않는다. 모든 측면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 3.4. 공격성의 긍정

문학에서 판타지는 현실 조건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을 가진다. 릴리는 상상의 호랑이를 통해 미국 사회의 모습과 자기 내면을 고통 속에 직시하고 인정한다. 미국 사회는 이민자에게 배타적이며, 기존의 ‘아시아성’으로는 이러한 배타성을 도저히 깰 수 없다.

캘리포니아의 릴리였다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하라는 대로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누구도 내게 명령할 수 없다. 호랑이조차도. “엄마, 개가 우리 할머니 애기를 나쁘게 했던 말이야!… 특이한 거나 이상한 건 나쁜 게 아니야.”<sup>114)</sup>

릴리는 리키에게 사과하라는 엄마의 요구를 즉석에서 거절하고 잘못을 한 것은 상대방이었다고 자기를 변호한다. 미국 사회가 기대하는 한국인 혹은 아시아인의 모습이란 실제 이민자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편견이며 억압이다. 말 잘 듣고 조용한 아이라는 가족과 사회의 인식은 실제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며, 그들의 인식이란 실상 주류 사회 혹은 가족의 편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깨달음 뒤에는 행동이 필요하다. 거대한 덩치와 공격성을 가진 호랑이의 등장은 아시아계 청소년에게 공격성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초기 이민자는 폭언이나 폭력, 무시와 같은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즉각적인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더욱 이성적이며 점잖은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호랑이는 릴리에게 아시아적인 수동성이나 부드러움이 아니라 공격성을 드러내도록 유도한다. 먼저 타인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격성이 반드시 이성적인 논리나 점잖은 행동으로 표현될 필요가 없다고 그려내는 점도 이 작품의 독특한 지점이다. 릴리는 또래 아이들이 할머니를 마녀라고 놀리고, 할머니의 병과 환각에 대해 떠들어대자 몹시 당황한다. 당황한 릴리를 보고 자신들이 너무했다는 것을 깨닫는 아이도 있었지만, 릴리가 맞대응하지 않자 은근슬쩍 넘어가 버린다. 이민자에게 요구되는 인내나 순종은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없다.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 행복한 미래가 올 것이라는 미래 중심적인 사고는 학교나 사회에서 아시아계 청소년이 겪어가는 당장의 어려움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며 나아가 아시아인은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저항하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하게 만들 뿐이다. 작품은 청소년 독자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즉시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행동으로 대처하

112) 태 켈러, 앞의 책, 39쪽. “운 나쁜 날 물건 나르면…아주 위험해. 그리고 물건 부수면…아이구, 정말 나빠.”

113) 태 켈러, 앞의 책, 41쪽. “고사 지낼 시간…우리는 영혼들과 조상들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한 다음에 그 음식을 우리도 먹는다.”

114) 태 켈러, 앞의 책, 251-252쪽.



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 자신이 멍털하고 강한 것 같다. 천하무적 같다. 내 이빨이 칼날이 되고 내 손톱이 호랑이 발톱으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를 위해 일어설 수 있고 누구도 감히 날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리키의 무례함이건 할머니의 병이건, 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상황이 나아지게 한다. [나는] 남을 속이지도 않을 것이며, 나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결말까지 기다리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sup>115)</sup>

릴리가 리키에게 진흙을 먹인 사건은 곧 양쪽 부모에게 알려지고 릴리는 리키에게 사과한다. 리키는 릴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머니와 한국문화에 대해 함부로 평가한 것을 사과한다.<sup>116)</sup> 이러한 즉각적인 화해는 다소 작위적이지만, 무시에서 존중으로 릴리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는 릴리가 불공정 상황에서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면 얻어낼 수 없었던 승리였다. 작가는 아시아계 청소년에게 미래를 내다보고 짓밟혀도 참고 견디기보다는 현재의 어려움에 집중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힘도 길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4. 결론

본고는 『호랑이를 닮아 가두면』에 나타난 한국계 미국 청소년과 호랑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한국계 미국 청소년의 현재 상황과 건전한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해 작가가 제시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아시아계 미국 청소년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재현한 작품이지만, 이러한 재현이 아시아계 혹은 한국계 미국 청소년의 모습에 모두 부합한다거나, 해당 작품이 청소년 문학 혹은 이산 문학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분량의 제한이 있어 다루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많다. 본고는 한국계 미국 청소년과 호랑이의 관계에 집중했지만,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과 동물의 관계 맺음은 최근 많은 작품에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광범위한 작품 분석과 유형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필자의 후속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15) 태 켈러, 앞의 책, 244쪽.

116) “너희 문화를 함부로 평가하고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었고...정말로 너희 ‘혈-머니’ 멋지시다고 생각해.” 태 켈러, 앞의 책, 265쪽.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태 켈러(Tae Keller),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 강나은 옮김, 돌베개, 2021.  
Keller Tae, When You Trap a Tiger, New York: Random House, 2020.

### 2. 논문 및 단행본

구선희·김집숙 편, 『북미주 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07.  
김성곤,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향하는 이산문학- 한국 이산문학의 현재와 미래」, 『문학사상』 559, 2019, 41-62쪽.  
김성주·김범준, 「새로운 정체성 'Korean-American'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1), 2011, 197-233쪽.  
김영선, 「디아스포라 소설에서 구조와 원형의 의미-태 켈러의 장편소설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2(6), 2021.12, 655-679쪽.  
김태근, 「미국 이민정책의 역사와 전망」, 『국제사회보장리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93-97쪽.  
신동훈, 『옛이야기의 힘』, 우리교육, 2012.  
오세란, 「달한 담론에서 광장의 이야기로」, 『문학사상』 573, 2020, 6-65쪽.  
우정인, 「소설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에 나타난 옛이야기의 힘과 리미널리티 공간」, 『세계문학비교연구』 78, 2022, 5-27쪽.  
위중선,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에 나타난 미술적 사실주의의 활용과 의의」,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0,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2.6, 73-103쪽.  
윤준민, 「해외 한인소설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의 발현양상: 『영원한 이방인』과 『차이나맨』의 대비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0, 2020, 341-377쪽.  
정정미, 「다문화 아동문학에 나타난 문화적 개입: 미국 이주자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학』 58(4), 2014, 253-275쪽.  
캐시 박 흥(Cathy Park Hong), 『마이너 필링스』(Minor Feelings), 노시내 옮김, 마티, 2021.  
한혜영, 『이민 간 진돌이』, 큰나, 2011.  
장동석 엮음, 『뉴 필로소퍼 코리아』(New Philosopher Korea) 17, 바다출판사, 2022.

### 3. 기타 자료

임지영, 「한국계 작가의 작품이 해외에서 읽힌다는 것」, 『시사인』, 2022.01.2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13>.  
Jones, N. et al. 2020 Census Illuminates Racial and Ethnic Composition of the Country.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21.8.12.)



## 「『호랑이를 덮에 가두면』에 나타난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과 호랑이의 관계」에 대한 토론문

한 정 미(한신대학교)

이 발표문은 태 켈러의 『호랑이를 덮에 가두면』을 대상으로 작품 속 주인공인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 릴리와 설화 속 호랑이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가운데, 이민 3세대인 릴리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 양상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논의는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청소년)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아시아성(침묵, 인내, 순종)’, ‘투명 인간 초능력(인지 왜곡적 자기방어)’, ‘호랑이’ 등으로 제시하면서 미국 주류 사회에 온전히 편입하기 위한 “바람직한 아시아 이민자”가 되려 했던 릴리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이민 세대에 따른 호랑이의 상징적 의미(저주받은 시공간으로서의 한국, 현실 인식을 이끌어주는 내적 안내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품 분석을 통해 발표자는 이민자 가정에서 청소년의 성숙은 허울뿐인 “가짜 성숙”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민자의 강한 “가족중심주의”는 자녀의 독립과 관련하여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민 3세대가 한국성을 다루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한국문화의 선택적 수용과 변형(작품 속 변형된 설화)을 언급하며, 불공정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자기방어 행동(공격성의 긍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산(離散) 문학으로서 한국계 이민자의 재현양상을 잘 드러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작품의 모티브가 됐던 설화(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변모 양상을 이민 세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 호랑이의 상징적 의미를 탐색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를 질문함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본 발표의 내용이 학회의 기획주제인 “공정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발표문 내에서는 51쪽에서 “미국 사회가 기대하는 한국인 혹은 아시아인의 모습이란 실제 이민자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편견이며 억압이다.” 관련 구절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2. 『호랑이를 덮에 가두면』은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태 켈러가 특히 “여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품의 모티브가 된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남매가 아닌 ‘자매’로 설정한 것도 그렇고, 외할머니를 비롯해 엄마 존, 언니 샘, 주인공 릴리까지 모두 여성을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음을 볼 때,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말하려는 게 여성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작품에만 집중한다면 남녀를 모두 포괄하는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이란 표현이 작품의 취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발표문의 목적이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과 호랑이의 관계를 타진하는 거라면 더욱 집중해야 하는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곧 작품 내 호랑이의 정체가 릴리의 증조 외할머니인 것을 염두에 둔다면 릴리(한국계 미국인 청소년)와 호랑이의 관계 탐색에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 부여를 통해 이민자들의 삶을 다룬 다양한 이산 문학(이민 아동청소년 문학)과 차별되는 이 작품만의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

다. 가령 작품 속 릴리는 호랑이와의 관계를 통해 “조아여(조용한 아시아 여자애)”에서 벗어나 강인한 여성의 자아를 지니며 내적 성장을 이뤄가는 것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발표자께서는 작품 내 ‘미국 속의 아시아성’[발표문 42쪽]을 ‘이민 사회에 잘 적응하고 바람직한 미국인이 되기 위해 외부의 공격이나 차별의 고통을 견디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품 속 릴리의 외할머니 같은 경우, 선빔에 사는 그녀 주변 이웃들에게 한국적인 치료법을 전수해준다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조언을 해준다는가, 지역 도서관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고사를 올리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해볼 때, ‘미국 속의 아시아성’을 좀 더 적극적인 의미(긍정적 측면에서)로 해석해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4. 발표문의 제목이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과 호랑이의 관계”이고 그 하위 항목에서는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현재”와 “한국계 미국 청소년에 대한 진단과 과제”라고 되어 있어서 목차에서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과 호랑이의 관계’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아 내용 짐작이 어렵습니다. 전체 제목을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을 통해 본 이민자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조건(제안)-한국계 미국 청소년과 호랑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도로 두고 하위 목차를 구성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울러 2장의 2.3절의 “호랑이”는 그 하위 항목을 염두에 둔다면 “이민 세대에 따른 호랑이의 상징적 의미”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울러 발표문에 제시된 “한국계 미국 청소년” 외에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 이민자 청소년, 한국계 청소년, 한국계 미국 이민자, 아시아계 이민자, 아시아계 청소년, 아시아계 미국 이민자, 아시아계 미국 청소년, 한국계 이민자, 이민자 가정의 한국계 청소년’ 등의 비슷한 의미의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효과적인 논의 전개를 위해 일관성 있게 통일해서 제시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문학 속 여성문학의 일 양상

## - 기각(綺閣)의 『기각한필(綺閣閒筆)』을 중심으로

김 묘 정(단국대학교)

### 차례

1. 머리말
2. 한문학 속 여성문학 개관
3. 『綺閣閒筆』의 몇 가지 특징적 양상
  - 3.1. 작가와의 同類意識 표출, 그리고 시적 만남
  - 3.2. 창작자의 근본적 욕망, 한계를 넘어
  - 3.3. 같고 다름의 미학, 遊仙詩 창작과 그 의미
4. 맺음말

### 1. 머리말

이 글은 한문학 속 여성문학의 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여성작가 綺閣의 『綺閣閒筆』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綺閣閒筆』은 여성작가 기각이 창작한 한시들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문학의 한 단면을 살펴는 데 유용한 자료이므로 이 글에서는 그의 문집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논의에 앞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여성문학’은 무엇이며, 이러한 용어 사용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여성문학의 경우 큰 틀에서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자주 다뤄진 바 있으나, 특히 남성 사대부 중심의 ‘한문학’에서 여성문학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범주를 규정하는 작업은 낯설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을 축소시키고 한계 짓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한문학에서 여성문학은 주된 연구 대상으로 자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편향성은 연구 대상 그 자체의 소략함에서 말미암는 것이지, 국문학 그리고 한문학 연구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사회적 구조 측면에서 당시 사회를 ‘불공정’하다는 용어를 사용해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공정’이라는 개념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현대적인 개념이므로 이 용어를 사용하여 ‘여성문학’의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는 끊임없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불공정’이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현재 지금의 시선에서 과거를 조망하는 방식이므로 사회구조적 모순을 내포한 당대 한문학은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측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여성문학’을 당대 시대의 특수성을 내포한 보편적인 한 인간의 기록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불공정, 불평등의 시선을 견지하여 여성작가의 시문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문학 안에 담긴 한 작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먼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綺閣閒筆』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綺閣閒筆』에 대한 연구는 부유섭·강문중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신자료를

소개함에 있어 서지적 특징에 주목하였으며 저자와 창작 시기를 비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綺閣의 시세계를 대략 논의하였는데, ‘생활의 발견’이라는 주제 아래 詠物詩와 紀俗詩를 살피고, ‘여성의 목소리와 한계’라는 주제로 내면 의식이 확인되는 2수의 시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시 학습과 추체험의 세계’라는 측면에서 역대 명시의 구절을 시제로 삼아 창작한 양상을 밝혔다. 그런데 이 글의 경우 첫 연구이므로 문학적 특징보다는 서지 사항에 집중한 면모를 보인다.<sup>117)</sup> 이후 『綺閣閒筆』은 김여주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데, 이 논문은 綺閣의 생애와 문학적 배경을 다룬 후 題材별로 기각의 시세계를 조망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시세계의 특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일상을 제재로 한 詠物詩와 계절·비등을 제재로 한 景物詩를 다루었으며, 유명 시구로 제목한 시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기각의 시세계를 분석한 바 있다. 이 논문은 19세기 사대부 여성들에게 공유되었던 문학 활동 양상의 일면을 기각의 창작활동에서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sup>118)</sup> 이에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를 활용하되, 시기를 좀 확장하여 한문학 속 여성문학을 정리하는 작업을 필두로 『綺閣閒筆』의 특징적 양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포착해보고자 한다.

그에 따라 먼저 2장에서는 한문학 속 여성문학을 개관하고자 하는데, 여성문학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한문학 속 여성문학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목록화해보고자 한다. 이에 여성문학의 전체적인 특징을 고찰하면서, 『綺閣閒筆』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綺閣閒筆』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여성작가의 문학이라는 특수성과 한 인간의 기록이라는 보편성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작가 본연의 목소리에 집중하고자 한 것이다. 첫 번째는 ‘작가와 의 同類意識 표출, 그리고 시적 만남’으로 기각이 다른 작가와 어떻게 교류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동류 의식을 드러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창작자의 근본적 욕망, 한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기각이 문학 활동을 하게 된 내적 욕망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여성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같고 다름의 미학, 遊仙詩 창작과 그 의미’로, 여기에서는 기각의 시세계에서 확인되는 여성문학만의 특징을 유선시에서 발견해보고자 한다.

## 2. 한문학 속 여성문학 개관

이 장에서는 한문학 속 여성문학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이에 먼저 한문학에서 여성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연구되었는지 동향을 정리해보면, 여성문학 관련 논의는 『韓國女性詩文全集』<sup>119)</sup>을 필두로 여성작가와 작품에 관한 개별 연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sup>120)</sup> 이 외에도 한국한문학의 여성문학적 성과와 전망을 제시한 연구<sup>121)</sup> 비롯해 젠더적 측면에서 새로운 연구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sup>122)</sup> 문학사적 측면에서 여성문

117) 부유섭·강문중, 「『綺閣閒筆』 연구」,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pp.435~464.

118) 김여주, 「『綺閣閒筆』을 통한 19세기 여성문학 활동에 대한 일고찰」, 『한문고전연구』 37, 한국한문고전학회, 2018, pp.177~220.

119) 허미자 편, 『韓國女性詩文全集』, 국학자료원, 2003.

120) 여성작가의 개별 문학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신사임당, 이옥봉, 이매창 등 잘 알려진 인물을 대상으로 연구가 축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작가에 대한 연구 성과는 워낙 방대하므로 지면 상의 이유로 생략하였음을 밝힌다.

121) 김명희, 「여성 한문학의 연구사와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창간호, 2000, pp.353~373; 임유경, 「한국한문학의 여성문학적 성과와 전망」, 『한국한문학연구』 37, 한국한문학회, 2006, pp.159~187.

122) 김용태, 「젠더적 시각에 의한 한문학의 재구성 논의에 대한 관견」, 『한국한문학연구』 79, 한국

학사 서술의 문제를 다룬 연구,<sup>123)</sup>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여성문학 양상을 밝히고자 한 연구,<sup>124)</sup> 그리고 최근 여성 한문학 DB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로<sup>125)</sup> 대별된다.

그러나 아직도 조명되지 않은 작가가 다수 존재하며, 자료 역시 종합적인 측면에서 더 분석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먼저 이 장에서는 한문학 속 여성작가와 작품을 개관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 여성문학 작품이 지니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번	여성작가	생몰년	자료명	연번	여성작가	생몰년	자료명
1	昭惠王后	1437~1504	『御製內訓』	22	姜靜一堂	1772~1832	『靜一堂遺稿』
2	金林碧堂	1492~1549	『林碧堂遺稿』	23	黃情靜堂	1779~1849	『情靜堂遺稿』
3	宋德峰	1521~1578	『眉巖日記』, 『柳希春』	24	洪原周	1791~1852	『幽閑集』
4	李玉峰	선조 연간	『玉峯集』	25	淑善翁主	1793~1836	『宜言室卷』
5	許蘭雪軒	1563~1589	『蘭雪軒詩集』	26	金芙蓉	1800~1850 주정	『雲楚堂詩稿』
6	李梅窓	1573~1610	『梅窓集』	27	朴竹西	1817~1851	『竹西詩集』
7	曹愛重	1574~1645	『丙子日記』	28	金錦園	1817~?미상	『湖東西洛記』
8	張桂香	1589~1680	『貞夫人安東張氏實記』	29	綺閣	19세기	『綺閣閑筆』
9	光州 金氏	16세기 말 ~17세기 초	『菊窓先祖妣令人光州金氏逸稿』	30	南貞一軒	1840~1922	『貞一軒詩集』
10	雪竹	16세기 말 ~17세기 초	『雪竹詩』, 『白雲子詩稿』	31	姜澹雲	고종 연간	『只在堂稿』
11	安東 金氏	1632~1702	『安東世稿』	32	徐藍田	1849~1894	『藍田詩稿』
12	李玉齋	1643~1690	『安東世稿』, 『聯珠錄』	33	金淸閑堂	1853~1890	『淸閑堂散稿』
13	金浩然齋	1681~1722	『浩然齋遺稿』	34	崔松雪堂	1855~1939	『松雪堂集』
14	金子念	1698~1715	『杏堂殤姊冤稿』	35	金泠泠	19세기	『琴仙詩』
15	[詩選集] 蔚山 李氏	17세기	『宇珍』	36	月荷, 洞庭春, 上林春, 月中梅, 玉壺春, 嘯春罵, 月中仙, 小雲	19세기	『八仙樓集』
16	吳淸翠堂	1704~1732	『淸翠堂集』	37	吳孝媛	1889~미상	『小坡女史詩集』
17	任允摯堂	1721~1793	『允摯堂遺稿』	38	李九簫	1894~1992	『鳳仙花』
18	申芙蓉	1732~1790	『芙蓉詩選』	39	[詩選集]	대한제국 시기 간행추정	『李朝香奩詩』
19	徐令壽閣	1753~1823	『令壽閣稿』	40	[詩選集]	1918년 간행	『大東詩選』
20	李師朱堂	1739~1821	『胎教新記』	41	[詩選集]	1919년 간행	『海東詩選』
21	金三宜堂	1769~1823	『三宜堂稿』	42	[詩選集]	1920년 간행	『東洋歷代女史詩選』

표1. 한문학 속 여성문학 개관<sup>126)</sup>

한문학회, 2020, pp.9~30; 박영민, 「한문학과 여성, 그리고 명령과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79, 한국한문학회, 2020, pp.31~57.

123) 박무영, 「21세기 한국한문학사 서술의 여러 문제 -여성문학사의 입장에서-」, 『한국한문학연구』 64, 한국한문학회, 2016, pp.187~214.

124) 문희순, 「호서지역 여성 한문학의 사적 전개」, 『한국한문학연구』 39, 한국한문학회, 2007, pp.85~116.

125) 장진엽, 「한국 여성 한문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 검토-〈明清婦女著作(Ming Qing Women's Writings)〉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문학논집』 63, 근역한문학회, 2022, pp.185~218.

126) 한문학 속 여성문학 개관은 기본적으로 『韓國女性詩文全集』을 중심으로 하되, 장진엽의 최근



위 표는 한문학에서 확인되는 여성문학을 개관한 것인데, 이 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의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개별 작가의 시문학적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문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문집이 남아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 글에서 다루는 綺閣의 『綺閣閒筆』을 비롯해 任允摯堂의 『允摯堂遺稿』, 幽閑堂 洪原周의 『幽閑集』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홍원주의 『幽閑集』과 관련한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면, 홍원주의 경우 19세기 여성작가로 194首의 작품을 남긴 바 있으므로 시세계의 특징이 다방면으로 규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27)</sup> 이처럼 개인 문집이 존재하는 경우, 여성작가 역시 남성작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측면에서 시세계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겠다.

두 번째로는 여성 詩會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月荷, 洞庭春, 上林春, 月中梅, 玉壺春, 嘯春鸞, 月中仙, 小雲이 지은 작품이 수록된 『八仙樓集』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문집은 기녀들의 여성 사회를 보여준다고 하겠다.<sup>128)</sup> 여성문학의 경우 사회의 모습이 포착되는 문집이나 자료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나, 여성 사회로 잘 알려진 三湖亭詩會<sup>129)</sup>와 유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학적 측면에서 여성문학 전개의 또 다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세 번째로는 詩選集 형태로 전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시선집 역시 두 가지 양상으로 대별 가능한데, 먼저 『大東詩選』과 같이 우리나라의 역대 시를 시대순으로 모아 엮은 형태가 있으며, 『宇珍』과 같이 가문을 중심으로 蔚山 李氏의 작품들만을 수록한 시선집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이 표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별도로 자신의 문집을 가지고 있거나 시선집에 수록된 형태가 아닌 산재되어 있는 여성문학 작품을 들 수 있다. 남성의 문집에 수록된 경우 남아있는 작품 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이러한 양상 역시 여성문학의 특징이라고 언급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여성문학의 여러 양상 중 하나이자 개별 문집 형태로 남아있는 綺閣의 『綺閣閒筆』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서지 사항에 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바 있으므로 여성문학이라는 측면에서 포착할 수 있는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구성하고, 필자가 찾은 자료들을 추가하여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지면을 빌려 목록 구성에 도움을 주신 장진엽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허미자 편, 『韓國女性詩文全集』, 국학자료원, 2003; 장진엽, 「한국 여성 한문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 검토-〈明清婦女著作(Ming Qing Women's Writings)〉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문학논집』 63, 근역한문학회, 2022, pp.200~201.)

127) 하지영, 「시인의 꿈과 단념, 유한당 홍원주」, 『이화어문논집』 37, 이화어문학회, 2015, pp.163~175; 김기림, 「유한당 홍원주의 한시 학습 양상과 시세계 고찰」, 『인문사회 21』 12,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pp.1083~1095.

128) 박영민, 「팔선회(八仙會)의 수계(修禊)와 『팔선루집(八仙樓集)』의 편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9, pp.133~163; 임보연, 「『팔선루집(八仙樓集)』에 나타난 자부(自負)와 연대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0, pp.115~138.

129) 19세기 전반 한양에서 雲楚, 瓊山, 錦園, 瓊春, 竹西 등이 모여 사회를 열었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다수 축적된 바 있다. 金智勇, 「三湖亭詩壇의 特性과 作品」, 『아세아여성연구』 16,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77, pp.105~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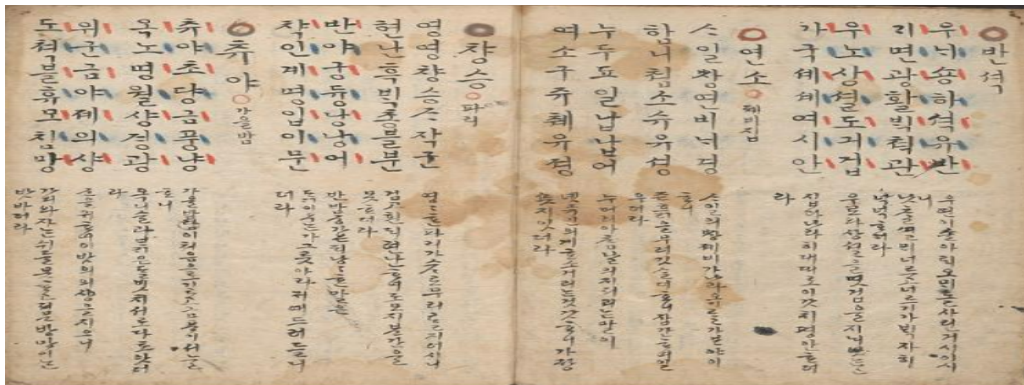


그림1. 綺閣의 『綺閣閒筆』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이에 특징적인 점을 논의해보면, 첫 번째로는 제목의 특이성을 들 수 있다. 『綺閣閒筆』은 '~集'이나 '~遺稿'라는 명칭이 아닌 '閒筆' 형태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제시한 <표1>을 살펴보면 '閒筆'과 같은 형태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표기 방법의 특징을 들 수 있다. 『綺閣閒筆』에 수록된 작품은 漢詩이지만,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자 표기 없이 음만이 적혀있고 하단에 해석이 함께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를 통해 한시에 대한 원형을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이다.<sup>130)</sup> 한시를 한글 음으로 적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방식은 18세기 초 의령 남씨의 『의유당유고』와 19세기 청송 심씨의 『호연재유고』에서 확인되는데,<sup>131)</sup> 기각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綺閣閒筆』의 접근성을 염두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는 서지적 특징을 들 수 있다. 『綺閣閒筆』은 기각의 작품 221題 247首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다수의 漢詩가 담긴 한시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어떤 詩句에는 朱墨과 靑墨으로 시구가 잘된 곳은 批點을 하거나 貫珠를 치고 있다는 점에서 비평 작업이 함께 이루어진 한시집이라는<sup>132)</sup> 특징을 보인다.

### 3. 『綺閣閒筆』의 몇 가지 특징적 양상

#### 3.1. 작가와의 同類意識 표출, 그리고 시적 만남

이 장에서는 綺閣의 『綺閣閒筆』에서 확인 가능한 작가와의 同類意識 표출 양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기각이 활동한 19세기에 이르면 여성문학은 이전 시기와 달리 적극적인 면모들이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기각 역시 이러한 시기적 맥락 속에서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기각의 작품에서는 여성작가와 동류의식을 표출하거나, 詩社나 詩會 형태라고까지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시적 모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여성문학이 규방이라는 제약된 공간을 벗어나 발전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30) 『綺閣閒筆』,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임치균·부유섭·강문중 역주, 『綺閣閒筆』,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pp.1~372.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복원한 漢詩 작품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131) 김여주, 「『綺閣閒筆』을 통한 19세기 여성문학 활동에 대한 일고찰」, 『한문고전연구』 37, 한국한문고전학회, 2018, p.215.

132) 부유섭·강문중, 「『綺閣閒筆』 연구」,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p.439.

첫 번째로 포착되는 특징은 錦園(1817~1850 이후)과의 시적 교류 양상을 들 수 있겠다. 『綺閣閒筆』에는 유독 금원의 작품에 차운한 것이나 금원에게 준 작품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러한 작품은 우선 일차적으로 여성작가와와의 교류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기각이 자신과 여성작가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一雨成霖苦不晴  
溪水新漲作波聲  
試看箬笠綠蓑者  
臨流水釣足閑情

한번 내린 비가 장마 되어 괴롭게도 개지 않으니  
시냇물이 새로 불어 물결소리 만들어 내는구나  
대삿갓을 쓰고 푸른 도롱이를 입은 자를 보라  
흐르는 물에 낚시 드리웠으니 한가한 뜻이 넉넉하구나<sup>133)</sup>

이 작품은 <雨中作詩四首 次錦園韻>으로 금원의 시에 차운하여 빗속에서 쓴 시 4首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을 인용한 것이다. 원운시 작가인 금원은 조선시대 여성작가 중 한 명이자 綺閣의 조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아울러 금원은 최초 여성 詩叢로 알려진 三湖亭에서 시회를 연 문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이 작품을 통해서도 기각이 문학적 재능을 겸비한 금원의 시에 차운하며 그와 시적 교류를 이어온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위에 인용한 첫 번째 수는 빗속에서 쓴 작품을 가져온 것인데, 이후 기각은 두 번째 수에서 이튿날의 비를 포착하고, 세 번째 수에서는 비가 갠 모습을 시에 담아냈으며, 네 번째 수에서는 비 갠 후의 달을 읊은 바 있다. 평범한 소재를 활용하되 비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4首의 시로 구현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七言絶句의 형태로 작시하였는데, 기구와 승구에서는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는 동시에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 불어난 시냇물을 그려낸 것이다. 전구에 이르면 시상이 전환되는데, 앞서 기각이 기구에서 ‘苦不晴’이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장마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데 치중했다면, 전구와 결구에는 기각의 시선이 대삿갓 쓰고 도롱이를 입고 낚시하는 사람에게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기각은 이 풍경 속에서의 감회를 ‘足閑情’이라고 읊으면서 비 내리는 가운데 낚시하는 이의 한가한 뜻을 시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기각의 시문학적 재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각의 원운시에 차운했다는 점에서 작가적 측면에서 이들의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후 기각은 네 번째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금원과의 同類意識을 표출하기도 하였는데, <雨晴微月次韻> 전구와 결구에서 ‘지난밤에는 이 달빛을 보지 못하였더니, 오늘밤 비추어서로 마주하니 기쁘구나(昨夜不見此月光, 今夜來照喜逢迎)’라고 하여 달을 매개체로 하여 자신과 금원이 모두 이 달빛을 바라보고 있음을 읊은 바 있다.

愛君閨中擅文華  
不讓班蔡兩大家  
送來新詩盡驚人  
一吟芳香滿頰牙

그대 규중에서 문장 재주 펼침을 아꼈는데  
반소 채염 두 대가에 결코 뒤쳐지지 않아서라네  
보내온 새로운 시들이 모두 사람을 놀라게 하니  
한번 읊으면 꽃다운 향기가 입안에 가득하다네<sup>134)</sup>

다음으로 살펴볼 시는 기각이 금원에게 준 작품인 <贈錦園>인데, 이를 통해서도 이들이

133) 綺閣, 『綺閣閒筆』, <雨中作詩四首 次錦園韻>.

134) 綺閣, 『綺閣閒筆』, <贈錦園>.

시적 교유를 지속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나아가 기각이 금원의 문학적 재능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작품에는 금원이 기각의 조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이들의 관계를 비정할 수 있다.

작품을 살펴보면, 우선 기구와 승구에서는 규방에서 훌륭한 문학적 재능을 지닌 금원이 漢나라 때 班固의 누이동생인 班昭와 後漢 때 蔡邕의 딸인 蔡琰에 견줄만 함을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소와 채염은 여성 문장가들로 이름난 이들이었기에 기각은 이들을 들어 금원의 문학적 재능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서 전구와 결구에서는 작시 능력을 언급하였는데,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좋은 시를 지었음을 말하였다. 이는 杜甫의 〈江上值水如海勢聊短述〉 작품 가운데 ‘나는 성질이 아름다운 시구를 지나치게 좋아하여, 남을 놀라키지 못하면 죽어도 마지않네(爲人性癖耽佳句, 語不驚人死不休)<sup>135)</sup>’라는 구절에서 가져온 것이다. 아울러 한번 읊으면 꽃향기가 입안 가득하다고 읊음으로써 금원의 작품이 함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경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기각은 규방에서 문학 활동을 하는 금원과의 同類意識을 표출하는 동시에 여러 전고를 활용해 그의 문학적 재능을 언급함으로써 여성작가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蔡女蘇妹可並名	채염, 소소매와 이름 나란히 하니
紅閨青燈照眼明	붉은 안방 푸른 등잔 눈에 비쳐 밝구나
寧不吟詩吟必奇	차라리 시 읊지 않을지언정 읊으면 반드시 기이하니
幾將新句使人驚	몇 번이나 새 시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又	
不意巾幗有此詩	여자에게 이런 시가 있을 줄 생각도 못했는데
却恨此詩少人知	도리어 이 시를 알아주는 사람 적은 것이 안타깝네
何日相逢錦園中	어느 날에 비단동산에서 함께 만나
共吟花朝月夕時	꽃 피는 아침과 달 뜨는 저녁 때에 함께 읊겠는가 <sup>136)</sup>

이 작품은 〈錦園次韻 二首〉로 먼저 1수를 살펴보면, 기구는 後漢 때 蔡邕의 딸인 蔡琰과 蘇東坡의 누이동생인 蘇小妹를 들어 금원의 문학적 역량을 드러낸 것이다. 俗傳 따르면 소소매 역시 시를 잘 지었다고 전해지므로, 기각은 금원의 재능을 이들과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각은 금원이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뛰어난 재주를 겸비했음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2수를 살펴보면, 기구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쓰는 수건과 장식을 지칭하는 시어인 ‘巾幗’을 활용하여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동시에 여성이 지닌 뛰어난 시적 능력을 강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승구에 이르면 이러한 시를 알아주는 이가 적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여성작가로서의 同類意識을 표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구와 결구에서는, 비단동산에서 꽃 피는 아침 달 뜨는 저녁의 흥취를 어느 때에 함께 읊을 수 있겠느냐고 언급함으로써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보았을 때도 이들이 여성작가라는 同類意識 속에서 시적으로 소통 가능한 관계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詩社와 詩會 형태라고까지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시적 모임이 확인된

135) 杜甫, 『杜少陵詩集』 卷10, 〈江上值水如海勢聊短述〉, “爲人性癖耽佳句, 語不驚人死不休. 老去詩篇渾謾興, 春來花鳥莫深愁.”

136) 綺閣, 『綺閣閒筆』, 〈錦園次韻 二首〉.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성 시사의 등장은 당시 여성문학이 규방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sup>137)</sup> 이러한 점과 맥락을 같이하여 살펴본다면 시적 모임 역시도 여성문학의 일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南溪水碧又沙明  
閑趣何如做公卿  
燕子雙飛盃中影  
鶯兒自來楊上聲  
天際雨歇紅霞泛  
山頭雲捲白日清  
忽至過客何處自  
兩人相對愜詩情  
又

暇日溪邊坐詩壇  
槐柳蔥蘢水氣寒  
綠陰自翳薜蘿衣  
清風時拂接蘿衣  
緣堤秧綠水欲暖  
看山花稀春已殘  
河橋夕陽送客歸  
獨向灘頭垂釣竿  
又

客來滿酌鬱金漿  
高樓登臨清風涼  
平堤秧針依水綠  
滿野麥浪向陽黃  
陌頭棗花猶未落  
庭畔桐葉漸看長  
分手悠悠心悄悄  
樽前月下不能忘  
又

閑坐長嘯復彈琴  
泠泠七絃自清音  
山榴花落飛紅雨  
溪柳煙鎖漲綠陰  
澹雲輕靄繞山頭  
孤舟魚竿泛江心  
離家十年又一春  
耿耿每欲故園尋

남녘 시냇물 푸르고 또 모래사장 맑았으니  
한가한 흥취, 벼슬아치 되는 것과 어떠한가  
제비는 쌍으로 날아 술잔 속에 그림자 비치고  
피꼬리는 절로 와 버들 위에서 지저귀네  
하늘가 비가 그치니 붉은 노을이 뜨고  
산머리 구름이 걷히자 흰 해가 개었더라  
갑자기 어디서 온 과객이 이르러  
두 사람 마주하니 시정이 어우러지네

한가한 날 시냇가 시 짓는 단에 앉았더니  
느티나무, 버드나무 우거지고 물기운 차네  
녹음은 절로 덩덩이웃을 가리우고  
맑은 바람은 때로 접리관을 스치네  
두령을 따라 모가 푸르니 강물이 따뜻해지고  
산을 보매 꽃이 드무니 봄은 이미 다하였네  
물가 다리에서 석양에 객을 보내고  
홀로 여울 가에서 뉘싯대를 드리우네

손이 오자 올금술이 잔에 가득하고  
높은 누대에 올라 보니 맑은 바람이 서늘하네  
평평한 두둑의 갓 자란 모는 물에 기대서 푸르고  
들 가득히 보리 물결은 별을 향하여 누르렀네  
언덕머리의 대추꽃은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뜰 두둑의 오동잎 점점 자라나네  
유유히 서로 헤어지니 마음은 슬프지만  
달 아래 술잔 나누던 일 결코 잊지 않으리

한가로이 앉아 길게 휘파람 불고 다시 거문고를 타니  
영령한 일곱 줄 절로 소리가 맑구나  
산에 석류꽃 떨어지니 붉은 비가 나는 듯하고  
 시내 버들이 내에 잠겨 녹음이 짙었더라  
맑은 구름과 가벼운 안개 산머리에 둘러 있고  
뉘싯대 드리운 외로운 배는 강 가운데 떠 있네  
집 떠난 지 열 해 또 봄을 맞으니  
그리운 마음 매번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라<sup>138)</sup>

137) 장산, 「삼호정시사(三湖亭詩社) 구성원들의 자의식 고찰」, 『한국어문교육』 2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p.202.

이 작품은 <南溪小集>이라는 시제로 창작된 七言律詩 4首 전문을 인용한 것이다. 남녘 시내 작은 모임이라는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는 적은 인원이 모여 시적 모임을 가지게 되면서 창작되었다고 하겠다. 모임의 목적과 참여 인원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모임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유흥의 측면에서 시상을 공유하고 시를 창작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남성작가들의 시적 모임과 결을 같이함을 볼 수 있다.

첫수는 남녘 시냇가에서의 흥취를 읊는 동시에 주변 경물과 풍경을 시 안에 옮겨둔 것인데, 마지막 구절에 이르면 詩情을 나눌만한 이와 함께 시적으로 교류하는 면모도 포착할 수 있다. 두 번째 수 역시 한가한 날에 시를 짓는 모습이 담겨있으며, 첫수와 시상이 이어지는 동시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를 연달아 창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세 번째 수 역시 울금초로 만든 술을 함께 마시며 흥취를 나누고 난 뒤 헤어지는 과정까지를 시로 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에 이르면 기각의 모임이 끝나고 난 뒤의 감정을 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외로움과 그리움이 시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실제로 기각은 10여 년 동안 고향을 떠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품 외에도 <偶吟>이라는 작품에서 '금려에서 올 때는 푸른 귀밑머리 청춘이었으나, 어느덧 열 해 지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네(金廬來時綠鬢春, 遽然十載不歸鄉)'라고 읊은 바 있다.

종합해보면, 이 작품은 시적 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며, 남성 작가들의 시 모임과 다를 바 없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기각 역시도 모임을 통해 시흥을 나누고 이를 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4首를 유기적으로 엮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상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냈다는 점에서 작품성도 인정할 수 있겠다.

### 3.2. 창작자의 근본적 욕망, 한계를 넘어

이 장에서는 창작자의 근본적인 욕망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는 기각이 창작활동에 대한 자의식을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작업과도 연계된다. 문학적 표출, 그리고 자신에 대한 표현은 인간 본연의 욕망인데, 기각의 경우 여성이라는 한계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시로 표현해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역시나 여성의 자의식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여성 작가가 어떻게 자신을 인지하고 있으며, 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피는 작업은 그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其三

芳草岸邊路逶迤  
漁翁垂釣坐澤陂  
雲容浮空疊奇巒  
桂影照潭漾疎枝  
頭髮星星少年心  
綠水滾滾歲華移  
平生自有男兒志  
只歎閨中巾幗垂

꽃다운 풀 난 언덕가의 길이 구불구불하니  
어옹이 낚시를 드리우고 못 언덕에 앉았네  
구름은 공중에 떠 첩첩이 쌓이고  
계수 그림자는 못에 비쳐 성긴 가지가 출렁이네  
머리털은 성성하나 마음은 소년이고  
푸른 물은 곤곤하여 세월만 흐르네  
평생 절로 남아의 뜻이 있으되  
다만 규방 가운데 여인네 머리쓰개 쓴 것을 탄식하노라<sup>139)</sup>

138) 綺閣, 『綺閣閒筆』, <南溪小集>.

139) 綺閣, 『綺閣閒筆』, <偶吟>.

이 시는 <偶吟> 11首 가운데 세 번째 작품을 인용한 것인데, 우연히 시를 읊조리는 가운데 기각이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미련 부분을 통해 단적으로 이와 같은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각은 평생 남자의 뜻을 품었으나 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머리가 하얗게 변해가고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기각이 자신의 한계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문학적 재능을 지녔어도 이를 펴지 못하고 규방이라는 제약된 공간에 머물러야 했던 당대 여성의 한계, 그리고 여성작가로서의 한계가 잘 드러나 있다.

天降我才必有用  
古來賢哲皆勞心  
恨爲女子又無成  
頭髮星星誰能禁  
以手撫膺坐長歎  
殘燈明滅夜已深  
忽聞子規啼空山  
轉喉弄舌吐哀吟  
夜夜不息夜半啼  
有使愁人淚沾襟  
明月看從海上來  
誰知曉向雲間沈  
一朝臥病無相識  
滔滔世情古猶今  
心如浮雲無定處  
從自遲遲故園尋

하늘이 내 재주를 내심에 반드시 쓸 데 있건마는  
예로부터 현철한 이는 다 마음을 수고로이 하였네  
여자로 난 것도 한인데 또 이룬 것도 없으니  
희끗희끗한 머리털 누가 막으리오  
손으로 가슴 만지며 앉아 길게 탄식하니  
쇠잔한 등잔불 깜빡거리며 밤은 이미 깊었네  
홀연 들으니 자규가 텅 빈 산속에서 울며  
목청을 굴리고 혀를 놀려 슬픈 소리 뱉어내네  
밤마다 쉬지 않고 울어  
시름겨운 이, 눈물로 옷깃 적시네  
바다 위로 떠오른 밝은 달이  
새벽에 구름 사이에 잠길 줄 누가 알았으리오  
하루아침에 병들어 누우매 서로 알 리 없으니  
도도한 세상 정이 예나 지금이나 같구나  
마음은 뜬구름 같아 정한 곳 없으니  
이로부터 고향 찾기가 더디고 더디구나<sup>140)</sup>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自歎>으로, 2首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을 인용한 것이다. 이 시는 시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을 탄식하며 쓴 작품이므로 기각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 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에 1~4구에서는 기각이 재주를 타고났으나 쓰이지 못했음을 언급하는 동시에 여자로 태어난 것이 恨이라고까지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5~8구에서는 주변의 모든 경물이 슬픈 情景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깊은 밤 홀로 탄식하는 기각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나아가 9~12구에 이르면 감정이 더욱 심화되 어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바다 위로 떠오른 밝은 달이 구름 사 이에 잠길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묻고 있는데, 이는 재능을 지녔으나 세상에 재능을 알릴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13~16구에서는 마음의 안 식처를 찾지 못하고 뜬구름과 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자신의 한을 읊었으며, 특히 여성작가로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 대하여 토로한 것이라고 하겠다. 19세기에 이르면 여성작가가 이전 시기보다 자유롭 게 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남성에게 비해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 지 못하고 규방에서 살아가야 하는 당대 여성의 삶이 지니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

140) 綺閣, 『綺閣閒筆』, <自歎>.

여준다.

여자는 세상과는 절연된 깊은 규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탓으로 스스로 그 총명과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마침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마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나는 關東의 蓬萊 사람이다. 스스로 금원이라 호를 하였는데, 어려서 잔병이 많아 부모가 이것을 불쌍하게 여겨 여자가 하여야 할 가사나 바느질은 가르치지 않고 글공부를 시켰다. 글을 공부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경사를 대략 통하게 되고古今의 문장을 본받아 배워 흥이 나면 때때로 시문을 짓기에 이르렀다. 조용하게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 금수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문명국가에 태어난 것도 다행이다. 그러나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불행이다.<sup>141)</sup>

기각의 작품과 연계하여 살펴볼 작품은 錦園의 「湖東西洛記」로, 금원 역시 여성작가로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토로한 바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용문은 금원의 자의식이 발현된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 금원 역시도 문학적 재능을 지니고 산수 문학 작품 외에도 여러 한시를 창작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각과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수로 태어나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나,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난 것은 불행이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당대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한계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이 여성작가로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평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또 이를 문학적으로 승화했다는 점은 이전 시기에 비해 여성작가가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一別遽然近十霜  
君我相思空馳神  
俱是深閨女子身  
巾車命駕無由得  
迢迢驛路三百里  
但以詩句寄永懷  
瓊什鏗鏘有金聲  
自愧俚音似投瓜

한 번 이별에 어느덧 십 년이 되었는데  
그대와 내가 그리움에 부질없이 정신만 내달렸더라  
모두가 깊은 방 규수의 몸으로  
작은 수레 타려 해도 탈 방법이 없구나  
멀고 먼 역로 삼백 리  
다만 시구로 긴 회포를 부친다  
쟁그랑 쟁그랑 구슬 같은 작품에  
질로 낮은 소리가 모과 던지는 것 같음을 부끄러워하노라<sup>142)</sup>

이 시는 <贈錦園姪女>인데 여기에서도 여성의 한계가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 규방 여자의 몸으로 작은 수레를 타려고 해도 탈 방법이 없다는 부분에서 당대 여성이 지니고 있었던 제약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기각이 다만 멀고 먼 거리를 앞에 두고 시를 지어 보내며 회포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1) 錦園, 「湖東西洛記」, '抑深居閨中, 無以自廣其聰明識見, 而終歸於泯泯沒沒, 則可不悲哉. 余關東蓬萊人也. 自號錦園, 兒小善病, 父母愛憐之, 不事女工, 教以文字. 日有聞悟, 未幾年, 略通經史, 思效古今文章. 有時乘興, 題花詠月. 竊念吾之生也, 不爲禽獸而爲人, 幸也. 不生於薙髮之域而生於吾文明之邦, 幸也. 不爲男而爲女, 不幸也.'

142) 綺閣, 『綺閣閒筆』, <贈錦園姪女>.



(1)

長人宅中小書樓  
君我同學不暫休  
門前雲山面面出  
林外石澗曲曲流  
開硯石榴花發時  
分袂梧桐葉落秋  
萍鄉蹤迹離還合  
明年重尋此日遊

어르신 계신 집 글 배우는 누대에  
그대와 내가 함께 배움에 잠시도 쉬지 않았네  
문 앞에는 구름산이 면면히 나오고  
숲 밖 돌 많은 시내는 굽이굽이 흘러가네  
석류꽃 피는 때 시작하여  
오동잎 떨어지는 가을에 이별하였네  
조그마한 동네에서 행적은 떠났다가 도리어 만나게 되니  
내년에 다시 이날 놀던 곳을 찾으리라<sup>143)</sup>

(2)

詩禮名家苗裔垂  
門戶惟汝一孤兒  
教無三遷愧爲母  
學有六經幸從師  
須臾遊戲誤平生  
遠大成就及此時  
書中金屋千鍾粟  
格言曾聞古人詩

시예로 이름난 집 자식으로  
문호는 오직 너 외로운 아이에게 달려있네  
가르침에 세 번 옮겨 다닐 수 없음에 어미로서 부끄럽고  
육경을 배우고 익히는데 다행히 스승을 좇는구나  
잠깐 사이라도 놀게 되면 평생을 그르치게 되니  
원대한 성취는 이때에 맞춰하라  
책 가운데 황금 집과 곡식 천 종이 있던 말  
이 격언을 일찍이 옛사람의 시에서 들었노라<sup>144)</sup>

그렇다면 기각이 여성작가로서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고자 하였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기각은 학문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버리지 않고 학문에 매진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살펴볼 인용문 (1)은 <罷接>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도 기각이 학문적 모임을 가져왔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시 문면에 함께 공부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으나 배움을 잠시도 쉬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문에 대한 기각의 갈망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용문 (2)는 <勸學贈兒子>로 시체에 드러나듯이 배움을 권하며 아들에게 준 작품이다. 당시 여성으로 자식의 학업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표명한 작품이 많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기각은 상당히 당대 여성들과는 차별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기각은 여성으로 여러 운명적 한계에 직면하였으나, 학문, 그리고 문학에 대한 열망을 창작으로 풀어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시대적 한계를 일부 극복하였다고 평할 수 있겠다. 아울러 자신의 삶에 대한 자각, 창작에 대한 인간 본연의 열망,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는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제약을 넘어설 수 있다.

### 3.3. 같고 다른 미학, 遊仙詩 창작과 그 의미

綺閣의 작품을 살펴보면 신선 세계에 대한 언급이 자주 포착된다는 특징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遊仙詩는 작가가 신선과 함께 또는 신선이 되어 선계를 노니는 작품,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세계를 묘사한 작품을 지칭하는데,<sup>145)</sup> 이 장에서는 기각의 시에서 이와 같은 면모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사실상 여성문학에서만 포착되는 독특한 특징이

143) 綺閣, 『綺閣閒筆』, <罷接>.

144) 綺閣, 『綺閣閒筆』, <勸學贈兒子>.

145) 윤재환, 「깨어지는 꿈, 仙遊의 환상- 朝鮮 後期 遊仙詩의 성격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시가연구』 51, 한국시가학회, 2020, P. 69.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답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기각의 작품만 하더라도 일상에 대한 치밀한 묘사, 감정 발현의 다기한 양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작가의 창작물 측면에서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더 많이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성문학만이 지니고 있는 다름의 미학을 찾는다면 유선시 창작의 전통과 계승 양상을 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許蘭雪軒(1563~1589)의 경우 자신의 선계 체험을 노래한 유선시 11題 99首를 창작한 바 있는데<sup>146)</sup> 이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기각의 유선시 계열 작품 역시 이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기각의 시세계에서 확인되는 첫 번째 특징으로는 신선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遊仙詩는 주로 신선, 선계, 불사약, 전설, 신화 등이 소재나 주제로 선택되며, 신화적 인물의 행동이나 상태, 장면 등이 기술됨을 감안한다면,<sup>147)</sup> 이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하겠다.

(1)

此花名仙落人間  
知是全身鍊金丹  
美人手摘香葩盡  
夜夜紅染玉指端

이 꽃이 신선으로 인간 세상에 떨어졌다는 이름이니  
알겠노라, 온몸이 황금 단약으로 만들어졌음을  
아름다운 여인이 손으로 향기로운 꽃부리를 모두 따서  
밤마다 옥같은 손가락 끝에 붉은 물을 들이네<sup>148)</sup>

(2)

天上碧桃瑤池邊  
團圓一結三千年  
曼倩偷來金母宴  
遺種人間只今傳

천상의 요지 가에 푸른 복숭아  
둥글고 둥글어서 삼천년에 한번 열매를 맺네  
만천이 서왕모의 잔치에서 훔쳐다가  
씨를 남겨 인간 세상에 지금까지 전하더라<sup>149)</sup>

작품 (1)은 기각이 창작한 <鳳仙花>이며, 작품 (2)는 <碧桃>이다. 시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선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재인 봉선화와 복숭아를 대상으로 시를 창작함으로써 시 전체가 신선 세계로 치환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작품 (1)은 봉선화의 신선적인 이미지를 그려내면서도 여인들이 봉선화로 손톱을 물들이는 풍속을 언급하여 그 행위 자체를 환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다음으로 작품 (2)는 복숭아를 소재로 시를 창작한 것인데, 『漢武故事』에 이 작품의 내용과 관련된 고사가 보인다. 여기에서는 西王母가 仙桃 7개를 가지고 와서 무제에게 5개를 주고 자기가 2개를 먹었는데, 무제가 그 씨를 심으려 하자, 서왕모가 ‘이 복숭아나무는 3천 년 만에 한 번 꽃이 피고 3천 년 만에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이 복숭아가 세 번 열매를 맺었는데, 東方朔이 세 번 훔쳐 먹었습니다.’라고 한 바 있다. 이에 기각은 신선 세계와 관련된 복숭아를 읊어 유선시를 창작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선시 창작에 대한 기각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146) 강민경, 「허난설현의 유선문학(遊仙文學)에 나타난 시간 이미지 고찰」, 『도교문화』 40, 한국도교 문화학회, 2014, p.132.

147) 강명혜, 「허난설현 遊仙詩의 색채 미학적 특성 - 중국 및 조선조 여타 유선시와의 색채 미학적 특성 비교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46, 온지학회, 2016, p.17.

148) 綺閣, 『綺閣閒筆』, <鳳仙花>.

149) 綺閣, 『綺閣閒筆』, <碧桃>.

華表歸來訪仙群  
萬古羽毛一片雲  
戛然長鳴橫江去  
散入春風處處聞

화표로 돌아와 신선의 무리를 찾으니  
만고의 새가 한 조각 구름 사이로 날았네  
끼룩끼룩 긴 울음소리 강을 건너가니  
봄바람 실려 흩어져 곳곳에서 들리네<sup>150)</sup>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鶴>인데, 기각은 학이라는 소재를 활용하면서 華表柱의 학을 언급해 신선 세계의 이미지를 시에 담아내었다. 「搜神後記」에 따르면 丁令威가 신선이 되고 나서 천 년 만에 학으로 변해 다시 고향을 찾아와서는 요동 성문의 화표주 위에 내려앉았는데, 소년 하나가 활을 쏘려고 하자 허공으로 날아올라 배회하면서 “옛날 정 영위가 한 마리 새가 되어, 집 떠난 지 천 년 만에 이제 처음 돌아왔네. 성곽은 의구한데 사람은 모두 바뀌었나니, 신선술 왜 안 배우고 무덤만 이리도 즐비한가(有鳥有鳥丁令威, 去家千年今始歸. 城郭如故人民非, 何不學仙冢纍纍.)”라고 탄식하고는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한다. 이에 기각이 이 전설을 언급하는 동시에 신선 세계를 상징하는 소재를 사용해 유선시를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신선 세계에 대한 이미지가 구현된 작품을 들 수 있다. 기각의 경우 일반적인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그 경관을 모두 신선 세계로 환치시키는 방식으로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1)

舉頭亭亭列眼前  
五老峯青遠沈烟  
雲外秀出依稀看  
疑是三山會遊仙

머리 들때 우뚝 솟은 것이 눈앞에 펼쳐지니  
푸르른 오로봉에 멀리 안개가 잠겼더라  
구름 밖으로 높이 솟아 어렴풋이 보이는데  
아마도 삼산에서 놀던 신선이 모였는가 보다<sup>151)</sup>

(2)

春江虛明中流分  
遊船輕泛波生紋  
水底青天共一色  
疑是群仙坐白雲

봄 강물이 텅 비고 밝아 강 한복판이 나뉘니  
놀잇배가 가볍게 떠가며 물결무늬 만드느구나  
물속 푸른 하늘이 함께 한 빛깔을 이루니  
의심컨대 모든 신선이 흰 구름 위에 앉은 듯하다<sup>152)</sup>

먼저 작품 (1)을 살펴보면, 이 시는 <雲外山>으로 구름 위로 솟은 산을 읊은 것인데 정확히 어떤 산을 지칭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안개에 잠긴 산을 三神山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신선들이 사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작품 (2)는 <春水船如天上坐>로 봄날 강 위에서 배를 띄우며 노니는 정취를 시로 읊은 것인데, 물속에 푸른 하늘이 비취 한 빛깔로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풍경을 포착하는 동시에 이 경관을 신선 세계로 전환시켰다. 나아가 그 공간에서 배를 타고 있는 자신 역시도 신선으로 치환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유선시 창작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들을 통해 보았을 때 기각은 신선 세계라는 공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환상적인 세계로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遊仙이라는 행위 자체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없

150) 綺閣, 『綺閣閒筆』, <鶴>.

151) 綺閣, 『綺閣閒筆』, <雲外山>.

152) 綺閣, 『綺閣閒筆』, <春水船如天上坐>.

는 이상세계를 찾는 것임을 염두한다면 기각은 단순히 현실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불가능의 세계인 선계에 두고자 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sup>153)</sup> 나아가 기각의 경우 유선시를 창작함으로써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이상향의 세계 속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안식과 위안을 얻고자 했다고도 추정할 수 있겠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신선 세계를 표상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활용하여 선계 이미지를 구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坐愛楓林玉露寒  
如過僊竈取燒丹  
漁翁休覓桃園路  
不獨武陵春滿山

앉아서 단풍 숲에 옥 이슬 찬 것을 사랑하나니  
신선의 부엌을 지나다가 사른 선단을 얻은 듯하네  
어부는 무릉도원 가는 길을 찾지 말게나  
유독 무릉의 봄만 산에 가득한 것이 아닐 것이니<sup>154)</sup>

위에 인용한 작품을 먼저 살펴보면, 시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풍을 시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먼저 기구를 통해서는 기각이 단풍 숲에 옥 이슬이 맺힌 모습을 아름답게 여겨 이 작품을 창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풍의 일반적인 모습은 승구에 이르면 신선이 만든다고 하는 仙丹의 이미지로 바뀌어 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전구, 결구에서는 기각이 이 경관 자체를 武陵桃源으로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구는 陶淵明의 「桃花源記」와 연결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어부가 시내를 따라 가다가 길을 잃고 복사꽃이 물에 떠 있는 것을 보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 무릉도원을 만났는데 그곳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온 뒤 다시 찾아가 보려 했으나 결국 길을 잃고 헤매기만 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에 기각은 어부는 무릉도원 가는 길을 다시 찾지 말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도화꽃 만발한 봄에만 무릉도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함으로써 단풍 든 이 공간 역시 신선 세계임을 재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각은 신선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신선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구현하거나 신선 세계를 표상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활용하여 선계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을 활용하여 遊仙詩를 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기각의 유선시에서는 감정이나 생각이 시의 문면에 직접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으나, 기각 역시도 유선시를 창작함으로써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것들을 신선 세계라는 환상적인 공간을 통해 위로받고자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 4. 맺음말

이 글은 한문학 속 여성문학의 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여성작가 綺閣의 『綺閣閒筆』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필자는 먼저 ‘여성문학’을 당대 시대의 특수성을 내포한 보편적인 한 인간의 기록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2장에서는 한문학 속 여성문학을 개관하기 위해 먼저 한문학에서 여성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연구되었는지 동향을 정리해보았다. 나아가 한문학 속 여성작가와 작품을 개관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 여성문학 작품이 지니는 특징을 분류하였다. 이에 개별 작가의 시문학적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문집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여성 시회의 모습을 엿볼

153) 윤재환, 「깨어지는 꿈, 仙遊의 환상- 朝鮮 後期 遊仙詩의 성격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시가연구』 51, 한국시가학회, 2020, p.67.

154) 綺閣, 『綺閣閒筆』, <丹楓>.

수 있는 자료가 있어 특징별로 분류 가능함을 밝혔다. 또한 詩選集 형태로 전하는 경우, 각 문집에 산재되어 있는 여성문학 작품으로 대별됨을 논하였다. 이러한 특징 아래 綺閣의 『綺閣閒筆』이 여성문학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폈는데, 제목의 특이성, 표기 방법, 서지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함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綺閣閒筆』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는 여성작가의 문학이라는 특수성과 한 인간의 기록이라는 보편성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작가 본연의 목소리에 집중하고자 한 것이다. 첫 번째는 ‘작가와의 同類意識 표출, 그리고 시적 만남’으로 기각이 다른 작가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동류의식을 드러냈는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19세기에 이르면 여성문학도 이전 시기와 달리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각 역시 이러한 시기적 맥락 속에서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작품 분석을 통해 여성작가와 동류의식을 표출하거나, 詩會 형태라고까지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시적 모임이 이루어졌음을 살폈다. 이러한 여성 모임의 등장은 당시 여성문학이 규방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창작자의 근본적 욕망, 한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기각이 문학 활동을 하게 된 내적 욕망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여성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창작자의 근본적인 욕망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기각이 창작활동에 대한 자의식을 어떻게 견지하였는지와도 연계된다고 하겠다. 문학적 표출, 그리고 자신에 대한 표현은 인간 본연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각의 경우 여성이라는 한계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시로 표현해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는 ‘같고 다름의 미학, 遊仙詩 창작과 그 의미’로, 여기에서는 기각의 시세계에서 확인되는 여성문학의 특징을 발견해보고자 하였다. 여성문학만이 지니고있는 다름의 미학을 찾아본다면, 유선시 창작의 전통과 계승 양상 속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綺閣의 작품 속에서도 신선 세계에 대한 언급이 자주 포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 있듯이 이 글은 綺閣의 『綺閣閒筆』을 분석함으로써 한문학 속 여성문학의 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문학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논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성문학을 어떤 시선으로 조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여성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작가의 문학적 특징을 밝히는 데서 나아가 여성문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 안에서 미시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 논문은 기각이라는 한 작가를 통해 여성문학의 일부분을 다루었을 뿐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이 글은 여성문학을 ‘불평등’ 혹은 ‘불공정’한 양상으로 규정하여 한계를 노정하기보다는 한 인간의 기록이라는 보편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확인되는 특수성을 살펴 여성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들여다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작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綺閣閒筆』,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 임치균·부유섭·강문중 역주, 『綺閣閒筆』,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 허미자 편, 『韓國女性詩文全集』, 국학자료원, 2003.
- 강명혜, 「허난설헌 遊仙詩의 색채 미학적 특성 - 중국 및 조선조 여타 유선시와의 색채 미학적 특성 비교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46, 온지학회, 2016.
- 김명희, 「여성 한문학의 연구사와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창간호, 2000.
- 강민경, 「허난설헌의 유선문학(遊仙文學)에 나타난 시간 이미지 고찰」, 『도교문화』 40, 한국도교문화학회, 2014.
- 김기림, 「유한당 홍원주의 한시 학습 양상과 시세계 고찰」, 『인문사회 21』 12,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 김여주, 「『綺閣閒筆』을 을 통한 19세기 여성문학 활동에 대한 일고찰」, 『한문고전연구』 37, 한국한문고전학회, 2018.
- 김용태, 「젠더적 시각에 의한 한문학의 재구성 논의에 대한 관건」, 『한국한문학연구』 79, 한국한문학학회, 2020.
- 김지용, 「三湖亭詩壇의 特性과 作品」, 『아세아여성연구』 16,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77.
- 문희순, 「호서지역 여성 한문학의 사적 전개」, 『한국한문학연구』 39, 한국한문학학회, 2007.
- 박무영, 「21세기 한국한문학사 서술의 여러 문제 -여성문학사의 입장에서-」, 『한국한문학연구』 64, 한국한문학학회, 2016.
- 박영민, 「팔선회(八仙會)의 수계(修禊)와 『팔선루집(八仙樓集)』의 편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9.
- 박영민, 「한문학과 여성, 그리고 명령과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79, 한국한문학학회, 2020.
- 부유섭·강문중, 「『綺閣閒筆』 研究」,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 윤재환, 「깨어지는 꿈, 仙遊의 환상- 朝鮮 後期 遊仙詩의 성격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시가연구』 51, 한국시가학회, 2020.
- 임보연, 「『팔선루집(八仙樓集)』에 나타난 자부(自負)와 연대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0.
- 임유경, 「한국한문학의 여성문학적 성과와 전망」, 『한국한문학연구』 37, 한국한문학학회, 2006.
- 장 산, 「삼호정시사(三湖亭詩社) 구성원들의 자의식 고찰」, 『한국어문교육』 28,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9.
- 장진엽, 「한국 여성 한문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 검토-〈明清婦女著作(Ming Qing Women's Writings)〉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문학논집』 63, 근역한문학학회, 2022.
- 하지영, 「시인의 꿈과 단념, 유한당 홍원주」, 『이화어문논집』 37, 이화어문학회, 2015.



## 「한문학 속 여성문학의 일 양상 - 기각(綺閣)의 『기각한필(綺閣閒筆)』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임 보 연(대진대학교)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성과 한국어문학’이라는 주제 아래 선생님의 논문은 (불)공정성의 측면에서 한문학 중 여성 한문학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당대 한문학은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었기에 불공정, 불평등의 시선으로 여성 문학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 토론자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시문학에 담긴 작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의의를 찾고자 하는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한문학 속 여성 문학의 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각의 『기각한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선생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셨던 ‘여성 문학의 일 양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이때 상정된 ‘여성 문학’이라는 표제 자체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문을 읽은 후 『기각한필』의 특징을 논의한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제목과 체제에 근거하여 본다면, 이 논문은 한문학 속 여성 문학의 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기각한필』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 것인지? (그렇다면 여성 문학의 일 양상이라는 것이 『기각한필』을 통해 본 여성 문학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성 문학의 창작 또는 활동의 양상을 보고자 한 것인지?) 또는 『기각한필』의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 것인지?(혹은 기각의 작가 의식을 논의하고자 한 것인지?) 아마도 처음에 계획하셨던 바에서 축소가 되면서 표면적으로 이와 같은 지점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논문의 초점을 예각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선행 연구에 대해 언급한 부분(2쪽)에서 김여주 선생님의 논문에 대해 정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19세기 사대부 여성들에게 공유되었던 문학 활동 양상의 일면을 기각의 창작 활동에서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선생님의 논문에서는 ‘시기를 확장’하여 『기각한필』의 특징적 양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포착해보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표1>의 개관은 여성 문학 활동에 대한 개관이 아닌, 여성 작가와 작품집에 대한 개관으로 보이며,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였던 새로운 시선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도한 ‘시기를 확장’한다는 것과 ‘새로운 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충 설명을 청하고자 합니다.

3. 2장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논지 전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요? 그리고 현재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요? 표로 제시한 개관은 한문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여성 문학의 일부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문학 속 여성문학을 정리하는 작업을 필두로”(서론, 57쪽) 하겠다는 선생님의 서술을 뒷받침해주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9쪽의 서술 중 2, 4단락은 제시한 표에는 없는 내용에 대한 서술입니다. 2장이 설득력을 갖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표가 보완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3. 여성 문학의 측면에서 기각한필의 특징을 서술한 부분에 있어서, ‘~集’이나 ‘~遺稿’라는 명칭이 아닌 ‘閒筆’ 형태로 기록된 ‘제목의 특이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한시집의 형태로 편찬된 것이 아닌 언해의 형태로 필사된 편찬의 특징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언해된 문집들을 그 시기 문학을 향유했던 혼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sup>155)</sup> 그렇다면, 다른 한시집과는 다른 형태라고 하여 바로 ‘『기각한필』=제목이 특이하다’라고 공식화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4. 3장에서 『기각한필』의 특징적 양상을 3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작가와의 동류의식 표출, 그리고 시적 만남’, ‘창작자의 근본적 욕망, 한계를 넘어’, ‘같고 다름의 미학, 유선시 창작과 그 의미’). 그 중 첫 번째는 문학 활동의 측면, 두 번째는 시인의 자의식-여성이라는 한계 인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동안 여성 한문학에 대한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온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각한필』(혹은 기각)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보편의 자장 안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읽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3번째의 유선시 창작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고 다름의 미학이라는 제목은 유선시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특징과 기각의 유선시가 다르다는 의미를 보여주고자 한 의도라 파악했는데, 제 이해가 맞을지요? 그렇다면, 기각이 쓴 유선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여성 한문학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5. 표현의 오기

57쪽 3번째줄 : ‘내면 의식이 확인되는 2수’ → 3수

68쪽 마지막 문단 2번째줄 : 복숭화 → 복숭아

선생님께서 맺음말에서 서술하신 것처럼, “여성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작가의 문학적 특징을 밝히는 데서 나아가 여성문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 안에서 미시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개별적인 작가와 작품에 대한 분석과 논의, 의의를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하되, 개별 작가나 개별 작품을 둘러싼 것들 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기각한필』은 19세기 여성 문인과 그들의 문학 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155) 김여주, 「『綺閣閒筆』을 통한 19세기 여성문학 활동에 대한 일고찰」, 『한문고전연구』 37, 한국한문고전학회, 2018, 214쪽. “『기각한필』이라고 詩話의 성격이 강한 “閒筆”의 이름을 붙인 것은 시 짓기의 일상화와 시 모임 활동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 호모 메모리스(Homo Memoris)와 ‘공정’의 글쓰기

-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2021)를 중심으로

김 소 루(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차례

1. 들어가며
2. 만들어진 정의, 혐오의 역사
3. 회복되는 공정, 과정으로서의 기억
4. 나가며

### 1. 들어가며

한강은 1993년에 <문학과 사회>를 통해 시로 등단을 하였지만, 이듬해인 1994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여수의 사랑』(1995)을 시작으로 『내 여자의 열매』(2000), 『채식주의자』(2007), 『노랑무늬영원』(2012) 등의 소설집을 출간하였고, 『검은 사슴』(1988)을 비롯한 『그대의 차가운 손』(2002), 『바람이 분다, 가라』(2010), 『희랍어 시간』(2011), 『소년이 온다』(2014), 『흰』(2016),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2021)에 이르는 장편 소설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어느새 등단 30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시간 동안 자신만의 고유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가의 문학적 성과가 대중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2016년에 연작소설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에 선정되면서부터이지만, 한국 문단 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강의 문학 세계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높이 평가해왔다. 1999년도에 「아기 부처」로 제25회 한국소설문학상을, 2000년도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2005년도에는 「몽고반점」을 통해 제29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2010년에는 『바람이 분다, 가라』로 제13회 동리문학상을, 2014년에는 『소년이 온다』로 만해문학상을, 2015년에는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으로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외에도 2018년도에는 「작별」로 김유정 문학상을, 지난해 12월에는 『작별하지 않는다』로 제30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강 소설에 관한 다양한 학술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은 한국 문단 내에서 한강이 점유한 문학적 위치를 가늠하게 해준다. 실제로 2021년도에 발표된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2022년도에만 무려 4편의 학술 논문을 통해 연구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관련 서평과 평론들을 살펴볼 때, 발간된 지 불과 일 년 남짓한 작품에 대한 학계 내외의 관심은 한강이라는 소설가를 향한 깊은 신뢰를 짐작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별하지 않는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방향이 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혼(魂)’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우선 전성욱<sup>156)</sup>은 인선의 존재를 ‘귀신’으로 명명하고, ‘귀신’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내 여자의 열매」에서 보여준 “전이적 이행으로서의 ‘변신(metamorphosis)’”에 관한 문제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서 「작별」, 『소년이 온다』,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흰』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그려진 ‘귀신’의 의미를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는 접점이자 문턱인 ‘리미널리티’의 존재성으로 조명하며, 그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 죽음과 삶, 정치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한강 소설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노희호<sup>157)</sup>는 ‘혼’을 ‘유령’으로 명명하고, 한강의 ‘눈 3부작’으로 언급되는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작별」, 『작별하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유령을 타자로만 인식하던 주체가 유령과 연대하고, 유령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주체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단계적으로 조명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나보령 역시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겹쳐 읽으며, 두 작품에서 발견되는 형식적인 변화로 제3자인 대리인, ‘혼’의 문제를 거론한다. ‘혼’의 간접 증언을 전면화함으로써 “소설이 역사의 재현 불가능한 부분들을 은폐하거나, 권위 있는 주체의 목소리를 통해 상상적으로 보완하는 대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외에도 ‘혼’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버틀러가 해석한 안티고네의 형상을 작품 속 인물들과 결부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들과 작별하지 않으려는 애도의 의지” 그리고 “살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한 작가의 노력을 주체의식 면에서 분석하고 있음이 주목된다.<sup>158)</sup> 한편 오태호는 ‘혼’의 문제와는 별개로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김숨의 『떠도는 땅』(2020)과 함께 놓고 두 작품이 “역사적 비극을 현재로 호출하여 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함으로써 소외된 타자를 향한 ‘애도로서의 치유’ 지향 소설”임을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59)</sup>

이상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작별하지 않는다』에 관한 학술적 관심이 주로 ‘귀신/유령/혼’의 도래를 통한 미학적 의미와 역사적 비극에 관한 애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 역시 기존의 논의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결을 같이 하되, 최근작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작가의 이전 문학과 연장선에서 조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현재 한강의 작품 세계는 『소년이 온다』를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초기 소설에서 보여주었던 인물의 무의식과 욕망, 특히 여성 인물들에게서 발견되는 ‘식물-되기’의 모티프가 주로 에코 페미니즘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면, 『소년이 온다』를 기점으로 작가의 시선이 ‘1980년 광주’로 상징되는 거대 담론의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 제시된 한강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년이 온다』는 한강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소년이 온다』를 쓴 것이 사람들에게는 단절이나 커다란 변화로 느껴지는 듯한데, 제 내면에서는 그 소설이 앞의 소설들과 이어져 있어요. 저에게 폭력은 중요한 주제

156) 전성욱, 「리미널리티 존재자로서의 ‘귀신’과 커뮤니티스」, 『감성연구』 제25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2.  
 157) 노희호, 「한강 소설 속 유령의 형상과 기능 - 「눈 한송이가 녹는 동안」(2015), 「작별」(2018), 『작별하지 않는다』(2021)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9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2.  
 158) 나보령, 「두 갈래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의지- 『소년이 온다』와 겹쳐 읽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2.  
 159) 오태호, 「역사적 비극을 서사화하는 ‘애도로서의 치유’ 지향 소설 연구 - 김숨의 『떠도는 땅』(2020)과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2021)」,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2, 9쪽.

예요. 몇 년 전에 『여수의 사랑』 개정판 교정을 보면서, 제가 인간의 폭력에 대해 처음부터 고통스럽게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 주제를 『채식주의자』에서 처음으로 직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폭력적인 세계와, 완전한 결백의 (불)가능성에 대해서요. 조용한 분위기의 『희랍어 시간』에서도 언어를 폭력으로 느끼며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가까스로 존엄을 확보하려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희랍어 시간』을 쓰고 난 뒤, 제 내면에 심겨진 인간에 대한 근원적 의문을 찾아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뿌리에 1980년 5월 광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sup>160)</sup>

위에서 인용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의 한강 소설은 ‘변화’라기보다는 ‘심화’된 문제의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강의 소설은 일관되게 ‘폭력’의 문제를 주목해왔으며, 이때의 폭력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축된 공적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특징을 갖는 까닭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적 영역이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용인된 ‘정의(正義)’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정의(正義)’에 관한 수많은 ‘정의(定義)’가 존재하겠지만, 트라쉬마코스(Trasymachos)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며, 피지배자에게는 반대로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sup>161)</sup> 그런 의미에서 한강이 말하고자 하는 폭력은 강자, 곧 지배 계급을 통해 ‘만들어진’ 정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에 본 논문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그 속에 내재된 폭력의 문제를 한강의 이전 작품들과의 연계 속에서 조명하고자 한다.<sup>162)</sup> 이를 통해 지배 계급을 통해 ‘만들어진’ 정의와 그 정의가 야기한 폭력, 그 폭력으로 얼룩진 혐오의 역사에 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그 얼룩진 역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강의 추구한 ‘글쓰기’가 정의를 회복하고 공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고찰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 2. 만들어진 정의, 혐오의 역사

발간된 지 불과 일 년 남짓한 『작별하지 않는다』에 관해 연구자들이 보여준 학술적 관심은 본 작품이 지닌 미학적 가치만이 아니라, ‘제주 4.3사건’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서사화라는 소재적 차원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동했으리라 유추된다. ‘제주 4.3 특별법(원래 명칭: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인명 피해는 희생자 14,660명과 유족 88,533명으로, 이는 제주 인구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이다.<sup>163)</sup> 무엇보다 2023년 6월까지 제8차 추가신고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제주 4.3사건’은 ‘과거완료형’이 아닌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사건으로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제주 4.3사건’에 관한 피해 상황과 규모는 현재까지도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역시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지 60여년이 지난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4.3특별법’이 공포되었고,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160) 윤경희, 「수상작가 인터뷰: 연하고 깨끗한, 막연하나 이끄는」, 『제15회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 중앙일보 문예중앙, 2015, 119-120쪽.

161) 이영희, 『정의론』, 法文社, 2005, 338쪽.

162) 본 논문의 주된 연구 대상인 『작별하지 않는다』는 2021년도에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소설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문 옆에 괄호로 해당 쪽수만 적도록 한다.

163) 한형진, 「제주도, 내년 6월30일까지 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 『제주의 소리』, 2022.12.30.,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9928>, 접속일: 2022.12.30.

발족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뒷받침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주 4.3사건’은 이념적 갈등 아래 “진상이 은폐되고 그것을 밝히려는 시도마저 물리력으로 억압” 당해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강의 소설을 통해 언급되는 ‘제주 4.3사건’에 관한 서사화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기억을 소환하고, 그것을 ‘위무(慰撫)’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분명한 가치를 획득한다. 역사의 이면에서 은폐되어온 기억을 진술하고, 잊지 말아야 할 ‘타자’에 대해 발화함으로써 소멸되었던 그들의 위치를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강이 추구하는 타자의 복원은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작별하지 않는다』 속에는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 『소년이 온다』가 겹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무덤 위로 밀물이 밀려오는 광경을 바라보는, 주인공 경하의 꿈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대해 경하는 “그 꿈을 꾸는 것은 2014년 여름, 내가 그 도시의 학살에 대한 책을 낸지 두달 가까이 지났을 때였다.”(11쪽)라고 진술하는데, 이때 2014년은 한강이 ‘1980년 광주’에 대해 쓴 『소년이 온다』가 발표된 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작별하지 않는다』에 등장하는 ‘제주’는 『소년이 온다』에 그려졌던 ‘광주’의 연장선에 놓여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과 제주에서 발생한 폭력의 주체가 결코 다르지 않음을 가시화한다. 때문에 작품 초반에 등장하는, 학살을 명령했던 살인자를 향해 가냘픈 성냥개비를 들고 있던 그림자의 주인공이 “키만 옷자란 소년”(22쪽)이었다는 서술은 그 주인공이 『소년이 온다』 속 동호임을 유추하게 한다. 국가에 의해 기획된 폭력, 지배 계급의 논리에 의해 자행한 잔혹한 학살은 ‘정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강의 시선은 이를 한반도 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확장시킨다. 소설 속에서 사진작가이자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인 인선이 만든 단편 영화는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한국군 성폭력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 이것은 한강이 말하고자 하는 폭력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아닌, 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사건임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소설은 정의 구현의 명목으로 자행된 지배 계급의 허위성을 고발하고, 그들의 정의가 내포한 집단적 폭력성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일까? 정의를 “최초로 이론적·체계적으로 다룬 철학자는 플라톤이었다. 그는 정의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었으며,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덕과 결부지어 파악하였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인식한 정의는 ‘각자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sup>164)</sup>이 된다.

그 겨울 삼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서 살해되고, 이듬해 여름 육지에서 이십만 명이 살해된 건 우연의 연속이 아니야. 이 섬에 사는 삼십만 명을 다 죽여서라도 공산화를 막으라는 미군정의 명령이 있었고, 그걸 실현할 의지와 원한이 장전된 이북 출신 극우 청년단원들이 이 주간의 훈련을 마친 뒤 경찰복과 군복을 입고 섬으로 들어왔고, 해안이 봉쇄되었고, 언론이 통제되었고, 갓난아기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광기가 허락되었고 오히려 포상되었고, 그렇게 죽은 열 살 미만 아이들이 천오백 명이었고, 그 전례에 피가 마르기 전에 전쟁이 터졌고, 이 섬에서 했던 그대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추려낸 이십만 명이 트럭으로 운반되었고, 수용되고 총살돼 암매장되었고, 누구도 유해를 수습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휴전된 것뿐이었으니까. 휴전선 너머에 여전히 적이 있었으니까. 낙인찍힌 유족들도, 입을 때는 순간 적의 편으로 낙인찍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침묵했으니까. 골짜기와 광산과 활주로 아래에서 구슬 무더기와 구멍 뚫

164) 존 롤즈,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 에린 켈리 엮음, 김주휘 옮김, 이학사, 2016, 340쪽.

린 조그만 두개골들이 발굴될 때까지 수십 년이 흘렀고, 아직도 뼈와 뼈들이 뒤섞인 채 묻혀 있어. / 그 아이들 / 절멸을 위해 죽인 아이들 (317-318쪽)

플라톤이 언급한 정의에 따른다면, 위의 인용문 속에 서술된 학살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가 된다. 따라서 ‘빨갱이’를 소탕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이들은 정의의 수호자나 다름없다. 실제로 70여 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은 법의 수호 아래, ‘정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이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목숨을 빼앗겼고, 갓난아기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행위는 정당하게 허용되었다. 빨갱이들을 절멸하기 위해서는 젓먹이 아기도 절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sup>165)</sup> 이외에도 군사작전이라는 명목하에 “해당지를 통제하는 자를 폭도로 간주해 이유 불문 사살”(161쪽)을 감행하였고, “빗질하듯 한라산을 쓸어 공비를 소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62쪽)한 사령관은 수천 명의 제주도민을 체포해서 창고 안에 가둬놓고 고문을 가하였다. 인선의 아버지 학영도 옷이 벗겨진 채 의자에 거꾸로 매달려야 했고,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은 “씨를 말릴 빨갱이 새끼들, 깨끗이 청소하잖어. 죽여서 박멸하잖어. 한 방울이라도 빨간 물 든 쥐새끼들은.”(297쪽)이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의 눈에는 학영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이 박멸해야 할 ‘빨갱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빨갱이’를 소탕하기 위해 벌이는 잔혹한 고문은 ‘빨갱이’를 절멸시키고, 남한 사회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정당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정의란 정당성(正當性)을 의미하며, 이때의 정당성이란 “말할 것도 없이 옳은 것”을 의미한다.<sup>166)</sup> 군복을 입은 고문관들은 수건을 덮은 제주도민들의 얼굴에 끝없이 물을 붓고, 젖은 가슴에 야전 전화선을 묶어 전기를 흘려 넣으며 자신들이 하는 일이 “말할 것도 없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그들에게 내려진 포상과 훈장은 그러한 믿음을 확신으로 자리하게 해주었다. 그런 면에서 정의란 철저하게 강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어디에도 “보편타당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류가 추구한 정의에서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은 없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한다.<sup>16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의가 절대적인, 불변하는 무엇인가로 상정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맹목적인 믿음은 필연적으로 타자를 향한 폭력으로 귀결된다. 이는 한강의 이전 소설들에서도 발견되는 지점이다. 딸에게 육식을 강요하는 「채식주의자」(2007) 속 아버지의 모습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정당화하는 자기 논리, 그것을 곧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온 폭력적인 주체를 의미한다. 아버지의 기준에서 육식은 곧 자신이 믿는 정의이고, 그것을 벗어나 채식을 하려는 딸은 자신의 정의에 반하는 인물인 것이다. 이에 딸에게 폭력을 가하면 서라도 고기를 입에 쑤서 넣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다 무서운 폭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폭력을 묵묵히 바라보는 나머지 가족들이다. 이는 또 다른 작품인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2015)에서도 반복된다. 주인공인 k가 다니던 회사는 ‘여자 직원은 결혼과 동시에 퇴사한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귀중한 모성은 보호받아야 하므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26쪽)이 ‘오너’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경력직 여성을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퇴사시키고, 대학을 갓 졸업한 미혼의 여성을 고용함으

165) “젓먹이 아기도? / 절멸이 목적이었으니까. / 무엇을 절멸해? / 빨갱이들을.”(220쪽)

166) 이영희, 앞의 책, 33쪽.

167) 위의 책, 26쪽.

로써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은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한 여성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는 여성들을 향한 주변 동료들의 냉담함에 있다. 이처럼 한강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내재한 지배 계급의 자기 논리,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의를 통해 야기된 폭력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그 폭력에 희생당하는 타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폭력의 구조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것이 폭력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주체들의 '무지'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과 그에 대한 '무지'의 문제는 광주와 제주에 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는 '무지'를 깨닫는 순간, 피하고 싶었던 실재계를 마주하는 순간 엄청난 고통을 직면하게 된다. 지적에 따르면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어 왔던 이 세계는 실은 찌그러진 실재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찌그러진 틈새를 환상으로 채우고, 그것이 완벽한 세계라고 상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환상이 거뒤틀리는 순간, 찌그러진 실재계를 목도하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한다. 그때 주체는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통을 거쳐 다시 상징계의 체계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경하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광주에 관한 책을 쓰면서 마주한 진실, 그것을 마주한 경하는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경하가 느끼는 지독한 고통은 소설 도입부에서 '광주'에 관한 글을 쓴 이후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과 인선의 부탁으로 제주도를 향한 가운데 경험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발견된다.

주인공 경하는 어느 날 손가락 절단 사고를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친구 인선의 연락을 받게 된다. 인선은 갑작스럽게 서울 병원으로 이송된 까닭에 제주 집에 홀로 남아있을 앵무새가 삼일을 넘길 수는 없을 거라며, 지금 당장 자신의 집에 가줄 것을 부탁한다. 이에 경하는 입던 옷 그대로, 병원에서 곧장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폭설로 인해 차도 오가지 않는 인선의 집을 향해 간다. 쉬지 않고 내리는 눈을 뚫고, 도무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인선의 집을 찾아 헤매는 과정은 소설의 전반부를 채우고 있는 주된 서사이다. 이는 본 소설이 제주 4.3사건에 관한 소설임과 동시에, 제주 4.3사건에 관해 '기억'하는 소설임을 보여준다. 앵무새를 구하기 위해 인선의 집을 찾아가는 경하의 여정이 바로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한강은 단순히 묻혀왔던 폭력적인 기억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라는 '과정'에 대한 문제까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적 역사에서 지워진 기억들을 복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이름 없는 유골들과 조각난 구술 증언들뿐이다. 한강은 이러한 조각난 사적 기억들을 꿰매어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라는, '기억'해야 할 타자만이 아니라 '기억을 위한 과정'에 대해서도 서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처드 커니<sup>168)</sup>는 서사를 통한 주체의 성립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윤리적인 행동을 서사, 즉 '이야기하기'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의 글쓰기는 망각을 요구받은 기억을 소환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유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행위로서의 글쓰기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168) 리처드 커니, 『이방인·신·괴물』, 이지영 옮김, 개마고원, 2004.

### 3. 회복되는 공정, 과정으로서의 기억

『작별하지 않는다』는 「눈 한송이가 녹는 동안」과 「작별」과 더불어 ‘혼 3부작’<sup>169)</sup>으로 명명되지만, 동시에 ‘눈 3부작’으로도 언급되는 작품이다. 그래서인지 소설의 대부분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흰 눈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러나 ‘눈 3부작’이 모두 눈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에서는 흰 눈이 주인공 k가 쓰는 희곡 속에 등장하는 소녀의 머리 위에서만 잠깐 등장할 뿐이다. 실은 관음보살이었던 소녀의 머리 위에 쌓인 눈은 녹지 않으며, 이 ‘녹지 않는 눈’은 ‘호르지 않는 시간’으로 은유된다. ‘녹지 않는 눈’을 통해 ‘호르지 않는 시간’을 언급하고, 그 속에 존재하는 이들을 ‘시간 밖’의 존재로 묘사한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이처럼 ‘녹지 않는 눈’에 대한 서사가 언급된다. 고등학교 시절의 인선은 어머니 정심을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모습”(78쪽)인 “유령”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 이에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더 이상 어둡게 채색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78쪽)며 가출을 감행한다. 이때 인선은 늦은 밤 예기치 않은 추락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날 어머니 정심은 얼굴 위로 ‘흰 눈’이 묻어있는 인선의 꿈을 꾸게 된다. 그 순간 정심은 인선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의 얼굴 위에 내린 눈은 녹지 않는 까닭이다. 이러한 확신에 대해 인선은 정심에게는 “녹지 않는 그 눈송이들의 인과관계가 당신의 인생을 꿰뚫는 가장 무서운 논리”(86쪽)였다고 덧붙인다. 그 배경에는 수십 년 전 정심이 살던 마을에 군경들이 들이닥쳐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고, 그 사건으로 당숙네 심부름을 갔던 정심과 정심의 언니를 제외한 식구들이 잔인한 죽음을 당했던 기억이 자리한다. 두 자매는 죽은 부모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운동장’을 헤매며, 손수건으로 시체 더미 위에 쌓인 흰 눈을 일일이 쓸어내린다. 그때부터 두 자매는 녹지 않는 눈을 마주하며, 「눈 한송이가 녹는 동안」에서 언급되었던 ‘호르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 밖’의 존재로 자리하게 된다. 때문에 정심은 악몽을 쫓기 위해 평생에 걸쳐 이부자라 밑에 ‘실뿔’을 깔고 잠이 든다. 이는 정심의 시간이 여전히 눈 덮인 운동장 위에 쓰러져 있던 시체들과 배와 턱에 총을 맞고 찢터어리가 된 막내 동생의 입에 피를 낸 손가락을 물려주던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음을 가시화한다. 눈 덮인 운동장 위에 펼쳐진 ‘그 시간’ 말이다. 따라서 정심은 언제나 “숨을 죽여 몸서리를 치고, 이따금 들고양이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흐느껴”(78쪽) 울고, 인선은 그런 어머니를 역겹고 혐오스러웠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정심은 결코 인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닫힌 시간에 매몰된 피해자로서만 존재하는 ‘연약한’ 인물이 아니었다.

(가) 그녀의 손에 처음 들려 나온 것은 번색된 신문 조각들이다. 종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회색 무명실을 가로로 돌려 묶고 리본 매듭을 지어놓았다. 같은 방법으로 묶인, 손상되지 않도록 사이사이 습자지가 끼워진 사진 뭉치가 나란히 지도 위에 놓인다. (중략) 맨 위에 놓인 기사의 여백에 청색 볼펜으로 적힌 숫자 ‘1960.7.28.’과 E 일보라는 글씨는 인선이 쓴 것이 아니다. 종이기가 움푹 들어갈 만큼 필압이 높은, 모두 세로획을 구부러 쓴 정체다. (255-256쪽)

(나) 이해할 수 없다. 오십팔 년 전 E일보 기사를 누가 오리고 밑줄을 그었을까. / 엄마

169) “『소년이 온다』를 쓰는 동안 혼에 대해 생각했어요. 매 순간 생각했다고 할 수 있어요. (중략) 이 소설을 쓴 직후에 「눈 한송이가 녹는 동안」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 단편(150매니까 중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은 혼 3부작의 첫 번째 소설이기도 해요. 지금으로선 다음 두 소설을 쓸 일이 아득해서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처음 생각은 그랬습니다.” - 윤경희, 앞의 글, 106쪽.



옷장 서랍에서 나온 거야. / 얼굴을 든 나에게 인선이 말한다. / 엄마는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글씨를 썼어. 모든 획을 사십오도로 꺾어서. (258쪽)

(다) 유족회에서 가장 열정적인 멤버가 엄마였다고, 제주에선 아무도 생각 못했던 1960년에 이미 경산에 다녀온 사람이었다고 말했어. 진주 이송자 명부 사본을 대구형무소에 요청하자는 의견도 엄마가 낸 거였다고. 승합차를 대절해 다 같이 항의방문을 하고서야 명부가 나왔다고. 회원들이 찾는 가족들의 이름을 엄마가 일일이 찾아내 유해가 묻혀 있을 장소를 추정해줬다고 했어. (289쪽)

위의 인용문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심은 그녀의 온 삶을 다해, 잊혀진 '제주 4.3사건'에 관한 기억으로 상징되는 오빠 정훈을 찾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그 결과 대구형무소에서 진주로 이송된 수감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마침내 군용 트럭에 실려 경산에 있는 코발트 광산으로 끌려가 총살당했을 것이라는 것까지 밝혀내기에 이른다. 광산을 찾아 갱도를 직접 방문하고, 제주에는 배급되지 않는 경북 발행 신문을 얻기 위해 배를 타고 가서 직접 길을 나서며 말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심이 단순한 학살의 피해자가 아닌,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존재로 위치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심이 마주했던 학살의 기억, 그녀의 내부에서 결코 '호르지 않던 시간'은 결코 '작별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인선은 "엄마를 잘 몰랐어"(255쪽)라고 고백한다. "지나치게 잘 안다고 생각"(255쪽)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엄마에 대한 고백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심은 "군부가 물러나고 민간인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281쪽) 무려 삼십사 년 동안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오빠 정훈의 뼈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정심의 노력은 결코 실패로 종결되지 않는다. 그녀가 남긴 자료들은 인선에게 이어지고, 인선을 통해 경하에게 제시되는 까닭이다. 그 결과 마치 눈 덮인 시체의 얼굴을 쓸어내리던 자매처럼, 인선과 경하는 정심이 모은 자료들을 통해 가려진 제주 4.3사건의 민낯을 하나씩 마주하게 된다. "지나치게 잘 안다고 생각"(255쪽)했지만, 결코 알지 못했던 '엄마'를 마주하듯, 인선과 경하는 제주 4.3사건을 마주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심이 머물렀던 '호르지 않는 시간'은 '시간 밖'에서 정심에서 인선으로, 그리고 인선에서 경하로 이어지는 놀라운 흐름을 생성해낸다. 이는 경하가 내리는 눈을 맞으며 "인선의 어머니가 보았다던 학교 운동장의 사람들"을 떠올리고, "무딘 콧날과 눈꺼풀에 쌓인 눈을 닦아"내며, "그들의 얼굴에 쌓였던 눈과 지금 내 손에 묻은 눈이 같은 것이 아니란 법이 없다"(133쪽)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 확인된다. 같은 눈이 내리는 시간의 경험, 그 '호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역설을 통해 작가는 제주에 관한 기억과 결코 '작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로 이어진다.

작가는 경하가 흰 눈으로 채워진 길을 헤매 인선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을 70페이지가 넘게 길게 서술하고 있다. 왜 이토록 세밀하게 경하의 동선을 그려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작별하지 않는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소재적 차원에서 제주 4.3사건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한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겪은 부당한 학살과 유족들의 고통만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남은 자의 '책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사건에 관한 소설을 쓰는 행위, 나아가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혐오로 얼룩진 역사를 마주하고, 아집으로 구축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한강이 추구한

역사적 사건의 문학적 재현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의 글쓰기를 정의의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공정의 글쓰기’로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정의와 동의어로 인식되는 몇 가지 개념으로는 정당성, 합리성, 평등, 형평, 그리고 공정을 들 수 있다.<sup>170)</sup> 그런데 이때 “공정은 정의”가 될 수 있지만, “정의를 바로 공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sup>171)</sup> 이는 정의가 원초적인 개념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구분될 뿐, 그 속에는 아직 공정이라는 의미가 함의되거나 강조되지 않는 까닭이다.<sup>172)</sup> 그런 의미에서 공정은 “정의의 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의 하나”이며 “공정이 거론되는 것은 정의가 한 차원 높은 국면으로 진전하였음을 뜻”<sup>173)</sup>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논의를 적용한다면 한강의 글쓰기는 지배 계급을 통해 ‘만들어진’ 정의의 회복하고 ‘공정’을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강이 작가로서 찾은, 역사를 재현하는 문학의 역할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다.

한강은 이미 『소년이 온다』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재현에 관한 문학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를 던지 바 있다. “그 일을 쓰려면 거기 있어야 하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이니까.”<sup>174)</sup>라는 화자의 독백은 현장에 동참할 수 없던 부채감을 제시한다. 이는 소설 속에서 동호가 친구 정대의 죽음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부채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시위대를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될 수 있다.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어린 소년의 의지, 그리고 그 고통의 바깥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윤리적 부채감, 『소년이 온다』는 이러한 고통의 무게를 묵직하게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타자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한강 소설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파악된다.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에서 k는 자신이 희곡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글을 쓰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의 바깥에 있다는 사실이 무섭도록 생생했기 때문”<sup>175)</sup>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반복되는 문제이다. 한강은 경하를 통해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인선의 앵무새를 살리기 위해 제주를 향한 경하는 결국 새를 살리지 못하고 새의 주검만을 마주하게 된다. 이때 “아마는 나의 새가 아니다. 이런 고통을 느낄 만큼 사랑한 적도 없다”(152쪽)고 생각하지만, 새의 죽음을 통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다. 경하가 느끼는 고통이 인선이 느낄 고통과 같은 빛깔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무게만큼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과거 제주에서 일어난 학살에 대한 기록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학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느낀 고통과 동일할 수 없다. 그러나 고통의 빛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한강은 “그 일을 쓰려면 거기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그 일’을 기억하는 과정에 대한 서사를 통한 새로운 동참을 시도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존재가 정심이나 학영이 아닌, 혹은 당시 학살당했던 누군가의 혼이 아닌,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로 설정되고 있음을 통해 뒷받침된다. 해당 사건을 발화하는 인물이 실제 사건을 경험했는가, 아닌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제주 4.3사건이 당시 학살당한 사람들이나 살아남은 생존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170) 이영희, 앞의 책, 33쪽.

171) 위의 책, 57쪽.

172) 위의 책, 57쪽.

173) 위의 책, 60쪽.

174)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204쪽.

175) 한강,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2015년 황순원 문학상 수상作品集』, 중앙북스, 2015, 45쪽.

‘현재적’ 사건임을 가시화한다. 당시 가족을 잃은 정심과 가족을 잃고 수감된 채 고문을 당했던 학영, 그들이 경험한 고통의 무게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인선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인선의 목소리를 통해 서사화 되는 제주에 관한 기억은 신경을 살리기 위해 3분마다 바늘로 손가락 끝으로 바늘을 찌르는 통증을 반복해야 하는 실존적 차원의 문제로 제시된다. 이것이 바로 한강이 ‘혼’으로 상징되는 인선을 호출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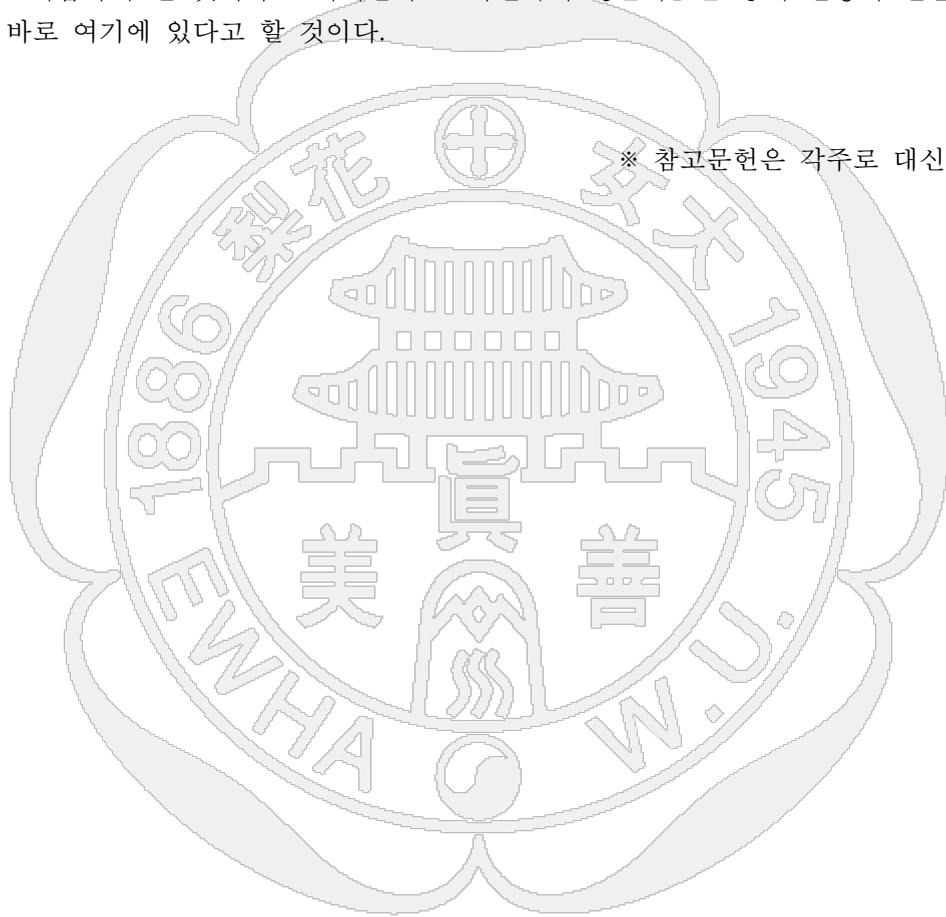
한강은 ‘The Guardian’과의 인터뷰를 통해 죽어서 증언할 수 없는 이들에게 자신의 몸과 목소리를 빌려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바람이 인선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혼’으로 추정되는 인선의 등장 이후 본격화되고 있음을 통해 뒷받침한다. 이때 ‘혼’의 말하기는 기존의 한강 소설에서 나타났던 실어 모티프와의 연결 속에서 접근될 수 있다. 한강 소설에서 ‘실어 모티프’는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검은 사슴』(1998)에서는 “그녀는 아직도 내가 알 수 없는 세계를, 말도 의식도 사라져버린 세계를 맨몸으로 헤매어 다니고 있었다”(338쪽)고 서술하고 있으며, 『몽고반점』(2004)에서는 “이따금 그녀의 눈이 단지 수동적이거나 백치스러운 담담함이 아니라 어떤 격렬함을, 동시에 그것을 자제하는 힘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105쪽)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나무불꽃』(2005)의 영혜는 “이제 곧, 말도 생각도 모두 사라질 거야. 금방이야”(187쪽)라고도 이야기한다. 이처럼 말의 상실은 말할 수 없는 ‘서발턴’으로서의 여성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때의 ‘실어’는 말의 빼앗김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선택한 상실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기존 세계에서 부여된 말의 질서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나무불꽃』에서 영혜가 추구하는 것이 ‘거꾸로 선 나무’라는 지점과 연결된다. 기존 질서에는 뿌리조차 내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질서의 말을 버린 인물들이 선택한 언어는 ‘죽은 자’의 언어, ‘혼’의 말하기가 아닐까 한다. 기존 질서에서 용인되지 않는, 새로운 질서의 언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혼’의 존재를 통해 기존의 세계에서 말할 수 없던 존재의 말하기가 비로소 가시화되며, 역사 속에서 억압되어왔던 언어의 회복이 성취되는 셈이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불러오고, 조각조각 흩어진 상처의 진술들을 꿰매어 하나의 서사로 구축하는 것은 오직 문학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단지 고통의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우리에게 남겨진 책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작별할 수 없는 마음, 작별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작가의 의지가 아닐까 한다.

#### 4. 나가며

최근 한국 문학에서는 ‘기억’의 문제를 소환하고 있는 작품들이 대거 눈에 띈다. 2021년 창비에서 기획 출판된 『기억하는 소설』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건물 붕괴와 화재와 같은 사고, 감염병의 공포와 멀리는 운석 충돌에 관한 서사까지, 다양한 재난 서사를 통해 ‘기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재난이 아닌 ‘기억’이라고 볼 수 있다. “너무나 쉽게, 너무도 빨리 잊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라는 카피처럼, 너무도 쉽게 망각의 길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우리에게 소설을 통한 ‘기억’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강의 소설은 ‘기억’되지 못한 역사적 상처를 끌어오고, 그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바르뜨는 “글쓰기 행위는 이 행위의 주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한동안 이 세계에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과 증언, 곧 그들을 “불멸화시키는 것(immortaliser)”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강의 글쓰기야말로 바르뜨가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한강은 글쓰기를 통해 광주와 제주에 얽힌 기억을 증언하고, 소설을 통해 그 기억은 ‘불멸’의 가치를 획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국가라는 지배 집단에 의해 학살된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 관한 ‘사랑’이 자리한다고 본다. 그 ‘사랑’을 기반으로 작가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타자들을 기록하는 대신, 기억하기 위해 소설을 쓰고 있다. 그런 점에서 소설가는 기억하는 인간, 즉 ‘호모 메모리스’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자 역시 그 작품을 통해서, 잊고 있던 혹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기억과 조우하며 ‘호모 메모리스’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한강이 전달하고자 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호모 메모리스(Homo Memoris)와 ‘공정’의 글쓰기 -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2021)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송 상 덕(숭실대학교)

김소륜 선생님은 한강의 소설의 핵심을 '폭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글쓰기'와 기억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파악하시고 이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계십니다. 한강은 이미 『소년이 온다』를 통해 1980년 광주항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다시 쓴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작별하지 않는다』 역시도 이러한 주제의 연장선에서 쓴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하시듯이 『작별하지 않는다』 역시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과 제주에서 발생한 폭력의 주체가 결코 다르지 않”(79)다고 강조하십니다. 한강의 작품이 집단적 폭력과 그것을 기억하거나 재현하는 공동체의 문제라는 지점을 파고 든다는 점에 있어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도 선생님이 쓰신 발표문을 보면서 학살 혹은 재앙에 대한 기억을 문학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들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는 『작별하지 않는다』의 서사가 단순히 사건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기억을 위한 과정'(81)을 서사화하는 측면에 주목하고 계시고 이를 “윤리적 행위로서의 글쓰기”의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주인공 경하가 앵무새를 구하러 폭설을 뚫고 나가는 과정이 곧 제주 4·3 사건을 기억하고자 하는 다음 세대라는 알레고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작품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하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인물 이면서도 사건에 마주할수록 고통스러워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작품의 주제가 이런 사건이 “부당한 학살과 유족들의 고통만”이 아니라 “기억해야 하는 남은 자의 ‘책임’”(83)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제주 4·3 사건과 보도연맹 사건 역시 학살과 폭력에 대한 기억을 공적인 기억(공동체, 국가, 민족 등)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도 공동체의 일원의 하나로써 기억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당위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남은 자 혹은 기억해야 하는 자의 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하가 인선의 부탁에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하는 마음 속 갈등 역시 이러한 책무의 '범위'를 서사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윤리적 부채감은 문학의 역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남은 자의 책무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늘이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에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의 기억을 서사화하는 차원에서 차별화된 특징점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한강의 다른 작품에 반복된 “실어 모티프”를 언급하시면서(85)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인물들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실어’야말로 선택한 침묵이며, 말할 수 없는 서발턴 여성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저 역시도 작품 속 인선의 어머니 강정심이야말로 서발턴이지만 민주정부가 들어오기까지 34년이나 말을 아끼고 기다린 인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작품 속에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가 매우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앵무새 아미와 아마의 설정도 중요해 보입니다. 아미는 인선의 말을 따라할 수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새이며, 아마는 사람의 말을 따라하지 못한 채, 인선의 허밍을 흉내내기만 합니다. 말을 따라하지 못하고, 노래를 흉내낸다는 설정은 이러한 ‘실어 모티프’와 연관되면서도 한강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듯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앵무새 ‘아마’라는 새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3. 두 번째 질문과도 조금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한강 작품에 반복되는 ‘눈’과 ‘새’의 이미지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 또한 궁금해집니다. 먼저 한강의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에서 ‘눈’은 ‘녹지 않는 것’으로서 ‘흐르지 않는 시간’으로 은유되며,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신에 쌓인 눈이 녹지 않는 것을 사건이 이야기됩니다. 여기서 선생님께서는 ‘눈’이 예기치 않음 죽음, “시간 밖 존재”(82)와 연관되는 것으로 연결하십니다. 특히 경하와 인선이 기획하는 영상 퍼포먼스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눈이 오는 날을 기다려 찍는다는 설정이 강조되는데, 이는 한편으로 시간 밖 존재인 죽은 자들의 혼을 불러들이는 제의(祭儀)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이때 눈은 죽은 자를 불러들이는 매개물의 역할을 아닐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작품 속 경하는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먼지나 재의 입자가 눈송이의 핵”(1부 4장)이 된다는 설명에서 저는 ‘재’와 ‘먼지’는 죽은 자들의 것일 수도 있고 이를 ‘눈’과 연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새’는 앵무새 ‘아마’처럼 작품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작품 속에서 아주 반복되는 중요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흰 새들이 소리 없이 낙하하는 것 같은 함박눈”(2부 1장)

“새 그림자가 흰 벽 위로 소리 없이 날고 있었다”(2부 2장)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가 날개를 퍼덕인 것처럼”(3부)

위의 대목에서 저는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새’의 이미지가 종종 ‘눈’의 이미지와도 겹쳐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들이 ‘혼魂’이나 ‘실어 모티프’와도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소설, 재현체계에서 정동적 격전장으로<sup>176)</sup>

- 2010년대 중반 이후 소설 텍스트의 역학에 대해

김 미 정(성균관대학교)

### 차례

1. 창작자의 고민
2. 동기화(synchronization)하는 시대 : 작가/작품/독자 모델로부터의 이륙
3. 그런데 판단과 개입을 기피하는 소설과 그 딜레마
4. 유행이라는 방법

### 1. 창작자의 고민

2021년 발표된 구소현의 단편소설 「시트론 호러」<sup>177)</sup>의 초점화자는 10년 전 굶어 죽은 유행(공선)이다. 유행이 초점화자로 설정된 덕에 독자는 1인칭이나 3인칭의 익숙한 회로에 몸을 두지 않으면서도 소설 속 내밀한 일상에 큰 위화감 없이 이입하기 쉽다. 환상성과 관련하여 장르적 독법이 가능한 덕에, 통상적 재현물이라면 서사적 공백으로 여겨지거나 까다롭게 재현법을 질문하고 싶은 층동으로부터도 다소 자유로워진다. 이때 소설 안팎으로 의미심장한 장면이 하나 있어서 잠시 생각해본다.

소설 속 인물들이 소설 합평을 하고 있다. 습작품의 필자는 부재한 상황에서 합평이 이어진다. 이때 습작 속 주인공이 “병원 확장실 바닥에 떨어진 지렁이 젤리를 먹는 장면”이 논란이 된다. 이유나 맥락은 진술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빈곤이 배경이 된 행위임이 암시된다. 그런데 소설 속 누군가는 이 장면과 관련하여 “가난한 환경이나 가난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에 대해 묘사할 때 과하게 쓰는 경향”을 지적한다. 또 누군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공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으니가 당혹스럽”다고 말한다. 또 누군가는 “사람들이 너무 보기 싫어하는 부분들은 덜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쓰려면 “전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대화를 나누는 이들 모두는 “현대에 통용되는 감수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고 그것에 스스로를 조율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이른바 빈곤을 둘러싼 재현 전략-독자를 공감으로 이끌거나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며, 시대의 감수성이 강하게 의식되고 있다.

176) representation의 원리를 감안하면서 본문에서는 맥락에 따라 ‘재현’ ‘대표’ ‘표상’을 혼용하여 사용했고, affect 역시 맥락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정동’으로 표기했으며 그 외의 경우는 ‘감수성’과 혼용하여 사용한다. 한편,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이지만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선택된 개념어들, 가령 ‘감정구조’(소영현, 『광장과 젠더』, 갈무리, 2022), ‘파토스’(강지희, 『파토스의 그림자』, 문학동네, 2022) 등과의 공명하는 지점과 차이들 모두를 짐작해보는 것은 이후 과제로 남긴다.

177) 구소현, 「시트론 호러」, 『문학들』, 2021년 봄호.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다. “현 시대에 통용되는 감수성”이라고 지목한 것의 의미내용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가령 9·11 이후의 미국사회에 대한 사회비평 에세이에서 연민이나 동정의 허약함과 그 토대를 상기시킨 수잔 손탁의 논의들이 오늘날 대중적으로는 어떤 사건들 앞에서 우선은 판단과 감정을 차단시켜도 될 알리바이처럼 구사되는 사례도 떠오른다. 또는 어떤 감정을 자아내는 이미지의 범람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항간의 이야기도 떠오른다. 혹은 아예 어떤 사건 앞에 요청될 연루의 책임을 기피하는 어떤 심상들도 떠오른다. 어느 쪽이든 오늘날 타인의 빈곤이나 불행 앞에서 감수성의 회로가 복잡해졌으며, 그것은 때로 어떤 사건이나 존재를 개인적 ‘호오(好惡)’의 대상으로 환원시킬 때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저들이 고민하는 시대의 ‘감수성’이란 이른바 재현의 윤리에 대한 오늘날 독자-창작자의 관심도 상기시킨다. 가령, 무언가를 뚜렷하게 보여주려는 작가의 욕망이 과장된 재현으로 이어지면서 실상은 그 대상이 왜곡될지 모를 폭력에 대한 우려가 저 대화에서 읽혀진다. 그러한 재현이 누구에게 호소하는 것일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일지, 누군가의 빈곤을 팝진하게 그려내 보인다는 것이 곧 누군가의 불행을 무분별하게 전시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아닐지 등에 대한, 최근 수년간의 한국 문화예술계에서의 골몰이 저 대화에서 읽히기도 한다. 이것은 후술하겠지만, 소설 속 사소한 삽화라기에는 서사적으로 중요하게 기능하는 바가 있고, 컨텍스트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많다. 요컨대 오늘날의 어떤 정동적 충돌들과 텍스트의 교섭에 대한 주제를 저 장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 2. 동기화(synchronization)하는 시대 : 작가/작품/독자 모델로부터의 이륙

시대의 감수성과 재현 전략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본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문화예술계의 숨가쁜 변화의 내용을 조망하는 것은 시간이 더 필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이른바 ‘재현 윤리’의 문제의식을 경유하는 큰 경향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각 언어문화권마다 한 사회의 지층을 뒤흔드는 사건(가령 2000년 9·11, 2011년 3·11, 2014년 4·16 등과 같은)이 발생한 이후에는 공히 재현에 관한 질문을 비껴갈 수 없었다. 한국문학계에서 이전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재현을 질문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주지하듯 2016년 전후,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등이었고, 이 과정에서 이 세계의 젠더 역학과 그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이것은 이른바 ‘재현할 수 있는가’의 질문, 증언과 기록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근대를 폭넓게 근거지어온 원리로서의 대표·표상·재현(representation)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이기도 했다. ‘누구의’ 시선과 위치에서 ‘무엇이’ 전경화/후경화되는지, 그리고 대상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의 질문이 대중 페미니즘의 부상과 함께 구체화했다. 이것은 문학의 방법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근대 이래 세계의 원리(대표·재현·표상)를 총체적으로 환기시켰다. 이후 퀴어, 비인간동물, 장애, 생태 등, 존재론적 확장과 심화의 문제제기가 문학계에서 이어진 것도, 근대적 존재론의 구조를 골몰하는 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국경을 넘어 회자되는 조남주 『82년생 김지영』(2016)과 그 현상 역시 페미니즘의 맥락을 넘어, (근대)소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이고 ‘누구’의 내러티브를 위해 존재들은 어떻게 배치되어왔는지 환기시켰다. 근대문학의 휴머니즘이라는 것 역시 성, 젠더, 장애 여부, 인종 등을 준거로 상상된 일종의 이념형이었다는 사실이 당사자성의 부상을 통해 총체적으로 환기된 것이 2010년대 중반이다. 이른바 커밍아웃하는 퀴어 당사자의 소설이 하필 2016년 가

사회하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2010년대 재현의 문제의식이 환기되는 과정은, 재현 행위에 내재된 대표(표상)의 문제를 강력하게 부상시켰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재현에 대한 질문은 근본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다양한 창작-읽기 현장에서 특히 재현 윤리가 화두가 된 것을 이런 맥락에 놓아본다. 이 과정에서 『82년생 김지영』의 대중적 성공과 그 텍스트 역학을 경유하지 않을 수 없다.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 발표된 것은 2016년, 그리고 그에 대한 비평적 논의는 잘 알려져 있듯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우선, 미적 자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소설의 선명해 보이는 메시지는 텍스트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고, 특정 목적에 소설을 종속시키기 쉬운 정치적 올바름의 텍스트로 지목되었다. 두 번째는 이 소설의 도식적 피해자성 및 김지영 표상이 지니는 주류성(이성에 기혼 중산층 고학력 여성으로 표상된 주인공)이 주로 지목되면서, 그것에 대한 대중의 열광이 궁극적으로 이 세계의 메이저리티의 욕망의 반영에 불과한 것 아닌지 비판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각 맥락과 지형에 따라서는 모두 정당했고, 한편 오늘날 이현령비현령이 된 감이 있는 ‘정치적 올바름’의 기의가 달라지는 맥락도 이 논의의 이행에서 읽어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텍스트 내의 장치들로서 예컨대 당시 빈번하게 비판된 바 있던 사회학 보고서 같다는 혐의다. (미리 적어두건대 이 글에서 염두에 두는 ‘사회학 보고서 같다’는 말은 비판의 술어는 아니다.) “김지영 씨는 우리 나이로 서른네 살이다. 3년 전 결혼해 지난해에 딸을 낳았다. 세 살 많은 남편 정대현 씨, 딸 정지원 양과 서울 변두리의 한 대단지 아파트 24평형에 전세로 거주한다.”는 문장들로 시작하는 소설의 스타일이 단적으로 암시하듯, 이 소설은 건조하고 짧고 명료한 서술법을 택하고 있으며, 서술자 스스로가 대상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개입을 삼가고 있다. 심지어 인물의 추동력이 큰 경장편임에도 그 인물의 외양 묘사 등은 일절 없다. 잘 알려져 있듯 소설 내 설정 자체는 사회학적 자료와 통계에 강하게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82년생 김지영』에 독자들이 스스로를 호환시켜 읽기에 적합한 스타일이기도 했고, 그렇기에 페미니즘 정동과 별개로 근대소설적 스타일과 장르철학에 잘 부합하지 않는 측면에서 현재 독자의 독법과 욕망을 짐작케 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설정을 강력하게 지지한 서술자의 특징을 다시 주목해본다. 이 소설은 소설점의 주체를 ‘남성’ ‘의사’ ‘보고서’에 할당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을 통한 한국 여성의 생애를 중산층, 이성애자, 기혼, 대졸, 서울 등에 포커싱함으로써 주류성을 대변하는 텍스트로까지 읽히게 했다.<sup>178)</sup> 앞서 일별했듯, 이 소설에 대한 비판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지점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이때 남성 의사의 보고서라는 소설점이 함축하는 바를 작가가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택해진 이유를 다시 맥락화해보고 싶다. 이것은 텍스트의 결함이나 창작자의 세계관 등으로 쉽게 환원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가령, 작가 조남주는 다양한 지면에서 이 소설의 계기가 되는 여성혐오의 경험과 깨달음을 밝힌 일 있다. 소설 속 공원에서 아 이와 함께 휴식을 취하던 김지영 씨가 두 남자의 대화 속 ‘맘충’이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는 장면은, 작가가 이 소설이 집필되는 직접적 동기로 이야기되기도 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적지 않아도 될테지만, 2010년대 중반 체감되던 여성혐오(미소지니와 헤이트스피치를 포함하여) 구조는 작가에게 강력하게 의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소설 바깥의

178) 고영란, 「K문학과 쿨재팬 사이에서—일본어로 「82년생, 김지영」과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겹쳐 읽다—」, 『뉴래디컬 리뷰』, 2022년 봄호 게재 예정.

정동적 충돌과 상황의 격렬한 이행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다. 강조건대 이 텍스트는 재현·표상의 문제뿐 아니라, 그것이 시간적 이행(사건)과 함께 정동적 자장이 계속 유동, 이행하는 과정속에서 그 의미가 달라짐을 기억해야 한다.

가령, 이 세계에서 불안정한 멘탈의 주부 여성과 남성 엘리트의 규격화된 보고서의 말 중에 무엇이 설득력을 지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 즉, 메시지에 대한 반감(백래시)는 이미 소셜 바깥에 증폭되며 존재해왔고, 이에 상응하여 그에 반하는 정동이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이때 작가 입장에서는 서사가 주관적 피해의식으로 폄하되는 회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떤 강력한 정동적 촉발과 활성화는 개체화 이전의 신체와 관련이 깊다. 그러하니 그 목적의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르게 설득되어야 한다는 조바심은 선택/타협한 것이, 이 세계의 역학을 반영하는 서술자의 위치였고 그에 기대는 전략이었던 셈이었다. 즉, 이 소설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보고서라는 혐의나 김지영 씨의 표상 쪽이 아니라 바로 이 메시지의 설득을 위해서 작가가 포기하고 취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을지에 좀더 방점이 찍혔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텍스트 내적 한계나 결합에 대한 지적이 아니다. 2016년에서 2023년에 이르기까지 지형은 계속 바뀌고 그 사이에 텍스트의 좌표도 계속 달라진다. 이미 체감의 영역이 되었지만, 오늘날 세계는 다소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일종의 정동적 격전장이다.<sup>179)</sup> 작가/작품/독자 역시 오늘날 단독적으로 존재하거나 명료하게 구획되지 않는다. 이 독립적으로 상정된 3개의 항들은 안정된 해석 격자로서 존재해왔으나 그러한 모델은 지금 잘 통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 격자는 노이즈를 최대한 피하며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수신자에게 전달해야 했던 전통적 의미의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닮아있었다.<sup>180)</sup> 하지만 지금 수신자는 기존의 안정된 해석 격자를 자주 이탈하고, 과거 최소화되어야 했던 노이즈가 오히려 이 3항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메시지를 규정해가고 있다.(그것을 본문에서는 하이픈-의 관계로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들마다 시대의 감수성에 대한 의식은 직간접적으로 빈번하게 감지된다. 반복건대 이 세계의 명백히 메이저리티인 남성 엘리트 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작가가 몰랐을 리 없다. 하지만 이 세계의 강력한 역학 구도, 백래시의 정동이 당장 다른 정동적 절박함을 촉발, 활성화할 때, 그 한복판에서 도모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남성 엘리트에의) 상상적 동일시를 매개한 연대(임파워링)의 설득인 셈이었고, 그것은 역사상 많은 집단적 주체성의 발흥과 그 이행 과정이 그러하듯 이후 정동적 분화, 차이의 가시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앞서 본 「시트론 호러」 속 합평 장면이 암시하듯, 오늘날 시대의 감수성은 작가-작품-독자 사이 좀더 조밀하게 연동되는 신체를 만들어 간다. 단적으로 캔슬컬처 같은 사건들은

179) 정동 정치의 문제의식이 단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지시하고 있고(정동 이론가 브라이언 마수미 및 정치철학자 샬탈 무페의 논의들 참조.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 정치』, 갈무리, 2019 / 최성희 외 옮김, 『존재권력』, 갈무리, 2021 / 샬탈 무페, 이승원 옮김,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문학세계사, 2019), 이에 대해서는 2010년대 자기표현미디어 분석이 필요하다.

180) 가령, 현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론에서의 전통적 모델인 송신자-메시지-수신자 모델(클로드 새넌, 워렌 위버)도 작가-작품-독자 모델과 닮아있다. 하지만 송신자-메시지-수신자 모델에 변화가 제기된 것은 주지하듯 이후 문화연구 등의 전개과정의 일이다. 문화연구에서는 이 모델에서 해석, 독해라는 행위를 중시하면서 ‘수신자’ 쪽에 방점을 찍었고 이것은 수신자(감상자, 수용자)가 수동적인 항이 더이상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의미를 지녔다. 하지만 이것은 노이즈를 최대한 피하며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기존 커뮤니케이션 모델 자체를 넘어선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되며, 오늘날은 이러한 해석격자에서 이탈하는 수신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伊藤守, 『情動の社会学 -ポストメディア時代における“ミクロ知覚”の探求』(靑土社, 2017)의 7장 참조.

작품-작가-독자의 연동을 상징적으로 환기시켰다. 무언가를 설득시키려는 목적에 의한 재현법의 곤경은 다양하게 지적되기도 했다. 재현 윤리는 읽기와 쓰기의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질문되는 주제가 되었다. 그것이 오늘날 단지 작품과 작가의 수준에 놓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정동과 의식·무의식적으로 교섭한 결과 혹은 과정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계속 강조해준다. 과거 근대의 메커니즘이 시계 장치의 발명으로 상징되는 균질화, 훈육·규율(discipline) 권력의 원리를 통해 설명되어 왔다면, 오늘날은 가령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동기화, 제어·통제(control) 권력의 원리를 통해 설명되어야 할 장면이 빈번해졌다.<sup>181)</sup> 지금까지 소설의 말을 빌려 ‘시대의 감수성’이라고 계속 적어왔지만 이것을 정동(affect)이라는 말로 바꾸어 적는다면 문제의식이 좀더 선명해질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창작자들이 단순히 시대의 감수성을 추수하거나 저항한다는 식의 말이 아니다. 그 점을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살펴본다.

### 3. 그런데 판단과 개입을 기피하는 소설과 그 딜레마

창작자와 시대의 감수성 사이의 역할, 텍스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때 『82년생 김지영』은 꽤 예외적인 소설이기도 했다. 2010년대 중반 이래로 문단에서 발표되는 소설들은 이른바 도식성, 이분법, 평면성 등이 비판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의 재현을 기피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0년대 중반 소설 중 임현의 「고두」(2016)<sup>182)</sup>는 성폭력의 도식적 피해/가해가 아니라 그 이면의 복잡성을 보여주면서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윤리를 환기시켰다고 주목받았다. 임솔아의 「병원」(2017)은 생활보호 대상 수급을 받는 소녀 가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소설은 그녀가 독자의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일관되게 냉소적이고 방어적인 문체를 택한다. 김혜진의 「아는 언니」(2016)는 퀴어 커플의 이야기지만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흔하고 흔해 빠진 연인”임을 강조하며 그들을 향한 호기심이나 무심한 배려의 폭력을 차단시키는 1인칭을 구사한다. 김숨의 역사 제재 서사들도 이 맥락에 다시 놓을 수 있을텐데, 「녹음기와 두 여자」(2016)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목소리를 구술하려는 서술자의 욕망과 당사자의 증언 불가능(침묵)이 긴장하는 장면 자체를 서사(갈등)축으로 전개시킨다.

그럼에도 현실의 복잡성과 불가시성을 주목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공통점은 공히 시선(서술자)의 중립성 추구나 판단자 역할의 유보 경향, 즉 대상으로 놓인 존재나 사건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혹은 공감의 회로를 억지로 만들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82년생 김지영』의 서술 전력과 비슷한 동기이지만 그 결과(양상)는 조금 다르다. 가령, 방금 일별한 임현의 「고두」는 문학평론가 서영인의 논의에서 처럼<sup>183)</sup> 성폭력 가해자 교사의 자기 고백=자기 폭로 형식이 구체적 폭력과 명백한 피해의 형상을 지우고, 결과적으로 보편의 윤리를 환기시키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 보편의 윤리라고 일컬을만한 것은, ‘도식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또 다른 작품과 현실<sup>184)</sup>을 통해 보충하

181) 푸코×들뢰즈·가타리 논의들

182) 지금 챗터에서 언급하는 소설들에 대한 내용은 좋고, 「아리아드네의 실 : 독서할 수 있는/없는 시대의 회로」(『문학과사회 하이픈』, 2019년 봄호)의 분석 일부를 재구성했다.

183) 서영인, 「미투 이후의 문학비평 : 김이설의 「부고」와 임현의 「고두」에 부쳐」, 『21세기문학』, 2018년 여름호. 이 글은 궁극적으로 “「고두」가 성폭력의 사건을 부차화시키면서 윤리적 태도라는 보편성으로, 「부고」가 성폭력과 낙태의 사건들을 전면화시키면서 도식성의 한계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을 연쇄적으로 구축하고 읽어야 할 비평의 태도를 역설하는 글이다.

지 않고는 충분치 않은 윤리인 셈이었다. 게다가 피해/가해 이면의 진실이 전경화하고 애초에 놓인 그 경계가 해소되면서 (마치 제로섬처럼) 소설이 제재로 삼은 현실과 이 설정을 가능케 한 현존하는 구조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소설 발표 당시 미투를 폄훼하던 어떤 대중의 정동에 이 소설의 설정이 접속할 부분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임술아의 「병원」은, 독자가 주인공에게 가질 법한 이미지, 즉 사회적 약자 표상의 전형성을 거부하는 장치들이 다양하게 구사되었다. 순수한 약자성과 그 표상을 계속 이탈시키는 서술자의 냉소와 거리두기와 자기방어가 특징적이다. 여기에서 기존의 관습적 표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주인공은, 사회적 약자를 둘러싼 이중 삼중의 곤경(딜레마)과 현실의 구조를 두드러지게 한다. 그리고 나아가 그녀의 취약성이 익명·무명의 취약성과 서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점도 암시하기는 한다. 그럼에도 그녀에게 캐릭터로서 할당된 냉소와 서술자의 말들은 실제 현실 속 백래시의 워딩과 아이러니하게 겹치는 측면이 있다.

한편, 김혜진의 「동네 사람」(2018)은,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느슨하게 공유하고 있을 여성 독거노인, 외지인 여성 커플이 등장하는데 그들 사이의 약자성이 경쟁되는 듯한 구조도 엿보인다. 이것은 자원봉사 단체나 여성 독거노인 등이 지녔던 통상적 이미지(선함, 약함)를 이탈하는 설정들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선/악의 익숙한 표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 둘의 공존을 공평하게 보여주려는 재현 속에서, 현실 속 노인 혐오나 봉사 단체(시민운동) 혐오 등의 정동-언설이 이에 오버랩되는 것도 개인적 비약은 아닐 것이다.

김경욱의 「하늘의 용단」(2019)은 비이성애자(게이)-중노년-교사-미디어 약자 vs. 이성애자(시스젠더 여성)-학생-미디어 강자 사이의 구도를 공평하게 대비시키면서 이 세계의 성, 젠더, 학교 내 위계, 세대, 기술 접근도 등을 둘러싼 성 법이나 단죄의 언어로 설명되기 어려운 장면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설정은, 앞서 언급한 약자성의 경쟁 구도는 물론이고 현실에 명백히 현존하는 제재로서의 위계와 권력형 폭력의 문제를 불가지론으로 밀어 넣고 애초 현실에서 선택한 제재에 대한 회의를 촉진하도록 읽히는 측면도 지적할 수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재현 윤리의 주제로 읽을 수 있을 소설을 대략 일별했지만, 근대적 대표 체제의 흔들림 속에서 익숙했던 기존 가치 전선이 질문되고 그것이 재현 층위에서 골물, 구현되는 과정에서 공히 서술의 중립성이 추구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앞서 말한 『82년생 김지영』의 정동 촉발과 활성화 이후, 현실의 복잡성을 사유하는 단계적 양상이기도 하다. 서사의 핵심이 되는 존재,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역할을 최소화하거나, 익숙한 표상으로의 독자의 심상 회로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며 그 표상을 둘러싼 가치들(가령 선/악)을 모두 동등하게 고려하는 서술적 특징은, 독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활자를 읽어가며 작가의 의도와 만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미를 가능케 하는 최종 단계의 행위소(그간 소위 주체라고 불리웠던)가 부재하면서 모든 가치가 등가적으로 환원되는 딜레마도 엿보인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것은 『82년생 김지영』에서 보인 서술상의 중립 강박과는 다른 이유에서의 중립성 추구의 결과이기도 했으니 이 지점이 아이러니한 것이다.

2018년 발간된 김혜진의 『9번의 일』<sup>185)</sup>이 보여준 노동 재현, 노조 표상도 그런 우려에

184) 서영인의 글에서는 김이설의 「부고」(2011 『오늘처럼 고요히』, 문학동네, 2016)가 함께 다루어진다.

185) 김혜진, 『9번의 일』, 한겨레출판, 2018. 이 소설 속 노동 재현에 대해서는 그 비판의 요지는 상이하지만 다음과 같은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오길영, 「노동소설에서 사회소설로」, 『황해문화』 107, 새얼문화재단, 2020. / 한영인, 앞의 글, 2022. / 김미정, 「부드러운 전제와 노동-자본의 피비

서 자유롭지 않음은 여러번 지적되었다. 이 소설은 회사로부터 모욕적으로 퇴직을 강요받는 26년 근속자의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서 노조로 대표되어왔던 신뢰와 연대의 공동체는 이미 사측과 등가적인 위치를 점할 뿐, 소설 속 갈등의 사안은 개별화되고 비극으로 치닫는다. 이것이 달라진 시대상과 감각이 반영된 설정임은 물론이겠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소설 속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주인공의 캐릭터와도 공통되는 어떤 중립강박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주인공은 단적으로, “사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적이 없었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은 내내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어느 쪽도 아닌 중립을 지키려고 했고 어떤 순간에도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라고 묘사된다. 이 성격은 기존 노조 표상의 전형성과 결별하는 설정과 관련되고, 서술자의 치우치지 않으려는 시선과도 연동된다.

그런데 거칠게 말해, 오늘날 투쟁하는 노조의 이미지, 혹은 기존 노조 표상에 대한 거부감은 노조 혐오의 정동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노조 표상과 그 인식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지만(보충) 특히 2천년대 중반(비정규직 법제화) 이후 한국의 노동 현실을 기존 노동조합이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며, 실제 노동자의 대표성이 약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표성의 약화와 그 표상의 변화는 당연한 상관성을 지닌다. 그것은 또한 대중의 정동(이때의 정동은 물론 어떤 방향성을 미리 갖고 있지 않다)과 무관치 않다. 한편 창작자 역시 노조의 전체상을 익숙한 이미지로 환원시키고 싶지 않다. 사유를 동반하지 않고 기존 전형성을 반복하는 것은 창작자로서의 태만일 것이다. 현실의 변화에 상응하여 창작(재현) 역시 계속 갱신해야 한다.

소위 선/악으로 전달되기 쉬운 기존 표상(노조/회사)이 소설 속 설정과 서술 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워지는 것도 이런 맥락을 지닐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존재나 사안을 기존의 익숙한 표상이나 서사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작가의) 객관화의 욕망과도 만난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오늘날 전형성이 타자화나 대상화라는 말과 동일시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때(정말 동일시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그리고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포지션이 균형과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향도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중립에의 강박은 분명 오늘날 시대의 어떤 감수성에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하니 2010년대 대두된 어떤 감수성(정동)과 텍스트의 재현 전략은 지금 이 소설에서 같은 자리에서 만난 셈이기도 하다.

한편, 문학평론가 한영인은 장강명의 「공장 밖에서」(2015)를 분석하는 글에서<sup>186)</sup> 이러한 경향성을 아예 “‘공정’한 재현에의 욕망”이라고 지목하며 우리 시대의 능력주의와 직결시킨 일이 있다. 그는 장강명의 창작론<sup>187)</sup>과 소설을 겹쳐 읽으며 작가의 “서사 윤리학”이 내재한 시대와의 교착을 지적한다. “사태에 연루된 다양한 주체들의 시각을 통해 ‘공정하게’ 재구성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장강명 소설의 방식은 최근의 공정 담론과 그것에 내재된 능력주의와 친연성이 있고, 그렇기에 “능력주의의 뒷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장강명의 소설 전반을 가로지르는 중립 혹은 객관을 지향하는 서술 태도에서 오늘날의 ‘공정’ 담론과의 친연성을 직접 거론하는 것에는 사회학 레퍼런스도 필요하다. 가령, 「공장 밖에서」가 발표된 2015년은 박근혜 정부 중반기로서 세대론에 기반한 공정성 논의, 세대 불평등 논의, 반노동 담론 등이 본격화한 시기로 거론되기도 한다.<sup>188)</sup> 그리고 ‘공정’이 문제

우스며), 반교어문학회, 『위기와 성찰의 뉴노멀 시대』, 보고서, 2022.  
 186) 한영인, 「우리 시대의 노동 이야기」, 『창작과비평』, 2021년 봄호.  
 187) 장강명, 「재현의 구조, 재현하려는 구조」, 『문화과사회 하이픈』, 2018년 겨울호.  
 188) 신진욱, 『그런 세대는 없다』, 개마고원, 2022. 이 책에서 사회학자 신진욱은 빅카인즈를 활용한 정량주의를 바탕으로 담론 변화를 논한다.

적인 키워드로 부상한 것은 2022년 대선 국면을 정점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소위 ‘이대남’ 논의를 만든 정치×미디어의 각축장에서의 일이었다. 작가의 글들을 통해 능력주의나 공정 담론과의 친연성을 읽는 것에는 이러한 각축장의 회로와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이 많지만, 적어도 현재 작가-작품-독자의 정동적 길항이 소설의 공평무사 지향의 시선에 구조화되는 측면은 읽을 것이 많다.

즉, 지금 시대의 많은 이들은 구조, 시스템 속의 미리 가치가 전제되고 할당된 표상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가난·빈곤 혹은 노조·투쟁의 문제가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이전보다 많은 이들이 ‘자본(가)은 반드시 악마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악자는 반드시 선하지 않다’는 항간의 말이 궁극적으로 무엇에 기여하는지 질문되지 않는다. 또한 미디어 속 정보에 무한하게 노출된 지금, 오늘의 진실이 내일의 거짓으로 전전반측하는 것이 더 자주 목도된다. 그러하니 모든 것에 판단을 유보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기존의 가치 전선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된 세계 속에서 일단 가치에 대한 판단을 지우고 동등한 지평에 놓고 사유해야 한다고 믿어진다. 진실은 팩트로 증명해야 한다는 증거주의도 상상력을 잠식한다.

재현 윤리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무언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개입의 포즈 자체를 지우는 소설들은 의외로 이러한 소설 바깥 상이한 정동들과 마주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소설 밖 세계의 구조, 제도 속 실재하는 힘 관계가 왜곡되기도 한다.<sup>189)</sup> 지금 거칠게 일별했듯, 기존의 표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함을 재현 윤리라는 프레임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아이러니하게 소설 바깥의 증거주의, 가치 상대주의, 백래시의 정동 등과 연결되는 회로도 조심스레 짚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 4. 유행이라는 방법

다시 처음의 구소현 「시트론 호러」의 합평 장면으로 돌아와본다. 우선 그들이 말한 감수성이 빈곤 재현을 기피, 부정하는 측의 입장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면 “병원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지렁이 젤리를 먹는” 일 같은 것은 지금 시대에 존재할 수 없거나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며, 이런 빈곤 재현은 이른바 언더도그마의 상투성에 불과하다. 또한 그들이 말한 감수성이 재현 윤리에 대한 것이었다 해도 누군가의 불행을 꺾진하게 재현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고착된 전형성에 기댄 게으른 상상력에 가깝고, 그것을 통해 특정한 공감의 회로를 만들고자 한 창작자의 욕망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곤 한다. 그러니 창작자는 과거식의 표상으로 읽히지 않도록 우선은 대상과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말하자면 “현 시대에 통용되는 감수성”이라는 말의 배후에 놓인 두 맥락들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빈곤 자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착종하고 있다.

물론 재현은 단지 현실의 ‘반영’을 넘어 재현·표상될 수 없는 잉여, 외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는 점<sup>190)</sup>에서 그 궁극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러한 의미화의 메커니즘이 질문되기 이전에 한하여 설득적이다. 재현 원리 자체에 강박할수록 앞서 말한 전자(기피, 부정)의 감수성과 마주치기도 쉬웠는지 모른다. 활자라는 가시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잉여를 재현 너머에서 읽어야 한다는 말은 오늘날 어찌면 페다고지의 영역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소설에 등장하는 유행은 주목할 것이 있어 보인다. 유행 공선은

189) 최근 이서수 소설 『헬프미 시스터』(은행나무, 2022)에서도 비슷하게 논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노조는 아니지만 시민운동(가)의 기존 표상과의 긴장감이 확인되는 장면이 있다. 추후 보충.

190) 오카 마리, 김병구 옮김, 「사건의 표상」, 『기억·서사』, 소명, 2004.

타인에게 닿고 싶은 간절함으로 이성을 배회한다. 물리적 신체의 부재야말로 타인에게 ‘닿고자’ 하는 그녀의 욕망을 더욱 간절하게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독서하는 사람들마다 쫓아다니며 그들과 함께 책을 읽어간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내밀한 사정, 오해, 부조리가 독자들에게 암시된다. 이 유령은 서사적(혹은 이 세계 속) 단절이나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이 소설의 압권은, 유령으로 인해 강령술이 성공하는 마지막 장면, 이른바 현실과 비현실 혹은 가시화한 세계 너머의 무언가들이 순간적으로 언뜻 전모를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소설 속 습작을 둘러싼 제3자들(독자)의 평가는 심각한 오해 혹은 몰이해에 기반해 있다는 점이 초점화자 유령을 통해 암시된다. 이 습작 이면의 내밀한 사정은 소설 속 인물도 독자도 결코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화장실 바다에 떨어진 젤리를 먹는 장면이 ‘가난’을 과잉대표하고 있다는 식의 견해도 딱 합리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무언가를 과장되게 표상하고 있다고 평가된 이 장면은,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 찡찡한 리얼리티일 수도 있다. 예컨대 유령 공선이 살아생전 경험한 일이 바로 이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물론 유령 공선의 살아생전 행위와, 이 습작 필자(효주)의 경험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공히 말끔히 납득되지 않는 수수께끼를 품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굶주림, 가난이라는 말로 간단히 표현하기 어려운 무엇과 환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 유령이야말로 그 포착되지도 재현되지도 않으나 일순간 현현될 실재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서술자의 거리두기나 증립에의 추구가 아닌 방식으로) 소설 밖 설왕설래를 중단시킨다. 어떤 빈곤이 과장된 것이라고 치부되지만, 그것은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엄연한 리얼리티일 수 있음을 이 유령이 증명하고, 그것이 한편 빈곤이라는 말로 간단히 회수될 수 없음도 암시한다.

최근 다양한 소설에 유령이 등장하는 것에 관심이 모인 즈임이기도 하다.<sup>191)</sup> 이는 작가들의 상상력의 갱신 혹은 재현법의 변화와 관련된 주제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2010년대 이래로 작가-독자가 골몰해온 재현 윤리의 문제의식과 그 과정에서의 곤경이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증거일 수 있다. 지금 소설들에 등장해온 유령들은, 일종의 환상성의 개입 혹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소망의 충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터이지만, 기존의 문화예술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하던 유령과는 확연히 다른 맥락을 갖는다. 공히 인간의 상태를 경험한 바 있는 이 존재들은 소설에서 불가피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재현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모호한 진실을 확인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하거나(구소현), 이루지 못한 소망 충족의 대리자가 되거나(임선우), 인간들끼리 선뜻 내보이기 어려워하는 마음(내면)의 표현-연결자(김멜라, 임선우)가 되거나, 인간과 노동의 관계를 작가의 확신으로 드러내거나(최정화), 몸을 잃은 형체없는 마음들이 세상을 부유하는 과정(김지연)이 그려진다.<sup>192)</sup>

일견, 2천 년대 이후 소설에서 점점 사라진 근대적 의미의 내면성의 표현이 유령에게 위주되는 인상도 받는다.(오늘날 타인의 내면 읽기에 대한 기피 보충) 하지만 그런 동시에 이들은 근대적 인간 개체(individual)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비인간, 생물/무생물, 유기체/무기

191) 김요섭, 「우리가 인간이기를 멈출 때」, 『문화과사회 하이픈』, 2022년 겨울호 / 이희우, 「별망보다 긴 - 김지연, 나푸름, 임선우 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유령들」, 『문학들』, 2022년 겨울호 / 김미정, 「질문을 바꾸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창작과비평』, 2022년 겨울호.

192) 이 대목과 관련된 소설은 다음과 같다. 구소현 「시트론 호러」(『문학들』 2021년 여름호), 임선우 「유령의 마음으로」 「빛이 나지 않아요」 「커티콜, 연장전, 라스트 팡」(『유령의 마음으로』, 민음사 2022), 김멜라 「제 꿈 꾸세요」(『제 꿈 꾸세요』, 문학동네 2022), 김지연 「내가 울기 시작할 때」(『마음에 없는 소리』, 문학동네 2022), 최정화 「쭈안의 블라우스」(『날씨통제사』, 창비교육, 2022)



체 식의 구획을 지우며 움직이는- 일종의 회집체, 배치(asmblage)에 가깝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환상성의 장치이지만 한편으로 이 세계 존재론의 다른 원리를 구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유사(pseudo) 내면이 작동하면서 어떤 식으로건 소설들은 다시 어떤 입장 혹은 지향을 갖는데, 그것이 유령의 것이니(장르적 독법을 내재하고 있으니) 큰 위화감을 주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이 세계에서 현실이라고 여겨진 것의 범주를 질문한다. 현실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보이지 않거나 현행화되지 않은 것 너머의 보이지 않는 힘을 환기시키고 증거한다.

지금 유령은 이 세계의 상이한 정동들이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재성의 평면'에서의 다른 발현됨을 생각하게 한다. 이때, 이 글이 내내 염두에 두어온 이 세계의 복잡화한 정동, 재현 윤리에 대한 고민이 의도치 않았을지라도 백래시와 마주치기 쉬워진 조건은 비판의 대상만은 아니다. 결국 작품-작가-독자의 동기화되어가는 신체 자체가 곧 어떤 역전 가능성(잠재성)을 늘 품고 있고, 그것이 다시 시대의 정동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에 이 글의 방점을 찍어본다.





「소설, 재현체계에서 정동적 격전장으로 - 2010년대 중반 이후 소설 텍스트의  
역학에 대해」에 대한 토론문

강 지 희(한신대학교)

\*발표 시 공유화면 참조



# 이화어문학회

## 연구윤리규정

2014. 04. 01. 제정  
2015. 04. 01. 개정  
2017. 02. 02. 개정  
2018. 01. 09. 개정  
2019. 01. 08. 개정  
2021. 07. 08.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이화어문학회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회 회원의 학술활동과 학회지 『이화어문논집』이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한 자와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연구 윤리 규정의 시행)

본회의 모든 회원과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자는 본회에서 개정된 ‘연구 윤리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한다.

#### 제4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이화어문논집』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투고자가 이를 준수하게 하여 양질의 논문을 출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07.08.)

#### 제5조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저자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중복 게재(이중 출판)·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자료,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표지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물에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와 인용 내용을 독자가 변별할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다.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재수록하거나 여러 논문들을 합성하여 새로운 논문으로 가공하는 자기 표절 행위

4) '중복 게재(이중 출판)'는 저자가 이전에 출판한 연구물이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 혹은 유사한 논문을 동시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통칭한다.

##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학술발표회의에서 연 1회 이상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편집위원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위원회) 교육을 권장한다.

## 제2장 연구윤리

### 제7조 (저자 윤리) (신설, 2021.07.08.)

1. 저자는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나타난 투고 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저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지침을 숙지해야 한다.
3. 저자는 본 학술지에 자신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제8조 (편집위원 윤리) (신설, 2021.07.08.)

1. 편집위원은 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논문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3.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 (심사위원 윤리) (신설, 2021.07.08.)

1.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서를 작성할 때 투고자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심사에서 알게 된 내용을 학술

지 출판 전에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본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와 도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심사위원은 국어·국문학 및 (한)국어교육학 분야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회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고 간사(1인)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4. 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를 배제한다. (신설, 2018.01.09.)
6. 투고된 논문의 유사성 검사 결과가 10%이상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의 검토 후 인용문의 유사성이 아닌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01.09.)

### 제4장 연구윤리의 검증 및 조치

#### 제12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윤리위원회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13조 (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2.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제보자 및 저자의 권리 보호) (신설, 2021.07.08.)

1.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가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공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제보자는 연구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저자의 권리

1)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내릴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본 윤리위원회는 저자가 연구윤리 검증 과정에서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저자는 연구 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 (조사 결과 보고) (신설, 2021.07.08.)

1.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제보의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판정)

1. 판정이란 윤리위원회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의 장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신청 등)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관련 부처의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게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1. 조사 결과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7.02.02.)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논문심사, 학술대회의 발표 및 토론 금지(최소 3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개정, 2021.07.08.)

3) 이화어문학회 홈페이지 및 이화어문논집을 통해 공지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학회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인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6-2. 이화어문논집은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각각 2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02.02.)

제19조 (기타)

1.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고, 편집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2.02.)

3.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상식을 따른다.

부 칙(2014.04.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04.01.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5.04.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04.01.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7.02.0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02.02.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8.01.0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01.09.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9.01.0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01.08.부터 시행된다. (2021.07.0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07.08.부터 시행된다.